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  
민수기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민수기

## Numbers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34:2)

צו את בני ישראל ואמרת אליהם כי אתם באים אל הארץ כנען  
זאת הארץ אשר תפל לכם בנחלה ארץ כנען לנבלתיה :

# 민수기

## 차례

### 민수기 차례

---

민수기 서론 .....	〈14제〉	163
제 1 장 제 1차 인구 조사 .....	〈21제〉	166
제 2 장 각 지파의 배진(配陣) .....	〈20제〉	172
제 3 장 레위인의 임무와 지위 .....	〈19제〉	178
제 4 장 레위 지파의 가문별 직무 .....	〈24제〉	184
제 5 장 진(陣)의 정결과 의심의 법 .....	〈27제〉	190
제 6 장 나실인에 관한 규제 .....	〈27제〉	196
제 7 장 성막 봉헌을 위해 바친 예물 .....	〈23제〉	202
제 8 장 레위인의 정결 예식 .....	〈20제〉	209
제 9 장 사고자(事故者)들의 2차 유월절 .....	〈21제〉	214
제 10 장 시내에서 바란으로 이동 .....	〈26제〉	219
제 11 장 만나에 실패한 백성들의 불명 .....	〈18제〉	225
제 12 장 아론과 미리암의 범죄 .....	〈18제〉	230
제 13 장 열 두 정탐군의 파송 .....	〈14제〉	235
제 14 장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자들 .....	〈21제〉	239
제 15 장 가나안 입국 이후의 제사법 .....	〈20제〉	246
제 16 장 고라 일당의 반역 .....	〈23제〉	252
제 17 장 아론의 싹 난 지팡이 .....	〈13제〉	259
제 18 장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 .....	〈21제〉	263
제 19 장 정결식을 위한 잿물 .....	〈13제〉	269
제 20 장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실수 .....	〈15제〉	273
제 21 장 불뱀과 숫뱀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정복 .....	〈15제〉	278
제 22 장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다 .....	〈18제〉	283

제 23 장	발람의 예언 노래	〈16제〉	289
제 24 장	야곱의 별에 대한 발람의 예언	〈16제〉	294
제 25 장	시므리와 고스바가 처형되다	〈13제〉	298
제 26 장	모압 광야에서 실시한 두번째 인구 조사	〈15제〉	302
제 27 장	여자 상속 및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14제〉	308
제 28 장	절기와 제물에 관한 규례	〈11제〉	312
제 29 장	나팔절과 속죄일 및 초막절의 규례	〈11제〉	316
제 30 장	서원을 규제하는 율법들	〈9제〉	320
제 31 장	미디안을 격파하다	〈13제〉	323
제 32 장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다	〈12제〉	328
제 33 장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旅程)	〈10제〉	333
제 34 장	가나안 땅의 경계 및 제비뿔을 족장의 명단	〈10제〉	337
제 35 장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도피성	〈18제〉	341
제 36 장	여성의 상속법	〈7제〉	347

## 민수기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본장의 요절〉	171
제 2 장	〈연구 자료〉 구약 시대의 인구 조사에 대하여	177
제 3 장	〈연구 자료〉 본서의 주제에 대하여	183
제 4 장	〈화보 자료〉 금반(金盤)	189
제 5 장	〈화보 자료〉 거룩한 물을 담은 그릇	195
제 7 장	〈본장의 요절〉	208
제 8 장	〈화보 자료〉 면도칼	213
제 9 장	〈본장의 요절〉	218
제 10 장	〈본장의 요절〉	224

제 11 장	〈본장의 요절〉	.....	229
제 12 장	〈연구 자료〉	중보의 기도 .....	234
제 14 장	〈연구 자료〉	홍해 .....	245
제 15 장	〈연구 자료〉	정착자가 된 나그네들 .....	251
제 16 장	〈화보 자료〉	향로 (香爐) .....	258
제 17 장	〈연구 자료〉	성경 비평과 구약 .....	262
제 18 장	〈본장의 요절〉	.....	268
제 19 장	〈화보 자료〉	붉은 암송아지 .....	272
제 20 장	〈화보 자료〉	므리바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 .....	277
제 21 장	〈본장의 요절〉	.....	282
제 22 장	〈화보 자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를 보관했던 항아리 .....	288
제 23 장	〈본장의 요절〉	.....	293
제 24 장	〈본장의 요절〉	.....	297
제 25 장	〈화보 자료〉	쇠창의 창 끝 .....	301
제 26 장	〈연구 자료〉	제비뽑기 (lot) .....	307
제 27 장	〈본장의 요절〉	.....	311
제 28 장	〈화보 자료〉	수송아지 .....	315
제 29 장	〈연구 자료〉	서원 (誓願)의 종류에 대하여 .....	319
제 30 장	〈본장의 요절〉	.....	322
제 31 장	〈본장의 요절〉	.....	327
제 32 장	〈화보 자료〉	히브리어로 십계명이 기록된 사해 사본 .....	332
제 33 장	〈본장의 요절〉	.....	336
제 34 장	〈화보 자료〉	경계표 .....	340
제 35 장	〈본장의 요절〉	.....	346
제 36 장	〈연구 자료〉	히브리 여자들의 상속권 .....	349
제 36 장	〈연구 자료〉	십일조에 대하여 .....	350

# 민수기 서론

1. **Q** '민수기'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 A** (1) 히브리어 성경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본서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2) 이 제목은 본문의 첫행에서 따온 것으로 책의 내용을 시사(示唆)하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지녔다.  
(3) 결국 이와 같은 제목은 본서가 제 1차 인구 조사가 실시된 시내 산에서부터 가나안 변경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에 적합하다.  
(4) 개역 성경의 명칭인 '민수기'는 '수자들'이란 뜻을 가진 70인역(LXX)의 제목을 의역한 것인데 그것은 내용 가운데 2차례에 걸친 인구 조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2. **Q** 본서(本書)의 저자는 누구인가?

- A** (1) 오경(五經)을 기록한 모세이다.  
(2) 본서에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또는 '모세가 그들이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는 말이 80회 이상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저작설을 뒷받침해 주는 말들이다.

3. **Q**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A** (1) B.C. 1440-1400년경이다.

4. **Q**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A** (1)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해야 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불평과 불신을 일삼을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3)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방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어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5. **Q** 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A** (1)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 조사 기록(1, 2차)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2)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기록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중단되었으나(출 19장) 본서에서 다시 시작된다.  
(3) 즉 시내 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광야의 여러 곳을 통과해 마침내 요단 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  
(4) 한편 본서는 40년 동안의 긴 방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5) 신약은 본서의 여러 사건을 예로 들어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참조, 요 3:14; 고전 10:5-11; 벧후 2:15, 16; 계 2:14).

6. **Q** 본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 A** (1) 시내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바란 광야로 행군했다. 그러나 정탐군의 어리석은 보고를 듣고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2) 이방인으로부터 쓴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8년간을 더 방황하였다.

- (3) 그 후에 이스라엘은 모압 평원에 이르러 아르는 강 이북,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정복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 (4) 새로 태어난 세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켰다.
- (5)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명되고 가나안 땅에서의 할 일(도피성, 레위인 성읍, 땅 분할)이 언급되어 있다.

7. **㉠** 본서의 역사적 상황을 말하라.

- ㉠** (1)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도착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본서는 애굽을 탈출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과 성막에 관한 지시(레위기에 기록됨)를 받기 위해 시내 산에 모인 사건부터 시작된다.
- (3) 계속해서 본서는 출애굽 사건 한 달 후(출애굽 제 2년)의 역사적 사건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다(참조, 1:1; 출 40:2).
- (4) 특이할 만한 사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의 형성이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예표한다.

8. **㉠** 본서에 나타난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

- ㉠** (1) 인구 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 즉 국가로서의 체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 (2)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정치는 제정 일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여수문의 왕이었다(참조, 신 33:5; 삼상 12:12).
- (3) 그런데 국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훌륭한 질서 체제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광야 여행 중 민사법과 종교법을 제정하게 된다.
- (4) 또한 지파의 영토 분할을 통하여 행정 구역을 분명히 하였다.

9. **㉠** 본서와 신약의 연관된 부분을 지적하라.

- ㉠** (1) 구원의 조건(21:9; 요 3:14).
- (2) 광야에서의 멸망(14:29-35; 16:41-50; 20:1-13; 고전 10:5-11).
- (3) 발람의 사건과 그 교훈(22-24장; 벧후 2:15, 16; 계 2:14).
- (4) 고라의 범죄(16장; 27:3; 유 1:11).

10. **㉠** 제 1차 인구 조사와 제 2차 인구 조사 결과를 비교하라.

**㉠**

지 파 명	제 1 차	제 2 차	가 족 수	증 감
르 우 벤	46,500	43,730	4	- 2,770
시 므 온	59,300	22,200	5	- 37,100
유 다	74,600	76,500	5	+ 1,900
잇 사 갈	54,400	64,300	4	+ 9,900
스 불 론	57,400	60,500	3	+ 3,100
에브라임	40,500	32,500	4	- 8,000
므 낫 세	32,200	52,700	8	+ 20,500
베 나 민	35,400	45,600	7	+ 10,200
단	62,700	64,400	1	+ 1,700
아 셸	41,500	53,400	5	+ 11,900
갓	45,650	40,500	7	- 5,150
납 달 리	53,400	45,400	3	- 8,000
합 계	603,550	601,730	56	- 1,820

11. ㉠ 본서에 나타난 광야 여행의 특징을 말하라.

- ㉠ (1) 물과 음식이 없는 죽음의 땅을 행진하는 고난의 여행이었다.
- (2)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친히 그들을 인도하는 여행이었다(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 (3) 이 여행은 흔히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광야를 가로질러 진군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 (4) 특별히 본서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다(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시고 만나를 공급하심).
- (5) 한편 이 여행은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행진하는, 즉 목적이 뚜렷한 여행이었다.
- (6) 신약 성경에는 성도의 세상 생활이 나그네 또는 광야 생활로 묘사되어 있다(히11:13).

12. ㉠ 본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라.

- ㉠ (1) 1:1-10:10까지는 시내 산에서의 출발 준비를 담고 있다.
- (2) 10:11-21:35에서는 시내 산에서 요단 강 근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의 여행 경로가 기록되어 있다.
- (3) 22:1-36:13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곳에서 주어진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13.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비 / 1:1-10:10
  - ① 인구 조사 및 레위인들의 임명 / 1:1-4:49
  - ② 이스라엘 민족의 성결 / 5:1-6:27
  - ③ 시내 산에서의 마지막 사건들(성막 헌납 및 유월절) / 7:1-9:14
  - ④ 광야에서의 진행 신호와 암호 지정 / 9:15-10:10
- (2) 불평과 반역 그리고 행진 / 10:11-21:35
  - ① 백성의 불평과 가나안 정탐 / 10:11-14:45
  - ② 여호와와의 지시 / 15:1-19:22
  - ③ 약속의 땅에 접근과 아모리 왕들을 정복함 / 20:1-21:35
- (3)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 / 22:1-36:13
  - ① 발람의 예언과 바알브을을 섬김 / 22:1-25:18
  - ② 인구 조사와 각종 민사법 및 종교법 / 26:1-30:16
  - ③ 미디안 정복과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정착 / 31:1-32:42
  - ④ 여행의 회상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시 / 33:1-56
  - ⑤ 가나안 땅의 분할 / 34:1-36:13

14.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地境)이라’ (34:2).

# 제 1 장 제 1 차 인구 조사

단락구분 1-3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효를 조사하다 / 4-16 인구 조사를 관장할 사람들의 명단 / 17-43 각 지파마다 피악된 사람들의 수효 / 44-46 인구의 총 합계 / 47-53 레위 지파는 제외되다 / 54 맺는 말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 이 년 이 월 일 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 할지니

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 하되

4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 회와 함께 하라

5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6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7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8 잇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벨이요

9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10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에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11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12 단에게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13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14 갓에게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15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16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17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 이 월 일 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0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1 르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22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3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구천 삼백 명이었더라

24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5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이었더라

26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7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칠만 사천 육백 명이었더라

28 잇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9 잇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사천 삼백 명이었더라

30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1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칠천 삼백 명이었더라

32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3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백 명이었더라

34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5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만 이천 이백 명이었더라

36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7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만 오천 삼백 명이었더라

38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9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이천 칠백 명이었더라

40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41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일천 오백 명이었더라

42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43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삼천 사백 명이었더라

44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십 이 인이 계수한 자라

45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46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육십만 삼천 오

백 오십 명이었더라

47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9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51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52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53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5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1)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출발하기 전, 즉 출애굽 제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의 수를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 하라고 명하셨다(참조, 출 6:14-27).

(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인구 조사를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제 1차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신정 국가(神政國家)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 2. ㉠ 본장 초두의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 말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1절)

㉠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다.

(2) 이 표현법은 민수기에서만 80회 이상 사용되었다.

(3) 이것은 말씀의 주체자가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4)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나온다고 해서 민수기 전체가 다른 책의 단순한 첨가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 1장 ㉠ 2를 참조하라.

## 3. ㉠ 제 1차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은 언제 내려졌는가? (1, 2절)

㉠ (1) 출애굽 제 2년 2월 1일이다.

(2) 이때를 이스라엘 건국 제 2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또한 이때는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 후였다(참조, 출 40:2, 17).

## 4. ㉠ 제 1차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은 어디서 내려졌는가? (1, 2절)

㉠ (1) 명령이 내려진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시내 광야의 회막' 이었다.

(2)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였다(참조, 출 40:34-38).

## 5. ㉠ 제 1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2, 3절)

㉠ (1)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와의 군대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 (2) 즉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행진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민족의 집단 이동이었으므로 신속한 기동력을 가진 효율적인 군대를 편성해야 했다.
- (3) 이러한 군대의 편성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는 기초 작업이기도 했다.
- (4) 한편 이 군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다(참조, 신 20:1, 4).
- (5) 신약 시대의 교회는 세상 권세와 더불어 싸우는 군사들로서 위의 군대와 유사성(類似性)이 있다(참조, 엡 6:10-17).

6. **㉠** 제 1차 인구 조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었는가? (2-54절)

- ㉠** (1) 본장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생각되는 제 1차 인구 조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 여행 중 두번째로 실시된 것이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제 1년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셨다(출 38:26).
- (3) 이때에 인구 조사가 실시된 이유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위해 속전을 지불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7. **㉠**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인가? (3절)

- ㉠** (1)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다(단 레위인은 제외되었다).
- (2) 그러므로 비록 군복무를 감당할 훌륭한 체격과 체력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20세 이하의 군인이 될 수 없었다.
- (3) 또한 신체적 허약자, 맹인 또는 불구자, 만성병 환자들은 누구든지 나이를 불문하고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군복무에서 제외되었다.
- (4) 그리고 가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도 역시 군복무에서 제외되었다(참조, 신 20:5-8).

8. **㉠** 인구 조사에 협력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4-16절)

- ㉠** (1) 각 지파의 두령(頭領) 한 사람씩이었다(단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다).
- (2) 그 이름들은 아래와 같다.

지 파	협 력 자	이름의 뜻
르 우 벤	엘 리 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시 드 은	슬루미엘	하나님께서 흥왕하시다
유 다	나 손	점을 치는 사람(卜術師)
잇 사 갈	느 다 벨	하나님이 주셨다
스 블 론	엘 리 압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에브라임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므 낫 세	가말리엘	하나님이 보상이시다
베 나 민	아 비 단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단	아하에셀	도움의 형제
아 셸	바 기 엘	하나님과 만남
갓	엘리아삽	하나님이 더하셨다
납 달 리	아 히 라	잘못의 형제

- (3) 위에 언급된 이름들 중에 나손, 아하에셀, 아히라 외에는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다.
- (4) 이와 같이 백성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이란 말과 연관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철저히 종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9. **㉠** ‘천만 인’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수자가 과연 천만 명이 된다는 말인가? (16절)

- ㉠** (1) 본절에서 ‘천만 인’이란 말은 수자적으로 1,000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1,000명

(thousands)을 의미한다.

(2) 그러므로 ‘천만 인’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자가 정확하게 천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많은 수의 사람을 가리킨다.

10. **㉠** 인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각 지파의 통계를 도표화하라 (20-43절).

**㉠**

지 파 명	인 원	인구 순위	지 파 명	인 원	인구 순위
르 우 벤	46,500	7	에 브 라 임	40,500	10
시 므 은	59,300	3	므 낫 세	32,200	12
갓	45,650	8	베 나 민	35,400	11
유 다	74,600	1	단	62,700	2
잇 사 갈	54,400	5	아 셸	41,500	9
스 불 론	57,400	4	납 달 리	53,400	6
			합 계	603,550	

11. **㉠**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1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 ㉠** (1)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참조, 창 12:2). 즉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5명의 가족이 4대 만에 수십만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자연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참조, 창 46:1-27; 행 7:14).
- (2) 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한 다른 약속도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 (3) 그리고 이스라엘인만을 계수하므로 참 이스라엘족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이방 무리들을 구별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작업이기도 했다(참조, 딤후 2:19).
- (4)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분명한 통치 체계를 확립하므로 광야를 보다 질서 정연하게 행진할 수 있었으며 정규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

12. **㉠** 제 1차 인구 조사는 며칠만에 끝났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신 당일에 조사가 끝났다(참조, 1, 18절). 즉 출애굽 제 2년 2월 1일이다.
- (2)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속히 실행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이 강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3) 또한 이미 인구 조사를 한 번 했던 까닭에(참조, 출 30:11, 12) 그 기록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쉽게 인구 조사를 끝낼 수 있었다고 본다.
- (4)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인구 조사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이다.
- (5) 그러나 인구가 분산되어 있었던 다윗 시대는 거의 열 달 동안 인구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참조, 삼하 24:1-9).

13. **㉠** 인구 조사 결과를 기록한 각각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43절)

- ㉠** (1) 같은 표현법을 여러 번 사용한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2) 그러므로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해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온전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각 지파의 수자가 백 단위로 끝나는데 단지 갓 지파만이 오십으로 끝났다(25절). 그러나 어떤 지파도 1단위나 10단위로 끝나지는 않았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 제 1차 인구 조사 결과 수요가 가장 많은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20-43절)

- ㉠** (1) 유다 지파의 수요가 제일 많았다(26, 27절). 유다 지파는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의 배 이상이었고 다른 지파보다 거의 1만 2천 명이나 더 많았다.
- (2) 이것은 야곱의 예언(창 49:8-11) 대로 이뤄진 것이다. 즉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 (3)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광야를 행진할 때 선두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따라서 어느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강한 지파가 되었다(참조 2:9).
- (4)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는데(히 7:14),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예비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다 지파를 영화롭게 하셨다.

15. **㉠**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별개의 지파로서 계수된 이유는 무엇인가? (32-35절)

- ㉠** (1) 야곱의 양자(養子)로서 그들의 삼촌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참조, 창 48:5).
- (2)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합치면 유다 지파와 거의 같은 수에 이르렀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결과로써 결국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창 49:22).

16. **㉠** 동생 지파인 에브라임이 형 지파인 므낫세 지파보다 수자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32-35절)

- ㉠** (1) 이 두 형제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엇바꿔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창 48:17-20).
- (2)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매우 컸음을 대변(代辯)해 주고 있다.

17. **㉠** 제 1차 인구 조사 결과 총합계는 몇 명이었는가? (44-46절)

- ㉠** (1) 군인으로 참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603,550명이었다.
- (2) 이 수자는 몇 달 전 레위인을 포함하여 계산한 수자(출 38:26)와 동일한 것이었다.
- (3)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수종하기 위해 구별된(47-53절) 반면에, 빠져 나간 레위 지파의 수차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지파에서 20세에 달한 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군대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므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관심을 표시하셨다.
- (5) 그런데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03,550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수는 약 2백만 내지 3백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본다.

18. **㉠** 제 1차 인구 조사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47-53절)

- ㉠** (1) 레위 지파는 성막 곧 증거막(출 38:21)의 봉사를 위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 (2) 성막을 중심한 일체의 행동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었다.
- (3) 만일 성막에 침범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벌이 가해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참조, 3:5-10).
- (4)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는 성막에 대한 신성 보존의 책임이 주어졌다.
- (5) 이리하여 군인으로 종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확실히 구별되었다.

19. **㉠** 성경에서 기(旗)는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52절)

- ㉠** (1) 일반적으로 기는 뜻대나 상징을 나타내는데, 군대(1:52) 나 국가(겔 27:7), 종교(시 74:

4), 혹은 어떤 단체(2:2-34)가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건이나 모이는 장소(렘 51:27)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 (2) 이 기는 이집트나 바벨로니아 그리고 앗시리아와 페르시아 등에서 일찌기 사용되었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를 출애굽 이후 광야 여행 중에 처음 사용하였다. 본장에 는 이 기에 대한 내용이 최초로 언급되었다(52절).

20. **㉠**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의 종류를 말하라(52절).

- ㉠** (1)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기를 말하고 있다. 그 첫째가 <데겔>로서 백성들의 단체나 집합을 나타낼 때와 전쟁의 깃발을 의미한다(참조, 2:34; 시 20:5).  
 (2) 두번째 <네스>라는 말은 사람들을 소집하는 장소 또는 사람들의 희망을 집중시키는 한 곳을 의미한다(참조, 사 13:2; 18:3).  
 (3)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닛시' (여호와와는 나의 기)라고 했다(출 17:15).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기이며 사람을 모으는 중심점이다(참조, 사 49:22).  
 (4) 세번째 말은 <오트>인데 이것은 <데겔>이나 <네스>보다 더 자주 사용된 말이며 그 의미는 단순히 표시나 깃대를 의미한다(참조, 시 74:4).

21. **㉠**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라(54절).

- ㉠** (1)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사무엘은 이러한 의미에서 순종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다(삼상 15:22).  
 (2) 순종이란, 신앙에 근거한 인격적인 결단과 신뢰 그리고 헌신의 표현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강조하셨다(참조, 마 7:24; 막 4:20; 눅 8:21).  
 (3) 신약 성경에 있어서 순종은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참조, 롬 15:17, 18; 16:19; 벧전 1:2).  
 (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으로(빌 2:8),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순종으로(롬 5:19) 설명하고 있다.  
 (5)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요 4:34).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6)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유래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54절).

## 제 2 장 각 지파의 배진 (配陣)

단락구분 1-3 각 지파들로 하여금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다 / 3-9 동편에 위치한 지파 / 10-16 남편에 위치한 지파 / 17 모든 진의 중앙에 위치한 회막 / 18-24 서편에 위치한 지파 / 25-31 북편에 위치한 지파 / 32-34 결론

-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 3 동방 해 뜨는 편에 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 4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칠만 사천 육백 명이며
- 5 그 곁에 진 칠 자는 잇사갈 지파라 잇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벨이요
- 6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사천 사백 명이며
- 7 또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암이요
- 8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칠천 사백 명이니
- 9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십 팔만 육천 사백 명이라 그들은 제 일 대로 진행할지니라
- 10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 11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육천 오백 명이며
- 12 그 곁에 진 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 샷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 13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구천 삼백 명이며
- 14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삼이요
- 15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이니
- 16 르우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십 오만 일천 사백 오십 명이라 그들은 제 이대로 진행할지니라
- 17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기를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 18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 19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오백 명이며
- 20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브다술의 아들 가팔리엘이요
- 21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삼만 이천 이백 명이며
- 22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 23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삼만 오천 사백 명이니
- 24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십만 팔천 일백 명이라 그들은 제 삼 대로 진행할지니라
- 25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샷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 26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육만 이천 칠백 명이며
- 27 그 곁에 진 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 28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일천 오백 명이며
- 29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 30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삼천 사백 명이니
- 31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십 오만 칠천 육백 명이라 그들은 기를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 32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육십 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이었으며
- 33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 3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기를 따라 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1. **㉠** 본장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에 따라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처야 했다.
- (2) 이러한 회막 중심의 배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 (3) 또한 이것은 앞으로 시온을 중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참조, 시 2:6; 9:11).

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들이 속한 지파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신의 근원을 알도록 하기 위한 지시였다.
- (2) 그리고 각 지파에게 맡겨진 사명이 달랐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구분하셨다.
- (3)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의 사랑과 애착 그리고 대화와 친근이, 자신들이 속한 친척 사이에서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 (4) 이와 같은 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강력한 부권(父權)을 인정하셨던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했다.
- (5)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신의 아버지 또는 족장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셨다.

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을 성막이 중심되게 설치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여기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진은 백성의 생활 중심 무대였다.
- (2)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진의 배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활의 외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종교적 집단이 되었다.
- (4)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뜻하는 것이므로 성막 중심의 배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4. **㉠**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진이 배치된 것은 신약 시대에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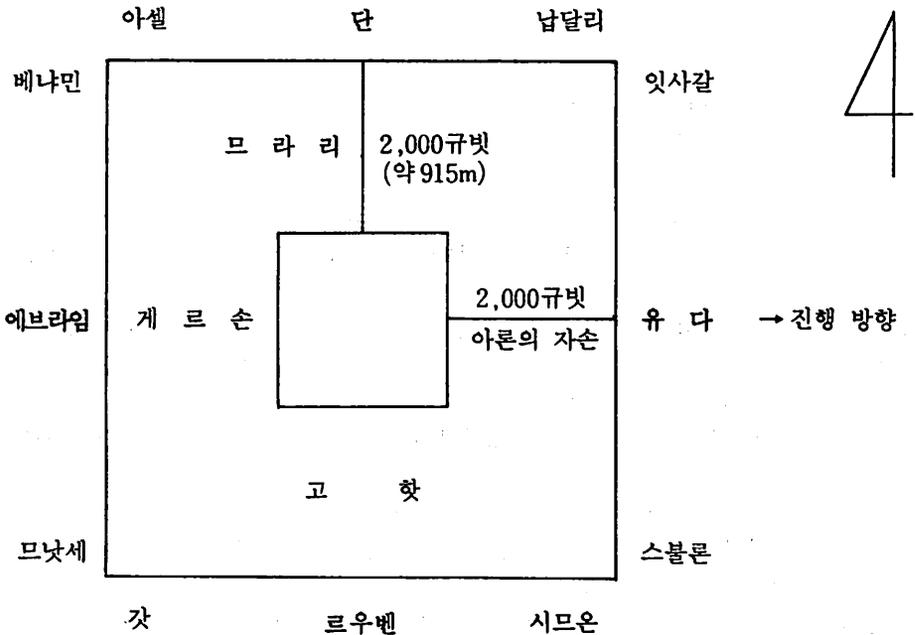
- ㉠** (1)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치하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참조, 시 46:5).
- (2)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6:19).
- (3)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지며, 또한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역시 성도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성도들과 동행하시기 위함이었다(참조, 마 2:23).

5.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을 회막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설치했는가? (2절)

- ㉠** (1) 이스라엘의 진은 회막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 (2) 수 3:4에 보면 진의 제일 가까운 곳과 회막의 거리는 2,000규빗(약 915m)으로 백성의 회막 접근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세 지파씩 한 단위로 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3-31절)

- Ⓐ (1)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의 위치를 지시하셔서 서로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 (2) 더우기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은 공동체 의식이 절대 필요한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결여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은 물론 민족의 존속도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다.
- (3) 이스라엘 각 지파를 세 지파씩 한 단위로 묶으신 것은 각 지파간의 조화를 위해서이다.
- (4)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군대 편성을 통하여 대적들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7. Ⓢ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중심하여 진쳤던 형태대로 배치도를 그려라(3-31절).  
Ⓐ



8. Ⓢ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는 4개 부대로 편성되었는데 각 부대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라 (3-31절).
- Ⓐ (1) 부대 편성은 각 지파들 중 서로 가까운 친척들끼리 같은 깃발 밑에 모이게 했다.
- (2) 즉 동편에는 레아의 세 아들인 유다와 잇사갈, 스불론 지파를 두었다(참조, 창 29:35;30:18, 20).
- (3) 다음으로 남편에는 레아와 그의 몸종 실바의 자손들인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를 두었다(참조, 창 29:32, 33;30:11).
- (4) 그리고 서편은 모두 라헬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두었다(참조, 창 30:24;35:18;48:8-14).
- (5) 마지막으로 북편에는 라헬의 몸종 빌하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자손들인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들이었다(참조, 창 30:6, 8, 13).
- (6) 이와 같은 조치는 인간의 갈등을 이해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 보아야 한다.
9. Ⓢ 이스라엘 4개 부대에는 두령의 역할을 하는 한 지파씩을 두었다. 그 지파의 이름들

### 은 무엇인가? (3-31절)

- Ⓐ (1) 부대 편성에 있어서 세 지파를 한 단위로 하고 그 중 제일 중요한 지파를 먼저 언급하였다.
- (2) 그리고 그 세 지파의 인원 전체를 대표 지파의 이름 아래 두었다.
- (3) 그 대표 지파의 이름은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이다.

### 10. Ⓒ 진(陣) 배치에서 볼 수 있는 질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2-3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위해 질서 있는 진 배치를 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같은 모습이다.
- (2)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다.
- (3)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4:33, 40).
- (5) 성도들의 삶 속에 질서가 파괴되면 불화가 생기고 죄악이 싹트게 된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11. Ⓒ 이스라엘 진 배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도(構圖)가 보여 주는 영적 교훈을 말하라 (2-31절).

- Ⓐ (1) 이스라엘의 진 배치는 회막을 중심으로 가까운 이웃 지파끼리 모여 있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 준다.
- (2) 특히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은 요즈음처럼 공동체(community)가 파괴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이다.
- (3)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광야 행진은 언제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과의 단결을 통하여 생존해 가야 했다.
- (4) 오늘날 성도들의 삶 역시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간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 12. Ⓒ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행군 대열 중 제일 선두의 위치에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3-9절)

- Ⓐ (1)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임종(臨終)에 처한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꾸짖음을 당했다(창 49:1-7).
- (2) 그래서 야곱의 네번째 아들인 유다는 출생 순서로 보면 첫째가 아니었으나 축복을 받은 순서로는 첫번째였다(참조, 창 49:8-12).
- (3) 즉 유다는 형제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형제에 의해서 찬양을 받게 되었다(히브리어로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다).
-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앞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본다.

### 13. Ⓒ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3-9절)

- Ⓐ (1)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약 640년 후에 유다의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써 성취되었다(참조, 삼하 2:4-7; 5:1-3).
- (2) 또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유다의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참조, 히 7:14).

- (3)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使者)이며 그 지파의 최고 두령으로 지명 받은 자의 후손이었다.
- (4) 유다 지파의 두령 나손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마1:4).
- (5) 따라서 광야 행군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하셨다는 뜻이다.

14. **㉠** 위의 4개 부대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시 제일 선두에 나선 부대는 어느 지파인가? (9절)

- ㉠** (1) 유다의 진 기 아래 속한 186,400명의 부대는 출발할 때에 제 1대로 진행했다.
- (2)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 형제들의 머리로서 그 길을 인도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참조, 창49:10).

15. **㉠**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시 두번째로 나선 부대는 어느 지파인가? (16절)

- ㉠** (1) 르우벤의 진 기에 속한 151,450명의 부대는 제 2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 (2)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른편은 '축복' 혹은 '능력'을 상징하므로 행진시에 오른편이 되는 남쪽은 장자 르우벤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1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가?(17절)

- ㉠** (1)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접근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회막 보호 명령을 내렸다(1:51).
- (2)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진만은 회막과 밀접하게 설치되었다(1:50).
- (3) 만약 레위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회막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1:51).
- (4) 그러나 신약 시대 성도들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참조, 히4:16).

17. **㉠** 기(旗)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2, 17절)

- ㉠** (1)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죄악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군대로 비유될 수 있다(참조, 딤후2:3).
- (2)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소집된 군사로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절대적인 힘이 요청된다.
- (3)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참조, 빌4:13). 또한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믿음의 주인으로서 뜻대(기)가 되시는 분이다(참조, 히12:2).
- (4)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중심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뜻대(기)가 될 수 없다. 즉 어떤 교회나 신학적인 체계 또는 의식(儀式)이 뜻대가 되지 못한다.

18. **㉠**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시 세번째로 진행된 부대는 어느 지파인가? (24절)

- ㉠** (1) 에브라임 지파의 진 기 아래 속한 108,100명의 군대는 제 3대로 진행했다.
- (2) 이 부대는 성막 정면을 선두로 하여 왼편이 되었다.

19. **㉠**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시 마지막으로 진행된 부대는 어느 지파인가? (31절)

- ㉠** (1) 단 지파의 진 기 아래 속한 157,600명의 군대는 맨 마지막으로 진을 거두어 후대(後隊)로 진행하게 되었다.
- (2) 이 부대는 휴식할 때(진칠 때) 비록 성막 왼쪽에 자리 잡았으나 행군할 때는 뒤쪽으로 가도록 명령받았다.
- (3) 왜냐하면 단, 지파의 수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므로 강한 힘을 소유한 단 지파가 후방에 자리잡고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4) 그리고 단 지파는 야곱의 예언처럼 용감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참조, 창 49:16, 17).

20.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32-34절)

- ㉠ (1)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34절). 이 일에 불평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이러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 (2) 순종의 삶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움이었다. 발람은 이러한 순종의 광경을 보고 '야곱이여 네 장막이...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24:5)라고 노래했다.
- (3)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는 최대의 아름다움이며 성도 각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

### 연구자료

구약 시대의 인구 조사에 대하여,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필요할 때마다 실시되어 왔다. 성경의 네번째 책인 본서는 지금의 그러한 명칭을 70인역(LXX)으로부터 따왔는데 70인역은 그 명칭을 본서의 첫 부분과 끝 부분(1:2, 46; 26:2-51)에 언급되어 있는 '군대를 계수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라는 사실에서 유추(類推)해 내었다. 한편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큰 수자에는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즉 본서에 기록된 '천'(千)이라는 수자는 말 그대로 천 명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종족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만 할 사항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기간 동안 넓은 광야에서 널리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그들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백성들의 수효를 계수(計數)하는 것 뿐 아니라 군사들의 동원 훈련을 위한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한편 후에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의 목적도 군사력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삼하24장; 대상21장) 그러한 그의 행동은 인간적인 자만심과 위태로운 교만심의 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책과 징계를 받았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두 기사의 합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하나의 난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삼하 24장에 언급된 목록에는 아마 베냐민 사람과 레위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② 삼하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상의 기록에는 외국인들(예를 들면, 헷 사람 우리아와 같은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③ 삼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상에서는 정규군 또는 정선된 3만 명(11:25)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어쨌든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인구 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이 우선적이었으며 그 외에 노동력을 파악하거나 단순한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수반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 제 3 장 레위인의 임무와 지위

단락구분 1-4 아론의 아들들 / 5-10 레위인들의 임무 / 11-13 레위인들의 중요성 / 14-37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 / 38-39 모세와 제사장들의 위치와 임무 / 40-43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들 계수 / 44-51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이다

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낡은 자가 이러하니라

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8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9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1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4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16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17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18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립니와 시므이요

19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20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21 게르손에게서는 립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22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효 곧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 합계가 칠천 오백 명이며

23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24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25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말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26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27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웃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28 계수함을 입은 일 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효가 팔천 육백 명인데 성소를 말할 것이며

29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30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31 그들의 말을 것은 증거케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32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말할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33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므라리 가족들이라

34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 총계가 육천 이백 명이며

35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36 트라리 자손의 말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37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38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39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 명을 좇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가 이만 이천 명이었더라

4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41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족을 내게 돌리라

4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43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이만 이천 이백 칠십 삼 명이었더라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5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족 대신에 레위인의 가족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 칠십 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47 매명에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49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일천 삼백 육십 오 세겔이라

51 이 속전을 여호와와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느니라

### 1. ㉠ 본장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앞장의 12지파 계수와 각 지파의 성막을 중심한 배진(配陣), 그리고 진행시의 대형(隊形)에 이어서 레위 지파의 소집이 기록되었다.
- (2) 레위 지파는 여호와와 군대를 구성하는 12지파의 소집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회막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따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었다.
- (3) 특히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를 백성의 인도자로 부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의 관리자로 임명하셨다.
- (4)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영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를 주도(主導)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 2. ㉠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겠다고 하면서 모세의 자손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모세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그가 레위 지파의 지도자임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다.
- (2) 또한 본장에서는 모세의 아들들 이름까지 제시하는 것이 본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녀에 대한 기록을 생략한 것 같다.
- (3) 즉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모세의 아들들은 일반 레위인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참조, 대상 23:14).

### 3. ㉠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4절)

- ㉠ (1)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와 불에 타서 죽었다(참조, 레 10:1, 2).
- (2)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당신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인간적인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정해 두신 법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4) 또한 이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조롱받으실 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다(참조, 갈 6:7).

- (5) 특히 여호와 앞에서(Coram Deo) 죽은 이 두 명의 제사장에게는 후대에 이름을 남길 자식이 없게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벌의 엄중함을 나타내셨다.
- (6) 그러나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제사장직의 본을 보였다.

4. **㉠** 아론의 아들 중 엘르아살에 대하여 약속하라(4절).

- ㉠** (1) 아론의 세째 아들인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참조, 출 6:23).
- (2) 그의 두 형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와의 진노로 죽었다.
- (3) 그래서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에 뒤이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동생인 아다말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다(레 10:1-7).
- (4)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 호르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론의 옷을 대신 입고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때 아론은 123세를 일기(一期)로 죽었다(20:22-29).
- (5) 계속해서 엘르아살은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27:22, 23).
- (6)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 한 후 죽었으며 그 후 엘르아살도 역시 죽어서 에브라임 산에 장사되었다(수 24:29-33).

5. **㉠**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차이점을 말하라(5-10절).

- ㉠** (1)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 (2)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항상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참조, 신 17:9; 19:17).
- (3)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일하는 대신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보다는 월등하게 하위 계급이었으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는 아니었다.
- (4) 또한 제물을 죽이는 일은 레위인이 했으며 제사장은 나중에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일을 담당했다(참조, 레 1:3-9; 4:3-35).

6. **㉠** 레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6절).

- ㉠** (1) 야곱의 세째 아들이며 레아의 소생이다(창 29:34).
- (2) 그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능욕을 당했을 때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인을 살육했다(창 34:1-31).
- (3)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갈 때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의 세 아들을 데리고 갔으며 애굽에서 137세까지 살았다(창 46:11; 출 6:16).
- (4) 한편 레위는 부친 야곱이 죽을 때 축복보다는 책망을 받았다(창 49:5-7).
- (5) 그러나 책망받은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게 된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7. **㉠** 회막 봉사자로 택함을 입은 레위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6-10절)

- ㉠** (1)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대단한 열심을 보였다. 즉 광야 행진 당시 금송아지 사건 때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열심을 보였다(출 32:28, 29).
- (2) 또한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 역시 레위인으로서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특별한 것이었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헌신되어

야 할 것을 보여 준다.

(4)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롬 12:1). 즉 억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벧전 5:2).

(5)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열심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는 기쁨을 마련했다.

8. **㉠**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는 어떻게 다른가? (7절)

**㉠** (1)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며, 온 회중은 일반 백성이었다.

(2) 그런 까닭에 아론의 직무는 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으며 온 회중의 직무는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러한 두 부류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3) 이러한 그들의 직무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과도 흡사하다.

(4)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직책의 차이일 뿐이지 계급의 차이는 아니다.

9. **㉠** 회막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10절)

**㉠** (1) 이방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한 일은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움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롬 10:15).

10. **㉠**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12절)

**㉠** (1)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2) 즉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자시며 동시에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참조, 겔 18:4).

(3)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개개인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되었다(롬 14:8).

11. **㉠** 하나님께서 레위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닌데도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胎)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1)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2) 이 처음 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는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출 13:1-16).

(3) 즉 죽어야 했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사건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큰 기쁨의 사건이다.

(4) 여기서 처음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히브리인들이 처음 난 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음을 가리킨다(참조, 출 13:2).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처음 난 자를 대표하게 했으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었다.

(6) 이러한 제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더욱 빛나게 되었다(엡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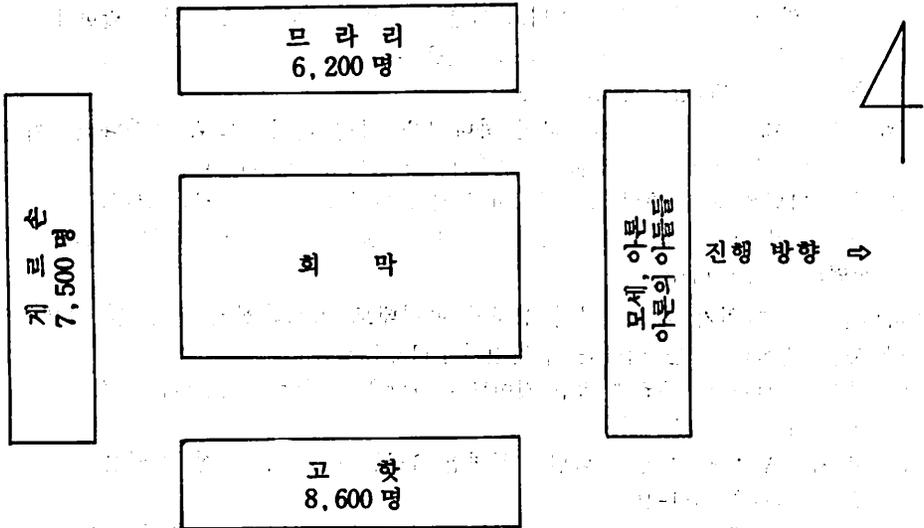
12. **㉠** 본장에서 레위 지파의 3대 가문과 인구 그리고 각각의 회막 봉사에서 맡은 업무를 도표화하라? (14-39절)

**㉠**

가 문	계 르 손	고 학	므 라 리
인 구	7,500명	8,600명	6,200명
족 장	엘 리 아 삼	엘 리 사 반	수 리 엘
성막 봉사	모든 휘장, 천막, 줄 등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	성막의 기등과 받침들

13. **㉠** 위의 세 가문은 회막 주위에 거주했는데 각각의 위치를 말하라(14-39절).

- Ⓐ (1) 게르손 자손들은 두 가족으로(립니와 시므이) 나뉘었고 그들의 족장 엘리아삽(뜻 :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의 지도 아래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치게 되었다.
- (2) 고핫 자손은 네 가족(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으로 나뉘었고 그들의 족장 엘리사반(뜻 : 하나님께서 방어하셨다) 지도 아래에서 성막 남편에 진을 치도록 되었다.
- (3) 고핫 자손의 일부는 제사장 일을 담당했으므로 레위 가문의 어른으로 언급되어 있다. 즉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세 레위 가문의 어른이 되었고 그는 성소 말은 자의 감독 곧 그들의 통팔자, 장관으로 불리웠다.
- (4) 므라리 자손은 두 가족(말리와 무시)으로 나뉘었고 그들의 족장 수리엘(뜻 : 하나님은 나의 반석) 지도 아래에서 성막 북편에 진을 치도록 되었다.
- (5) 마지막으로 회막 앞 곧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각각 진을 쳤다.
- (6) 위의 배치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4. Ⓒ 레위 지파의 성막 주위 배치가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4-39절)
- Ⓐ (1) 레위 지파는 성막 주위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막 보호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참조, 시 34:7).
- (2)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15. Ⓒ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만 계수하게 하셨는가? (15절)
- Ⓐ (1)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인격마저도 성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 (3)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지도 모른다.
16. Ⓒ 레위 지파로서 1개월 이상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38-43절)
- Ⓐ (1) 계수함을 입은 레위인의 수효는 22,000명이었다. 그런데 이 수자는 레위인의 세 가문들 중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들의 합계(22,300명)와는 차이가 있었다(비교, 39, 43절).
- (2) 혹자는 8,600이란 수자를 8,300이라고 수정했는데, 이는 민수기의 사본가(寫本家)가 본래 3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쉐라쉬>를 6을 의미하는 <쉐쉬>로 잘못 복사했기 때문이라 한다.

(3)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22, 273명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22, 000명이라는 총계는 오류(誤謬)가 없다(46절).

17. **㉠**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46절)

**㉠** (1)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의 수자가 22, 273명으로 집계되었다.

(2) 이 수는 전(全) 이스라엘 민족의 20세 이상되는 남자들의 총수(603, 550명)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적은 수이다.

(3) 아마도 이와 같은 사실은 출애굽한 후에 태어난 아이들만을 계산했기 때문인 듯하다(참조, 출 13:1, 2).

(4)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란 결혼하지 않은 장남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참조, 출 12:29, 30).

18. **㉠**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레위인보다 273명이나 더 많았다. 이 남은 자 273명의 대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46-51절)

**㉠** (1) 이 남은 273명의 대속을 위해서 각 1인당 성소 세겔로 5세겔씩을 바쳤다.

(2) 이렇게 바쳐진 헌물(獻物)은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했다.

19. **㉠** 성소 세겔이란 무엇인가? (47절)

**㉠** (1) 성경은 세겔의 단위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즉 성소의 세겔(출 30:13)과 왕실 세겔(삼하 14:26)로 구분하였다.

(2) 그 중에 이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표준 무게 단위에 의한 세겔이다.

(3) 그러나 성소 세겔의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연구자료

본서의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험난한 시련을 헤치고 전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서의 주제이다. 본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서는 일반 백성(1:1) 및 미리암과 아론이(12:1) 모세에게 나타낸 불신과 불평,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백성들(14:2), 모세 자신의 실패(20:12), 우상 숭배(25:3)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역과 방황 중에도 그들을 도우셨으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다. 한편 신약 성경은 본서의 여러 사건을 들어 죄의 심각성을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14:29-35; 16:41-50; 20:1-13과 21:9; 고전 10:5-11과 요 3:14; 22-24과 벨후 2:15, 61; 계 2:14; 16장; 27:3과 유 11).

# 제 4 장 레위 지파의 가문별 직무

단락구분 1-16 고탕 가문의 임무 / 17-20 고탕 가문을 위한 보호 규정 / 21-28 게르손 가문의 임무 / 29-33 므라리 가문의 임무 / 34-49 실무를 담당할 레위인의 총계수

- 1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레위 자손 중에서 고탕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 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 4 고탕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 5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걸어 증거궤를 덮고
- 6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 7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순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향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 8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 9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뿔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를 그릇을 덮고
- 10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 11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 12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써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 13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 14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읍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 15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나 고탕 자손이 와서 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탕 자손이 땀 것이며
- 16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말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향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중에 있는 모든 것과

-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 17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 18 너희는 고탕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 19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땀 것을 지휘할지니라
- 20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 21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2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 23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 24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땀 것은 이러하니
- 25 곧 그들은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메이며
- 26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 27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땀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땀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 28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 29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 30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 31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땀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 32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땀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 33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나

34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탕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5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찰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36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천 칠백 오십이니

37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탕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38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9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찰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40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천 육백 삼십 명이니

41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

수한 자니라

42 므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43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찰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44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천 이백 명이니

45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47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와 메는 일에 입찰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48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팔천 오백 팔십 명이라

49 그들이 그 할 일과 델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의 세 가문들 중에서 30-50세 사이의 연령(年齡)으로 회막의 임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2)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봉사(회막 봉사)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2. **㉠** 본장에서 레위의 세 가문 중 제일 먼저 언급된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 (2절)

**㉠** (1) 레위의 차자(次子)인 고탕 가문이다(3:17).

(2)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장자가 아닌 차자 고탕 가문을 택하셔서 성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지성물)을 운반하도록 하셨다.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그 임무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기인한 것뿐이다.

(4)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사역을 맡기실 것이라는 예수의 달란트 비유(마 25:14-30)와 비슷하다.

3. **㉠** 회막 봉사와 회막 메는 일에 종사할 레위인의 연령을 30-50세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중요성과 엄숙함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참여할 수는 없었다.

(2)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는 데 있어서 실수하거나 경망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으로 제한했을 것이다.

(3) 그러나 25세가 되면 회막 일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견습생으로 들어가 일할 수 있었다(참조, 8:24).

(4) 또한 너무 늙어 기력이 없는 까닭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50세까지로 정한 것이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 직책인지 알게 한다.

4. **㉠** '역사(役事)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라는 말에서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3절)  
**㉡** (1) '역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바>인데 '병역' 또는 '군대'를 의미한다(참조, 1:3).  
 (2) 그러므로 본절에서 '역사'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선한 전쟁이다(참조, 딤편 1:18).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일군들을 선한 군사라 부를 수 있다(참조, 딤후 2:3).
5. **㉠** 회막 안 지성물(至聖物)은 어떤 것인가? (4절)  
**㉡** (1) 지성물이란 언약궤와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이것들에 부속된 모든 것을 가리킨다(참조, 출 30:26-29).  
 (2) 이 지성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다.  
 (3) 제사장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이 지성물(至聖物)을 만질 경우 하나님의 징벌로써 죽음을 당하였다.  
 (4) 그러므로 회막 이동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이 회막에 들어가 지성물을 정리했다(5절).
6. **㉠** 성소의 거룩한 기물(器物)들을 두 겹 이상 덮어 운반한 이유는 무엇인가? (5-14절)  
**㉡** (1) 성소의 기물들을 자연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이다.  
 (2) 또한 단장과 장식을 위함이었다.  
 (3) 그리고 무엇보다 성소의 기물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4) 왜냐하면 구약의 계시는 가리워진 계시이며 신약의 계시(예수 그리스도)는 밝히 드러난 계시였기 때문이다(참조, 히 10:1).  
 (5)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덮개만 볼 뿐 거룩한 기물 자체는 볼 수 없었다.
7. **㉠** 간 막는 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1)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는 휘장을 가리킨다(참조, 출 26:31).  
 (2) 이 휘장의 히브리 원어 <파로케트>는 '분리시키다'의 뜻을 갖는다.  
 (3) 특히 이 휘장에는 그룹(천사)들이 수놓아졌는데(출 26:31, 33)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상징했다.  
 (4) 먼 훗날 이것은 '성소의 휘장'이라 일컬어졌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마 27:51; 눅 23:45).
8. **㉠** 간 막는 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5절)  
**㉡** (1)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2)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었다(참조, 히 9:7).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이 휘장은 들로 갈라졌다(참조, 막 15:38).  
 (4)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참조, 히 10:19-22).
9. **㉠** 증거궤 맨 위에 덮었던 청색 보자기의 색깔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절)  
**㉡** (1) 청색은 일설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2) 그러나 그 색깔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보다는 증거궤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3)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형식과 내용을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뜻을 발견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0. **㉠**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홍색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8절)  
**㉡** (1) 홍색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나타낸다(참조, 창 3:20; 출 12:1-13; 레 14:1-32; 롬 4:3-8; 히 9:18-22).

(2) 즉 피에 의한 구원을 뜻한다.

(3) 그러므로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마 27:28; 요 19:2).

11. **㉠**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설명하라 (6, 8, 11, 12, 14절).

**㉠** (1) 해달의 가죽에 대해 RSV에서는 염소 가죽(goat skin)으로 번역되었다.

(2) 그러나 해달의 히브리어 <테하쉬>은 홍해에 서식하는 바다 소(海牛)를 가리킨다(참조, 출 25:5).

(3) 여기서 성막의 기구들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것은 광야의 열사(熱沙)와 폭풍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12. **㉠** 자색 보자기를 단 위에 덮은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3절)

**㉠** (1)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과 존귀의 임재를 상징한다(참조, 요 19:2, 3).

(2)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자색 옷을 입혔다.

(3) 그러므로 자색은 홍색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색깔이다(참조, 마 27:28).

13. **㉠** 회막 이동시 고탓 자손의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15절)

**㉠** (1) 제사장들(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기구를 덮은 후에, 고탓 자손은 그 모든 것을 떼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2) 즉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몸으로만 회막의 기구들을 운반했다.

(3) 이것은 회막 안에 비치되어 있는 지성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중과 경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14. **㉠** 고탓 자손 아닌 자가 법궤를 뿔 수 있는가? (15절)

**㉠** (1) 고탓 자손 아닌 자는 법궤를 뿔 수 없었다.

(2) 다윗 시대에 고탓 자손이 아닌 옷사가 법궤를 붙들다가 죽사하였다(삼하 6:6, 7; 대상 15:13).

(3)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다.

15. **㉠** 고탓 자손은 성물(聖物)을 만질 수 있었는가? (15, 18-20절)

**㉠** (1) 고탓 자손은 성물을 만질 수 없었다.

(2) 오직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제사장들만이 취급하도록 하셨다(18:3).

(3)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4)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참조, 히 4:16; 요일 1:1).

16. **㉠**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임무는 무엇인가? (16절)

**㉠** (1) 고탓 자손들을 감독하는 자로 임명되었다.

(2) 즉 일반 레위인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맡아 성물들을 만질 수 있었고 성물들에 모든 일들을 감독하였다.

(3)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기름에 대한 책임을 졌다.

17. **㉠** 제사장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성소를 들여다 보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20절)

**㉠** (1)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참조, 삼상 6:19).

(2)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으므로 성소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출 10:28).

(4)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인 제사와 예배에서 죄 많은 인간들이 신중

하고 경의하는 마음과 태도로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18. **㉠** 게르손은 누구인가? (22절)

- ㉠** (1)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요 립니와 시므이의 부친이다(출 6:16, 17).
- (2) 그의 자손들은 성막 몸체와 들의 포장과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였다(3:25, 26).

19. **㉠** 게르손 가족이 성막의 기구들을 '메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24절).

- ㉠** (1) 게르손 가족이 성막 기구들을 멘 모습은 어깨 위에 메는 행위(carrying on the shoulder)를 의미하지 않는다.
- (2) 그것은 단순히 옮기는 행위(carrying 또는 bearing)를 의미한다. 그들은 소 4 마리와 수레 들을 이용하여 성물을 옮겼다(7:1-7).
- (3) 성막을 운반할 때는 지성물을 취급하는 고삐 자손만이 어깨 위에 메고서 옮겼다(참조, 7:6-9).

20. **㉠** 게르손 자손의 일을 감독한 사람은 누구인가? (28절)

- ㉠** (1) 아론의 네째 아들인 이다말이었다(출 6:23).
- (2) 그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에 소요(所要)되는 비용을 총괄적으로 계산한 적이 있었다(출 38:21).
- (3) 따라서 그는 성소의 외부 구조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다말을 사용하셔서 게르손 자손 뿐 아니라 므라리 자손들의 직무(33절)도 감독하게 하셨다.

21. **㉠** 므라리는 누구인가? (29절)

- ㉠** (1) 므라리는 레위의 세째 아들이었다(창 46:11; 출 6:16).
- (2) 그의 후손들은 후에 무시 종족과 마흘리 종족으로 나뉘어졌다(3:20, 33; 출 6:19).
- (3)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스블론과 갓, 르우벤 지파의 영토에서 12성읍을 얻어 거주하였다(참조, 수 21:7).

22. **㉠** 성막에 대한 므라리 자손의 임무는 무엇인가? (29-32절)

- ㉠** (1)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물품들 중에 건축 구조물들을 맡아 운반하게 되었다.
- (2) 즉 그들은 성막을 세우는 데 근간이 되는 부품들을 맡았다.
- (3) 므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처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하였다(7:6-8).
- (4) 므라리 자손의 임무는 성소 안의 기물을 다루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보이나 이처럼 주의 깊게 취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보존해야 했다.

23. **㉠**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의 세 가문이 질서있게 봉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5-33절)

- ㉠** (1) 레위의 세 가문들은 성막 봉사에 있어서 질서와 순종을 바탕으로 불평없이 충성하였다.
- (2)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이다.
- (3) 그리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귀한 일과 천한 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4) 즉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간이 다만 천하게 또는 귀하게 여길 뿐이다.
-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봉사는 광야 교회(행 7:38)에서의 여호와를 섬기는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24. **㉠** 성막 봉사를 담당할 레위 세 가문의 총계를 도표화하라 (34-49절).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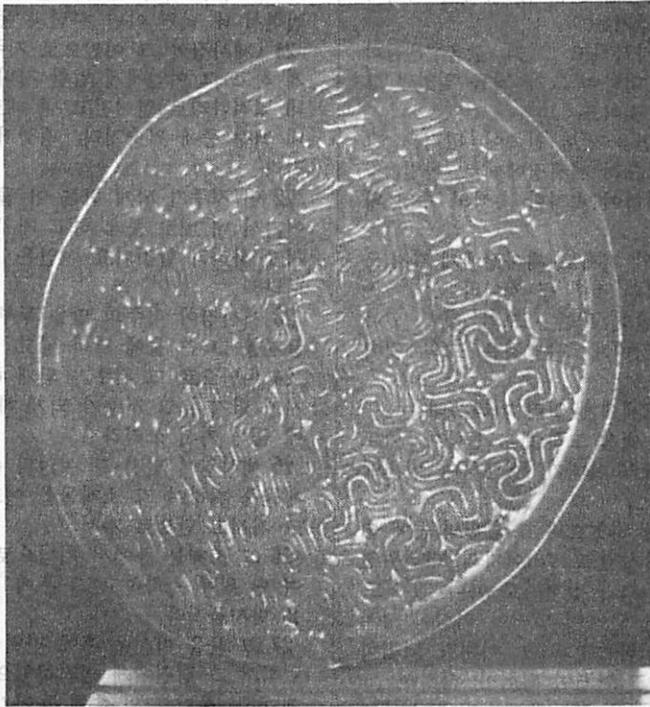
가 문 명	성막 봉사 인원	가문별 전체 인원
고 하	2,750	8,300
게 르 손	2,630	7,500
므 라 리	3,200	6,200
합 계	8,580	22,000

(2) 성막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몇몇 사람에게 불과했다(참조, 빌 2:20, 21).

(3)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에 봉사, 헌신하는 사람의 수가 비교적 적은 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

### 화보자료

금반(金盤). 아래 사진은 B. C. 2천년대 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접시이다.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족장들은 회막 봉사에 필요한 각종 금은 기구(器皿) 및 수레를 바쳤다(7:13, 14절). 그런데 그와 같은 기구들이 오늘날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 제 5 장 진(陣)의 정결과 의심의 법

단락구분 1-4 부정한 자의 격리 / 5-10 배상에 대한 율법 적용 / 11-31 의심받는 아내의 판결법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 3 무론 남녀하고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 4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 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6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서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 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 8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들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들릴 것이니라
- 9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 10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 13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 14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 15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십분지 일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생각하게 하는 소제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 16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 17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 18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 19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 20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 21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 지라
- 22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 23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름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 24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 가서 쓰리라
- 25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 26 그 소제물 중에서 기름으로 한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 27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 28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 29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

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30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

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1. **㉠ 본장의 내용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6장과 더불어 이제 새로 정비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할 것을 보여 준다.  
(2)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추방하였고 이웃에 대한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였다. 그리고 영적이고 육적인 범죄인 간음을 엄히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 자신의 판결에 맡기도록 하였다.  
(3) 이와 같은 규례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으로 진 안에 결코 부정한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2. **㉠ 문둥병 환자가 부정한 이유를 설명하라(2절).**

- ㉠** (1) 문둥병은 나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만성 전염병인데 그 부패성과 불결함 때문에 인간의 심각한 죄악을 비유하고 있다(참조, 시 38:3-11; 사 1:6). 그러므로 이 병에 전염된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다(레 13:3).  
(2)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이스라엘 진에서 격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거룩 뿐 아니라 육체적 정결도 유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 즉 하나님께서 병들고 연약한 자를 내팽개쳐라라는 뜻으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과 아울러 육적 건강도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

3. **㉠ 유출병 환자가 부정한 이유를 설명하라(2절).**

- ㉠** (1) 유출병은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으로서 혈루증과 냉병 등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2) 피는 생명으로 간주되었다(신 12:23). 그러므로 유출병은 생명의 파괴, 즉 죽음을 의미한다.  
(3) 그렇기에 유출병 환자 즉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병의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다(참조, 레 15:2).

4. **㉠ 성경에서는 주검(시체)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는가? (2절)**

- ㉠** (1) 주검은 죄를 상징한다.  
(2)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이 지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참조, 창 3:19).  
(3)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검에 접촉하는 자는 죄에 물든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참조, 19:11; 레 11:8).

5. **㉠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추방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 3절)**

- ㉠** (1)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참조, 레 20:26).  
(2)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진 안에 부정한 자가 있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6. **㉠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어 보내는 일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 3절)**

- ㉠** (1)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개개인의 삶에 죄악된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을 보여 준다(참조, 고전 3:16, 17).  
(2)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 중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권면과 동시에 적절한 처리(治理)를 행사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참조, 고전 5:12, 13).  
(3)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참조, 계 21:27).

7. **㉠ '사람들이 범하는 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말하는가? (6절)**

- Ⓐ** (1) 여기에서 죄란 사람들이 이웃에게 미친 상처와 피해를 말한다(참조, 7절).  
 (2) 이처럼 이웃에게 아픔을 안겨 준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과 동일하다.  
 (3) 왜냐하면 이웃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에 배치(背馳)되는 일이기 때문이다(참조, 출 9:27).
- 8. Ⓒ 이웃에 대해 손해를 끼친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7, 8절)**  
**Ⓐ** (1) 죄를 자복(自服) 하는 것이다.  
 (2) 또한 이웃의 손해를 보상하되 5분의 1을 덧붙여서 피해자에게 주어야 했다.  
 (3)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보상이다.  
 (4) 이처럼 범죄자가 그 죄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했다. 이것은 회개를 우습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 9. Ⓒ 자복이란 무엇인가? (7절)**  
**Ⓐ** (1) 자복이란 지은 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다(참조, 막 1:5).  
 (2)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범죄한 자의 전인격에서 나온 진실한 회개이다.  
 (3) 하나님께서는 자복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다(참조, 잠 28:13).
- 10. Ⓒ 배상을 받을 본주인이나 그 친족이 없을 경우 범죄자는 어떻게 하였는가? (8절)**  
**Ⓐ** (1) 배상을 할 수 있는 친족마저 없을 경우 보상금과 함께 수양을 제사장에게 치루어야 했다(참조, 레 5:16).  
 (2) 이렇게 제사장이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자신의 것이 되었다(10절).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정하셔서 범죄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 11. Ⓒ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가? (9절)**  
**Ⓐ** (1) 거제란 하나님께 제물을 높이 쳐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한다.  
 (2) 여기서 쳐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3) 이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바쳤다가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참조, 출 29:27, 28; 레 7:14).
- 12. Ⓒ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1) 구별했다는 것은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는 행위이다.  
 (2) 한편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진 구별된 자들이다.  
 (3)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참조, 롬 12:1).
- 13. Ⓒ 남편에게 의심받는 아내를 판결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가? (11-31절)**  
**Ⓐ** (1) 먼저 남편이 의심받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갔다(15절).  
 (2) 그리고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다(15절).  
 (3)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순결 여부를 알기 위해 정해진 예식을 치루었다(16-31절).  
 (4)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여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 14. Ⓒ 의처증(疑妻症)의 두 가지 경우를 논하라(11-14절).**  
**Ⓐ** (1) 하나는 남편에게 당연한 의심을 받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12-14절; 신 22:13-21).  
 (2) 또 다른 하나는 아내가 공연히 남편에게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14절).  
 (3)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인간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밝혀야 한다(16절).  
 (4)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의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모든 행실을

부정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오늘날 이러한 의심 때문에 조용하던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부 사이는 의심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먼저 앞서야 한다.

15. **㉠** 간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12, 13절)

**㉠** (1) 간음은 하나님의 명령(출 20:14)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죄이다.

(2) 이스라엘에는 간음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다(참조, 레 18:20, 20; 신 22:22-24).

(3) 예수께서는 행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한 간음도 죄로 단정하셨다(참조, 마 5:28).

16. **㉠** '의심의 소제'란 무엇을 뜻하는가? (15절)

**㉠** (1) 의심을 해결해 주는 소제라는 뜻이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신성한 결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아 주는 제사이다.

(3) 이 소제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여자의 행실의 열매를 상징하는 예물이었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의심의 근거를 해결해 주는 데 있었다.

17. **㉠** 의심의 소제에 있어서 값싼 보리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1) 일반적으로 소제는 고운가루(레 2:1)로 드렸는데 여기서는 값과 질이 떨어지는 값싼 보리 가루로 드린다.

(2) 이것은 의심의 소제가 부정을 의심하는 자나 의심받는 자가 모두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이다.

(3) 사실 인간이 한 번 의심에 휩싸이면 마음과 육체가 동시에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18. **㉠**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란 무슨 말인가? (15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의심받는 여자에게 올바른 판정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소제란 뜻이다.

(2) 이 말은 의심의 소제와 그 뜻이 상통한다.

(3)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참조, 딤후 4:1).

19. **㉠** 부정한 아내로 의심받을 경우 그 판결이 하나님께로 맡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16-31절)

**㉠** (1) 인간의 능력으로는 의심받는 아내의 순결과 타락의 사실을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근본이시며(레 20:26) 전지 전능하신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3) 특히 쓴 물을 마셨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4) 오늘날 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인의 순결 유무를 판정하시지는 않지만 성경에 의하여 그 판단을 받는다.

(5) 즉 성경에 명시된 성적 타락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참조, 고후 5:10).

20. **㉠** 제사장이 의심받는 여인에게 범죄 여부를 알게 하는 해결책으로 시행한 예식을 약술하라 (16-28절).

**㉠** (1)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토기에 담은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의 티끌을 넣는다(16, 17절).

(2) 그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제물을 그 손에 들도록 한다(18절).

(3) 제사장의 저주 선언에 여인으로 하여금 '아멘'으로 맹세하게 한다(19-22절).

(4) 다음으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고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다(23-26절).

(5) 그 물을 마신 여자는 부정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27, 28절).

(6) 이런 복잡한 절차는 결국 그 여인의 행실을 철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그 사건의 판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행위의 유일한 척도가 되신다.

21. **㉠ 성막 바닥의 티끌을 물에 집어 넣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7절)**

**㉠** (1)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 안에서는 죄지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2) 그러므로 티끌을 넣은 거룩한 물은 인간의 양심을 찌르고 폭로하기에 충분하다.

(3) 또한 인간이 티끌을 먹는 행위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상징적 행동이다(참조, 창 3:14).

22. **㉠ 여자가 머리를 푸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8절)**

**㉠** (1) 머리를 푸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2) 또한 그 여인의 편에서는 부끄러움과 슬픔의 표시이다(참조, 삼하 15:30).

(3) 이와 같은 행위는 문둥병 환자에게도 적용되었다. 즉 문둥병이 완쾌될 때까지 머리를 풀게 했다(레 13:45).

23. **㉠ 쓴 물이 주는 해독(害毒)이란 어떤 것인가? (18-22절)**

**㉠** (1) 의심받던 여자가 사실상 범죄하였으면 이 쓴 물은 독이 된다(20, 21절).

(2) 즉 범죄한 자가 쓴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뱃속에 쓰고 배가 붓고 악질에 의해서 넓적다리가 떨어지게 된다.

(3) 이러한 저주의 결국은 범죄한 여인이 여자로서의 기능(임신, 출산 등)을 할 수 없게 만든다(28절).

(4) 그러나 그 여자가 결백하면 쓴 물을 마신 후에도 아무 탈이 없다.

(5)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쓴 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담당하고 있다(참조, 히 4:12, 13).

24. **㉠ 제사장이 저주의 선언을 한 후 의심받는 여인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하는가? (22절)**

**㉠** (1) 그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대답해야 한다.

(2) 이 말은 '참되다' 또는 '진실하다'라는 뜻으로 제사장의 저주 선언을 어김없이 받아들일겠다는 맹세이다.

(3) 이 말은 인간 앞에서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맹세이다.

(4) 복음서에서도 '아멘'이 엄숙한 확인으로 사용되었다(마 11:9, 26).

25. **㉠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23, 24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에다가 범죄한 여인의 몸에 끼칠 해독의 능력을 전달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이다(참조, 히 4:12, 13).

(2) 그러므로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 자체로서는 선악을 분별할 힘이 전혀 없다.

26. **㉠ 의심받는 여인이 쓴 물을 마시기 직전에 제사장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25, 26절)**

**㉠** (1)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다.

(2) 그리고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후에 여인에게 쓴 물을 먹였다.

(3) 이와 같은 행동은 그 여인의 행실의 결과를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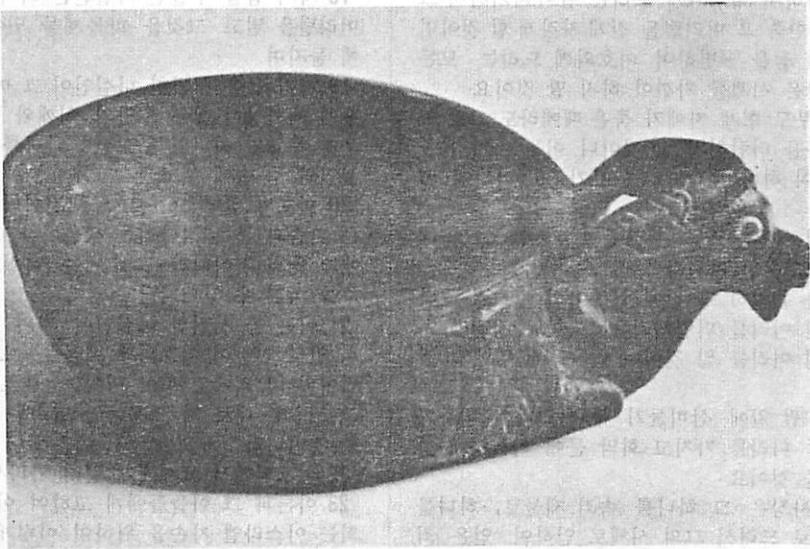
27. **㉠ 의심받던 여인이 정결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가? (28절)**

**㉠** (1) 그녀가 무죄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해를 받지 않았다.

- (2) 또한 잉태하여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복으로 받게 되었다.
- (3) 그리고 의심했던 남편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은 100세겔)을 아내의 아버지(장인)에게 주었다(참조, 신 22:19).
- (4) 마지막으로 그 남편은 의심했던 아내를 평생 동안 데리고 살아야 했다(참조, 신 22:19).
- (5) 그러나 이러한 복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일생을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한 의심과 질투로 가정의 평화를 깨지 말고 이해와 관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 화보자료

거룩한 물을 담은 그릇. 아래의 사진은 B.C.1000년경의 그릇으로서 수사(Susa)에서 발굴된 것이다.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은 자기 아내의 정결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생길 때에는 제사장에게로 아내를 데리고 가 거룩한 물, 즉 '저주의 쓴 물' 판결을 받게 하였다(16-31절). 이것은 일면 주술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이다.

## 제 6 장 나실인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8 나실인의 의무 / 9-12 시체를 만진 나실인의 정결법 / 13-21 나실인으로서 정한 기간이 끝날 때의 의식 / 22-27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법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씌나 꺾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8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9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털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털을 밀 것이니 곧 제 칠 일에 밀 것이며

10 제 팔 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짐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털을 성결케 할 것이며

12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 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13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4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15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16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17 화목 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18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19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삼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20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든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니라

21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1. **㉠** 본장에 언급된 나실인 제도의 의의를 말하라.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으며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민족이었다(참조, 뵤전 2:9).
- (2) 특히 그중에서도 남녀 구별 없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였다.
- (3) 이러한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聖潔)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2. **㉠** 나실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2절)

- ㉠** (1) 나실인(Nazarite)의 히브리어는 <나지르>인데 이 말은 '구별하다', '헌신하다'는 뜻을 지닌 <나자르>에서 유래되었다. 즉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separated one)를 말한다.
- (2) 이 나실인은 성별(性別)에 관계없이 특정 기간이나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서원한 평신도였다(참조, 레 27:2).
- (3) 그 예로 삼손(삿 13:5), 사무엘(삼상 1:20), 세례 요한(눅 1:15) 등을 들 수 있다.
- (4)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는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하는 평생 나실인들이다(참조, 롬 12:1).

3. **㉠**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의무는 무엇인가? (2-7절)

- ㉠** (1)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과 독주를 마실 수 없었다(3, 4절).
- (2) 또한 그의 머리를 깎을 수 없었다(5절).
- (3)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다(6, 7절).
- (4) 이와 같은 엄격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다는 공적인 증거 역할을 하였다.
- (5) 이처럼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친 우리들도(롬 12:1)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자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4. **㉠** 나실인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었다(참조, 레 10:8-11; 잠 31:5; 사 28:7).
- (2)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나 독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딤후 4:4).
- (3)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육체적인 향락과 감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먹는 음식물이 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 (4)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거침들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거절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빌 3:7, 8).
- (5)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자라면 적어도 자신의 조그마한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꺾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몸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고전 3:16, 17).

5. **㉠**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고 깎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사람이 그의 머리털을 기른 것은 그 사람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참조, 고전 11:3-10).
- (2) 그러므로 나실인이 머리를 기른 것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추구해 가겠다는 내적인 결단의 외적인 표시였다.
- (3) 이런 관점에서 삼손이 머리를 밀린 행위는 사실상 자기의 나실인 자격을 포기한 행동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삿 16:17-20).

6. **㉠**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나실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으므로 죄를 멀리하고 성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 (2)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2:17; 3:19; 약 1:15).
- (3) 또한 이러한 정결 행위는 위생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다(5:2, 3).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신다.
- (4) 결론적으로 나실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적인 성결을 유지해야만 했다(참조, 고후 6:17; 벧전 1:13-16).

7. **㉠**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경우 나실인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는가? (7절)

- ㉠** (1) 나실인은 자기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 시체에 접근할 수 없었다.
- (2) 이 엄한 규정은 대제사장의 경우(레 21:11)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완전한 성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 (3) 예수께서도 훗날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변민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다(마 8:21, 22).
- (4)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파괴하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실인(성도)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다.

8. **㉠** 나실인이 부지중에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 지켜야 할 규례는 무엇인가? (9-12절)

- ㉠** (1)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실인이 의지적(意志的)으로 범한 허물(3-8절)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제의 손길을 펼치셨다.
- (2) 즉 하나님의 관용의 법은 다음과 같다. 나실인이 시체에 가까이 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그 머리털을 밀어야 했다.
- (3) 그리고 제 8일, 즉 머리를 밀어 버린 다음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했다.
- (4) 마지막으로 새롭게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날에 1년 된 수양을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날에 나실인의 기간도 다시 정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자신이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웃이 범한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과 정의를 내세우지 말고 그 이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9. **㉠** 나실인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 머리를 지적하여 부정케 되었음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 이유는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었다(참조, 7절).
- (2) 따라서 그의 머리가 부정케 된 것은 그의 전인격이 부정케 된 것을 상징했다.

10. **㉠**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나실인이 머리를 깎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9절)

- ㉠** (1) 슬픔과 통회의 표시로서 머리를 깎았다(참조, 사 22:12; 렘 16:6; 겔 7:18; 암 8:10).
- (2) 이렇게 머리를 미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금지 규정이었다(참조, 레 19:27; 신 14:1).
- (3)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규례가 정해졌던 것으로 본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의적으로 범한 죄 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 실수로 범한 허물까지도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죄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

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이다.

(5) 한편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머리를 밀기 보다는 각자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율 2:13).

11. **㉠** 시체로 부정하게 된 나실인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10, 11절)

**㉠** (1) 부정하게 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성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이다(참조, 레14:30, 31; 15:14, 15).

(2) 여기서 속죄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의미에서 드려졌고(레 4:2-5:13), 번제는 또다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한다는 표로 드려졌다(레 1:3-17).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 사유의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12. **㉠** 나실인이 부정하게 됨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 오는가? (12절)

**㉠** (1)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날들이 무효가 되므로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기간을 정해야 했다.

(2)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을 성별되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1년 된 수양을 속건제로 드렸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의인이 그의 의를 떠나 버리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실은 헛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겔 33:13).

13. **㉠**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의 만기(晩期)가 되면 어디에서 그 사실을 밝혀야 하는가? (13절)

**㉠** (1) 회막 문에서이다.

(2)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헌신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14. **㉠** 나실인이 헌신하기로 서약했던 기간을 완전히 마쳤을 때 드리는 제사의 종류 및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3-21절)

**㉠** (1) 그들은 주로 네 가지 제사(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다(14, 15절).

(2)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당사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16-20절).

(3)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변자이시며 구속자이시다.

15. **㉠** 서약 기간이 끝난 나실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의 제물은 무엇이었는가? (14절)

**㉠** (1) 1년 된 흠 없는 수양 1마리였다.

(2) 이러한 번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다.

(3) 즉 이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서약 기간은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4) 이런 사실은 교회 내에서 직분 맡은 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관심해 버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16. **㉠** 서약 기간이 끝난 나실인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사용하였는가? (14절)

- A** (1)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사용하였다.  
 (2) 이것은 헌신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여 속죄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 17. Q** 나실인이자라면 적어도 죄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A** (1) 이것은 아무리 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義人)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롬 3:10).  
 (3)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의가 되도록 탄원할 수 밖에 없었다.
- 18. Q** 서약 기간이 끝난 나실인이 드린 화목 제물은 어떤 것이었는가? (14, 15절)
- A** (1) 흠 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無酵煎餅)이었다.  
 (2) 이와 같은 제물은 자신의 서원 기간을 마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로 드린 것이다.  
 (3) 그와 함께 서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생활을 지켜 주실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드렸던 제물이다.  
 (4)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였다(살전 5:16, 18).
- 19. Q** 나실인이 소제로 드렸던 제물은 무엇인가? (15절)
- A** (1)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었다.  
 (2) 이것은 화목 제물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과 함께 바쳐진 것이었다.  
 (3) 이 제물은 서원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었다.
- 20. Q**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마친 후 자신의 머리를 밀어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 속에 집어 넣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8절)
- A** (1) 이것은 나실인이 서원 기간 동안 지켜온 자신의 구별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2) 그리고 이후부터 보다 나은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절차를 밟았다(참조, 행 21:24).  
 (3) 이 의식이 끝나면 그는 나실인의 서원을 완전히 이행한 사람이 되며 그 서원에서 해방되었다.  
 (4)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으며 더우기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 했다.
- 21. Q**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예물을 드릴 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말의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A** (1)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신다(참조, 출 36:3).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했다.  
 (2)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5:22).  
 (3)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이다.
- 22. Q**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축복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22-26절)

- Ⓐ (1)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24절).  
 (2) 둘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25절).  
 (3) 셋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실 것(26절)이라는 내용이다.  
 (4) 이와 같은 기도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축복들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축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23. Ⓢ 제사장들이 선포한 축복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23-26절)

- Ⓐ (1)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임을 강조하였다.  
 (2) 그리고 축복의 내용 중에서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3) 또한 이 축복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보호, 은혜, 평강)이 내포되어 있다(참조, 고후 13:13).

24.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전달하게 하셨는가? (23절)

- Ⓐ (1)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었다.  
 (2)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담당했다.  
 (3)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었다.  
 (4)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참조, 눅 24:50, 51).

25. Ⓢ 이러한 축복이 가져 오는 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 (24-26절)

- Ⓐ (1)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된다(참조, 시 121:4).  
 (2) 또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의 용서를 얻는다(25절).  
 (3)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복락, 즉 평강을 허락받았다(참조, 시 4:7, 8).

26. Ⓢ '여호와와 얼굴'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25, 26절)

- Ⓐ (1) '여호와와 얼굴'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시 4:6; 13:1; 마 18:10).  
 (2) 이런 의미에서 많은 성도들은 여호와와 얼굴 뵈기를 소원했으며 당신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면 그것이 곧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3) 반면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공급하신다는 뜻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행복과 안정을 공급하신다(참조, 고후 4:6).

27. Ⓢ 제사장들이 선포했던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했는가? (27절)

- Ⓐ (1)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했다.  
 (2) 이것은 비록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제사장이지만 축복을 주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보여 준다.  
 (3)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이 축복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있다.

# 제 7 장 성막 봉헌을 위해 바친 예물

단락구분 1-9 족장들이 성막 봉헌시에 바친 예물과 그 분배 / 10-83 각 족장들이 교대로 바친 헌물(獻物) / 84-88 헌물의 총 집계 / 89 속죄소 위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1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2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득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3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 열 둘이니 족장 들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리니라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6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8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득케 하였으니

9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찌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였더라

10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 제 일 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3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4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15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16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17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18 제 이 일에는 잇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벨이 드렸으니

19 그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20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21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22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23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벨의 예물이었더라

24 제 삼일에는 스블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25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26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27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28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29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30 제 사 일에는 르우벤 자손의 족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31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32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33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34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35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36 제 오 일에는 시므온 자손의 족장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으니

37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38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39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40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41 화목 제물로 소 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42 제 육 일에는 갓 자손의 족장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으니

43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44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45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46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47 화목 제물로 소 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48 제 칠 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49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50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51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52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53 화목 제물로 소 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54 제 팔 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55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56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57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58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59 화목 제물로 소 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60 제 구 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61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62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63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64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65 화목 제물로 소 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66 제 십 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렸으니

67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68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69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70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71 화목 제물로 소 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더라

72 제 십 일 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으니

73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74 또 십 세겔중 금술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75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76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77 화목 제물로 소 들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78 제 십 이 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예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으니

79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80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81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82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83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예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더라  
 84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열 둘이요 은바리가 열 둘이요 금순가락이 열 둘이요  
 85 은반은 각각 일백 삼십 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칠십 세겔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

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이천 사백 세겔이요  
 86 또 향을 채운 금순가락이 열 둘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십 세겔중이라 그 순가락의 금이 도합이 일백 이십 세겔이요  
 87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 둘이요 수양이 열 둘이요 일 년 된 어린 수양이 열 둘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열 둘이며  
 88 화목 제물로 소수가 이십 사요 수양이 육십이요 수염소가 육십이요 일 년 된 어린 수양이 육십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케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제 2년 1월 1일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다(출 40:17). 그리고 그 성막 봉헌식 때에 각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2) 이스라엘이 행한 성전 봉헌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축제라고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축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도 계속되어야 할 행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중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계시기 때문이다(요 1:14).

2. **㉠** 본장에 기록된 사건은 시간상으로 언제쯤인가? (1절)

- ㉠** (1)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다.  
 (2) 즉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이다(참조, 출 40:2-33).  
 (3) 그러나 혹자는 이 사건이 성막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陣)이 모두 완성된 때인 출애굽 제 2년 2월 8일경으로 본다(Matthew Henry).

3. **㉠** 성막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1절)

- ㉠** (1) 성막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그것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거룩한 제사에 합당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다.  
 (2)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과 물건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이 따라야만 했다(참조, 출 40:34, 35).  
 (3) 이런 점에서 성막과 그 기구들에 기름을 바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으로 볼 수 있다. 흔히 기름은 성령 또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한다(렘 31:14).  
 (4) 이와 같이 성경에 제시된 규례와 제도와 형식은 그 자체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인정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예배와 헌신보다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통한 예배와 헌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4. **㉠** 성막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1절)

- ㉠** (1)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행하여야 함

을 보여 준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장 잘 알므로 성도들은 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영광 들릴 수가 있다(고전 2:11).
- (3)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던지지 않으시면 성경에 기록된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참조, 시 119:18).

5. **㉠ 성막 봉헌시 예물을 드린 자는 누구인가? (2절)**

- ㉠** (1)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 즉 인구 조사 때에 감독한 자들이었다(참조, 1:4-16).
- (2) 이들은 자신과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을 위해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 (3)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지위가 높은 자일수록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 (4) 사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특정한 지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데 있다(참조, 요 13:12-17).

6. **㉠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어떤 것들인가? (3절)**

- ㉠** (1) 덮개 있는 수레 6 대와 소 12마리였다.
- (2) 이것은 족장 두 사람의 힘으로 수레 하나씩 그리고 족장 개개인마다 소 한 마리씩 바친 격이다.
- (3)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평성(公平性)을 엿볼 수 있다.
- (4) 이 수레와 소들도 틀림없이 회막의 모든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품질이었을 것이다(참조, 출 35:21-29).
- (5)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같이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우리의 지극한 헌신과 감사를 대표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에는 그것의 외적인 면에만 강조한 나머지 진실되고 감사한 마음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7. **㉠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 열 둘은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3절)**

- ㉠** (1)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 (2) 어려운 광야 여행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막 기구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와 수레를 끄는 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를 맞춰 가는 것이 곧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 **㉠ 하나님께 드리진 예물들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5-8절)**

- ㉠** (1) 족장들이 바친 예물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다.
- (2) 레위 자손들은 그 예물들을 각기 직업에 따라 회막 봉사에 사용하였다.
- (3) 이것은 회막이 완공되자마자 회막의 이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엿볼 것이다.

9. **㉠ 이 예물은 레위 각 가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7-9절)**

- ㉠** (1) 게르손 가문에게 수레 둘과 소 네 마리가 주어졌고 므라리 가문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가 주어졌다.
- (2) 이렇게 분배된 이유는 므라리 자손이 운반할 짐이 게르손 가문보다 더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었다(참조, 4:21-33).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나누실 때 공정하셨다.
- (4) 한편 고향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전혀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막에서

맡은 일이 그 어캐로 메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0. **Q** ‘단(壇)의 봉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0절)

- A** (1) 제단을 바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말한다.  
 (2) 이스라엘 각 족장들은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단 앞에 드렸다.  
 (3) 그 예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즉 인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4)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봉헌 예물이 ‘단의 봉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친절과 봉사를 ‘단의 봉헌’과 동등한 입장에서 받으신다(잠 19:17).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선행 그리고 구제 활동은 모두 병행(並行)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장).

11. **Q** 봉헌 예물은 며칠 동안 드러졌는가? (11-83절)

- A** (1) 봉헌 예물은 12일 동안 드러졌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11절).  
 (3) 12일 동안이라면 하루 내지 이들의 안식일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예물을 드린 것 같다.  
 (4) 이것은 봉헌 예식이 거룩한 일이므로 성일(聖日)에도 합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때에는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을 영 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마 12:1-8).

12. **Q** 하나님께서 봉헌 예식을 여러 날 행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1-83절)

- A** (1)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식의 절차를 분명히 알도록 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 또한 하루 한 지파씩 예식을 행하게 하여 각 지파에게 평등한 영예(榮譽)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 하나님의 일은 혼잡한 가운데서 서둘러 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봉헌 예식을 12일 동안이나 걸려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 예식을 정중하고도 질서 있게 치루도록 하셨다.

13. **Q** 이스라엘 각 족장들이 봉헌 예물을 드렸던 사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1-83절)

- A** (1) 예물의 수량이 동일하게 12번 반복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예물을 바친 인격들의 마음을 열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2) 또한 헌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이 매번 기록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기억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게 하신 것이다.  
 (3) 바쳐진 예물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이것은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4. **Q** 봉헌 예식에 제일 먼저 참여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12절)

- A** (1) 야곱의 네째 아들의 후손인 유다 지파였다.  
 (2)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할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창 49:8-12).  
 (3)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연원(淵源)이 되었던 유다 지파를 따라서 진의 위치대로 예식 순서가 주어졌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참조, 고전 15:23).

(4) 이렇게 모든 기록이 세부 사항까지 12번 반복된 것은 참 헌신과 헌물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15. **㉠**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2-83절)

- ㉠**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제단 앞에) 나아가 평등한 혜택을 입는다는 사실이 암시되었다.  
 (2) 즉 각 지파의 진의 위치는 영예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만은 하나님께 차이가 없이 열납되었다.  
 (3)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개개인에게 동등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의모로 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약2:1).

16. **㉠** 각 족장들이 단의 봉헌 예식에 바쳤던 예물을 나열하라 (13, 14절).

- ㉠** (1) 먼저 소제물로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로 채운 130세겔(약 3.7kg) 무게의 은반(銀盤) 하나와 70세겔(약 2kg) 무게의 은바리(basin, 종지) 하나였다.  
 (2) 두번째로 향을 가득 채운 10세겔(약 280g) 무게의 금 숟가락 하나였다.  
 (3) 세번째로 번제물로 바칠 각각 1마리씩의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수양이었다.  
 (4) 네번째로 속죄 제물로 바칠 수염소 하나였다.  
 (5) 다섯째로 화목 제물용의 소 들, 수양 다섯,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었다.  
 (6)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온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질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예물은 성막 봉사에 사용될 것이다.

17. **㉠** 이스라엘 각 족장들이 가져 온 예물이란 무엇인가? (13, 14절)

- ㉠** (1) 율법에 제정된 제사 제물 이외에 성전에 바치는 헌물(獻物)이었다.  
 (2) 때로는 희생 제물도 예물에 포함되었다(참조, 레 1:2-17).  
 (3) 신약에서는 제단으로 가져 온 것을 다 예물이라 했으며(마 5:23; 23:18) 돈도 포함되었다(눅 21:1).  
 (4) 히브리서에도 제물과 예물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히 5:1; 8:3; 9:9).  
 (5) 그러므로 이 예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라고 할 수 있다.

18. **㉠** 이스라엘 각 족장들이 바친 번제물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15절)

- ㉠** (1) 각각 1마리씩의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수양이었다.  
 (2) 이 번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을 상징한다.  
 (3) 그러므로 번제물은 죽음 앞에 자신을 드러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참조, 히 10:5-7).  
 (4) 더우기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였다(롬 12:1, 2).

19. **㉠** 각 족장들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들은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쳤다.  
 (2) 이는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들을 인간들이 연약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용서받기 위해 드러진 제물이었다.  
 (3) 구약 시대의 속죄 제물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이다.  
 (4) 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심(고후 8:21)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암시한다(히 13:11-13).

20. **㉠** 각 족장들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소 두 겨리, 수양 다섯, 수염소 다섯,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였다.  
 (2) 이 제사는 자애로운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친교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화목제는 회생에 근거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표시하는 것이다.  
 (4)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암시한다(참조, 롬 5:1; 골 1:2).

21. **㉠** 봉헌 예물의 총 합계를 도표화하라(84-88절).

**㉠** (1)

예 물	번 제 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은반 : 12개 (1,560세겔)	수송아지 : 12마리	수염소 :	수소 : 24마리
은바리 : 12개 (840세겔)	수 양 : 12마리	12마리	수양 : 60마리
금술가락 : 12개 (120세겔)	1년 된 어린 수양 : 12 마리, 각종 소제물도 포함		수염소 :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 60마리

(2) 이와 같은 기록은 자원 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22. **㉠** 속죄소에 관해서 약술하라(89절).

- ㉠** (1) 증거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두 그룹(참조, 창 3:22-24)의 날개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2) 속죄위에 대제사장은 증거케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사하였다(참조, 레 16:14, 15).  
 (3) 히브리서에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다(히 4:16).  
 (4) 이와 같은 표현은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3. **㉠** 모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89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 온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 준다.  
 (2)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한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주신 것이다.  
 (3)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요 1:14).

본장의 요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1절).

## 제 8 장 레위인의 정결 예식

단락구분 1-4 성막 안 등불의 위치와 책임자 / 5-13 레위인의 정결 예식법 / 14-22 레위인이 선택된 근거와 목적 / 23-26 레위인의 정년(停年) 제도

1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취게 할지니라 하시매  
 3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취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4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7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8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9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10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12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 레위인을 속죄하고  
 13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14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5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18 이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19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가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레위인에게 행하였도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1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케 하고 그 옷을 빨때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22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좇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3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 오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25 오십 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성막 안 성소에 등불을 켤 일과, 성막 봉사를 위해 레위인들을 취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 (2)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특별히 취급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3:40-51) 그들에게만 당신의 거처를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만 했다.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개인의 의지적인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이다.
- (4) 이러한 레위인들의 성결 유지는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구원과 거룩함은 혈통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2. **㉠** 등대(燈臺)에 관해서 약술하라(2절).

- ㉠** (1) 불을 밝히는 등을 올려 놓기 위한 스탠드(stand)로서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사물 중의 하나이다(참조, 출25:31-40).
- (2) 이 등대의 양편에 각각 3개의 가지가 이어져 있고 가운데도 한 가지가 있어서 7가지로 되어 있다.
- (3) 위의 7가지 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계4:5).

3. **㉠** '일곱 등잔(燈臺)'은 영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2절)

- ㉠** (1) 성경에서 '7'이라는 수자는 완전 또는 성취를 의미한다(참조, 창2:2; 출20:10; 레14:7; 행6:3).
- (2) 그러므로 일곱 등잔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가리킨다(참조, 계4:5).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신앙의 일곱 등잔을 삶 속에 켜 두어야 한다.

4. **㉠**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불을 켜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성막에는 햇빛이 들 만한 문이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 없었으므로 등불을 켜게 하셨다.
- (2) 여기서 성막 안에 가득한 어두움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암시한다.
- (3)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 유일한 빛(등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빛을 의미한다(참조, 요1:4, 5).
- (4)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 (5)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단지 자신의 것으로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마5:14-16).

5. **㉠** 등대에 불을 밝혀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2, 3절)

- ㉠** (1)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있었다.
- (2) 아론은 불을 밝힐 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 그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다(참조, 출27:21).
- (3) 이렇게 아론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종 된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야 했다.
- (4) 마지막으로 아론이 등불을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 세상의 어두움을 향해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함을 암시한다.

6. **㉠**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어느 방향으로 비취게 하셨는가? (2, 3절)

- ㉠** (1) 등대 앞으로 비취도록 하셨다.
- (2) 즉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는 쪽이다.
- (3) 이 등불은 밤낮으로 장막 안을 비취게 했는데(참조, 레24:1-4) 이것은 끊임없는 성령

의 역사를 상징한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등불과 같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명하셨다(마 5:14-16).

(5) 이 빛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뿐이다.

7. **㉠ 성막 안 등대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4절)**

**㉠** (1) 등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다(출 25:31-40).

(2)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계시를 주실 때에는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신다.

(3) 등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 **㉠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예식 절차를 열거하라(6-18절).**

**㉠** (1) 제일 먼저 레위인들에게 물을 뿌리고 그들의 몸의 털을 밀게 했다(7절).

(2)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번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다(8, 12절).

(3) 다음으로 백성의 대표가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다(10절).

(4) 마지막으로 아론이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렸다(11-13절).

(5) 이러한 절차들을 통하여 레위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정결 의식(儀式)을 행하였다.

9. **㉠ '속죄의 물로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7절)**

**㉠** (1)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적 행동이다(참조, 히 9:10; 10:22).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성막 봉사의 임무를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1:47-54; 3:11-13)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내적, 외적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이다.

(3) 이러한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속죄를 예표한다. 즉 비록 우리들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만 구원 얻는 진리를 예표한다.

10. **㉠ 레위인의 정결 예식 중에서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짧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1) 온 몸을 삭도로 미는 것은 문둥병에서 치료된 자에게 행하는 예식인데, 레위인들에게 이를 요구하신 것은 자신의 부패함을 자각하고 더 이상 그런 죄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참조, 레 14:8).

(2) 이처럼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성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24:3, 4).

(3)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성결임을 강조했다(약 3:17).

11. **㉠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번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에 대하여 설명하라(8절).**

**㉠** (1)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을 위한 것이었다.

(2) 소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속죄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사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제사에 속죄제가 따랐다. 즉 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다.

(5)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참조, 히 9:22).

12. **㉠ 정결 예식 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1) 이스라엘 온 회중의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막 일에 수종들기 때문이었다.

(3) 그리고 레위인들을 산 제사와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회막 앞에 나오게 하였다.

(4) 이러한 사실로 보아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13. C 정결 예식 중 이스라엘 자손으로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A** (1) 이것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이 바치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유형이다(참조, 레 1:4).

(2)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온 민족에게 부과된 의무를 그들에게 전가(轉嫁)시켜서 일하도록 하였다.

(3) 이렇게 하여 공식적으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만아들을 대표하게 되었다(18절).

(4) 이러한 대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구체화되었다(롬 5:17-21).

**14. C 요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11절).**

**A** (1) 본래 요제는 희생 제물의 가슴 부분을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다(참조, 레 7:30-34).

(2) 이렇게 흔들는 행위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인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이다.

(3)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친히 이러한 요제의 제물이 되기를 요구하신다(참조, 롬 12:1).

**15. C 레위인을 요제로 바쳤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라(11절).**

**A** (1) 제사장이 레위인을 요제물로 여겨 그들을 흔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2) 그것은 단지 레위인을 대신한 제물을 잡아 그것으로 제사 절차를 수행했던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8,580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을(4:47, 48) 한 곳에 모아 놓고 그들을 들어 올려 흔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제사법이라 할 수 있다. 레위인은 자신이 요제물이 되는 대신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동물로 제물이 되게 했다(12절).

(4) 한편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참조, 5:9, 10)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16. C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위하여 먼저 그들을 위한 번제, 소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A** (1)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의 자연적인 인격으로는 할 수 없고 다만 속죄를 받고 성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성취된 상태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3)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롬 1:8).

**17. C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라(14-19절).**

**A** (1)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16, 17절).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셨다(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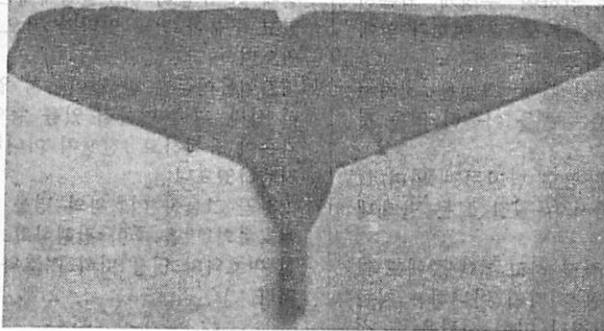
(3) 결국 레위인들의 이런 봉사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19절).

(4)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18. **㉠**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적인 실행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20-22절)
- ㉠**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귀한 것이 순종임을 보여 준다.  
 (2)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적인 반응과 더불어 외적인 실행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약 1:22-25).  
 (3) 사무엘도 이런 점에서 순종을 강조하였다(삼상 15:22).
19. **㉠** 레위인들은 언제부터 회막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는가? (24절)
- ㉠** (1) 25세부터 회막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3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다(4:3-49).  
 (3) 이러한 모순은 아마도 25세 이후 5년이라는 기간은 단지 견습생(見習生)으로서 일하고 30세에 비로소 공식적인 봉사자로서 자격이 주어진 것 같다.  
 (4) 예수께서도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셨다(참조, 눅 3:23).
20. **㉠** 회막 봉사를 맡은 레위인의 정년(停年)은 언제인가? (25, 26절)
- ㉠** (1) 50세가 레위인들의 정년이였다.  
 (2) 대신에 50세부터는 회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25-50세)의 고문격으로 일하게 되었다.  
 (3) 이렇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맏아들 대신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 역시 자신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

### 화보자료

면도칼. 고대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이발 기구가 없었으므로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다듬을 때에 면도칼을 사용했다. 아래의 사진은 시리아에서 발견된 B. C. 1000년경의 면도칼로서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장에 언급된 것처럼 레위인들이 삭도로 온몸을 미는 것은 그들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한다(7절).

# 제 9 장 사고자(事故者)들의 2차 유월절

단락구분 1-5 유월절 기념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 6-14 사고자들이 2차 유월절을 지키는 법 / 15-23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3 그 정기 곧 이달 십 사 일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5 그들이 정월 십 사 일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좃아 행하였더라

6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이니까

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 이월 십 사 일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

13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

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15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좃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좃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19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20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좃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좃아 진행하였으며

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좃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좃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 ㉠ 본장의 내용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간에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몸이 의식적(儀式的)으로 부정하거나 타국인과 여행으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를 구제하는 법을 제시하였다.
-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장면을 기록하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월절 기념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심을 제시하셨다.

2. **㉠ 유월절에 관해서 설명하라 (2절).**

- ㉠** (1)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참조, 출 12장).
- (2) 이 유월절 예물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려져야 하며(참조, 출 12:5; 렘전 1:9) 또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참조, 출 12:6; 요 12:24, 27), 그 피는 죄사함을 의미한다 (참조, 히 9:22).
- (3)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로 볼 수 있다(참조, 요 1:29; 고전 5:7).

3. **㉠ 유월절 정기(定期)는 언제인가? (2, 3절)**

- ㉠** (1)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 달인 니산 월(태양력의 3, 4월) 14일 저녁에 지켜졌다.
- (2)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전날, 즉 어린 양을 잡은 날이었다(참조, 출 12:2-6; 13:3, 4).
- (3)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것을 명하셨다(참조, 출 12:14, 24).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가나안 정복 후에 지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떨어진 날부터 지킬 것을 명하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엔 힘이 부족했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설령 죽음이 자신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태도이다(참조, 단 6장).

4. **㉠ 유월절과 신약과의 관계를 약술하라 (2, 3절).**

- ㉠** (1)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참조, 요 1:29; 19:36).
- (2) 또한 유월절은 성만찬의 기초가 되었다(참조, 마 26:17-30; 막 14:12-25; 눅 22:1-20).
- (3)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켰던 유월절과 같은 의식 제도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건들을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히 9:9, 10).

5. **㉠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만찬과의 관계를 논하라 (2, 3절).**

- ㉠** (1)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며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 (2) 바울은 유월절과 성만찬과의 유사성을 역설하였다(참조, 고전 5:7).
- (3) 그리고 유월절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념한다면 성만찬은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이 두 기념 예식은 죄의 세력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자는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는가? (6절)**

- ㉠** (1) 히브리인들이 시체를 부정하게 본 것은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자, 즉 죄에 오염이 된 자는 7일간 부정하였다(참조, 19:11).

- (3) 이렇게 부정한 자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여 희생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참조, 레 7:20).
- (4) 이러한 이유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진 밖에 격리되었다(19:16).
7. **㉠ 시체로 부정케 된 자가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6절)**
- ㉠** (1)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전혀 부당한 것을 보여 준다.  
 (2) 그러므로 회개와 신앙으로 다시 정결케 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질 수 없고 참된 위안도 받을 수 없다.
8. **㉠ 시체로 부정케 된 자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였는가? (7, 8절)**
- ㉠** (1)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했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표이다.  
 (3)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는 불평이라기 보다는 유월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의 소리였다.  
 (4) 하나님은 마음이 갈급하고 상한 자의 기도를 열납하신다(참조, 시 34:18).
9. **㉠ 시체로 부정케 된 자의 호소를 들은 모세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8절)**
- ㉠** (1) 모세는 먼저 호소하는 자에게 기다리도록 했다.  
 (2)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 방법을 간구했다.  
 (3)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시간의 급박성을 요(要)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0. **㉠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9-14절)**
- ㉠** (1) 부정케 된 자 뿐 아니라 여행 중에 있는 자와 타국인까지 유월절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참조, 대하 30:15).  
 (2) 그러나 타당한 이유없이 유월절에 불참(不參)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셨다.  
 (3)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간구된 문제보다 더 폭넓은 것이었다.  
 (4) 이것은 인간의 사정을 널리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진다.
11. **㉠ 유월절 예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인가? (11절)**
- ㉠** (1) 어린 양과 무교병(無酵餅) 그리고 쓴 나물이었다.  
 (2)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참조, 고전 5:7).  
 (3) 또한 무교병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참조, 고전 5:7, 8).  
 (4) 그리고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12. **㉠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그 뼈를 꺾지 않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 두지 말게 한 것은 어린 양의 고기가 타인과 짐승에게 돌아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그리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도록 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19:36).  
 (3) 이와 같이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13. **㉠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 ㉠** (1)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졌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2) 왜냐하면 유월절 예식의 거부는 곧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단순히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된다.

14. **㉠**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타국인(他國人)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14절)

- ㉠** (1) 이방인들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이방인들은 반드시 개종을 하여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의 법에 순응해야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참조, 출 12:48, 49).  
 (3) 이방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지켜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혈연적인 측면에서 폐쇄된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뭉쳐진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4) 이것은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규정이었다(참조, 요 10:16).

15. **㉠**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날은 언제인가? (15절)

- ㉠** (1) 출애굽 제 2년 1월(아빍 월) 1일이었다(참조, 출 40:1).  
 (2) 또한 성막이 세워지던 날 하나님의 승인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다(출 40:33, 34).  
 (3)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구름을 대신하여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밤낮 계셔서 그들을 지켜 주셨다(참조, 시 121:6, 7; 사 27:3).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기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서(요 1:14)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

16. **㉠** 성막 위의 구름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야 여행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뜨거운 햇볕을 가리워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므로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을 상징한다.  
 (2) 특별히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한 것은 성막 그 자체가 거룩성을 소유해서라기 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장소이며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만드신 장소라고 할 수 있다.  
 (4) 이런 관점에서 성막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 것이었다(참조, 엡 2:21, 22).

17. **㉠** 성막 위에 나타났던 불 모양 같은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15, 16절).

- ㉠** (1) 불 모양 같은 것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제시하신 신비한 빛이다.  
 (2)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의미하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간들의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불 모양 같은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참조, 요 1:9).

18. **㉠**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점으로 삼아 진행하거나 진을 쳤는가? (17-23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진행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2) 즉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했고 반면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진행했다.  
 (3) 이처럼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의

순종하였다(20-23절).

(4)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실이다. 사실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처럼 순종은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19. **Q**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18-23절)

- A** (1)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8절; 약 1:4).
- (2) 또한 구름이 옮겨 가면 그들의 숙영지(宿營地)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이동했듯이 성도들은 자신의 안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6:33).
- (3) 그리고 성도들은 육신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경각심(警覺心)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참조, 벧후 1:14).

20. **Q**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실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18-23절)

- A** (1) 하나님께서는 사신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시 73:24) 성도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도하실 것(시 48:14)을 보여 주셨다.
- (2)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참조, 롬 8:14).
- (3)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의 삶 전체를 알고 있어서 언제나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시 37:23-26).
- (4)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 간 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참조, 시 107:7).
- (5)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생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순례 길이다.

21. **Q** '여호와와의 직임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3절)

- A** (1)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이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는 말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다.

**본장의 요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졌으니’  
(17절).

## 제 10 장 시내에서 바란으로 이동

단락구분 1-10 은나팔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신호 규정 / 11-12 시내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 / 13-28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 순서 / 29-32 모세가 처남 호박에게 동행할 것을 권하다 / 33-36 법계의 이동과 정지를 위한 모세의 기도문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은나팔 들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 3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은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 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 5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 6 제 이 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 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 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 10 또 너희 회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11 제 이 년 이 월 이십 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 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 13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좃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 14 수두로 유다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 15 잇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벨이 영솔하였고
- 16 스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암이 영솔하였더라
- 17 이에 성막을 견으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떼고 발행하였으며
- 18 다음으로 르우벤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 19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 20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 21 고핫인은 성품을 떼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 22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 23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 24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 25 다음으로 단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던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 26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 27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예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 28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 29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 30 호박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 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 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 33 그들이 여호와와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와 언약계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고
- 34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

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

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 궤가 설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민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 **㉠ 본장의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년 동안이나 시내 광야에서 머무른 후에 비로소 바란 광야로 향하는 대이동을 위한 행군을 재개(再開)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제사장이 나팔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출발하였다.  
(3) 그리고 그들의 행군 대열 앞에는 항상 여호와와 언약궤가 위치하였다.  
(4) 본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열거하여 광야 여행의 주도권 (initiative) 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 나팔 들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백성들을 소집하며 진영(陣營)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2) 또한 전시(戰時)에는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9절).  
(3)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도록 하셨다(10절).  
(4) 결국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었다(9, 10절).

3. **㉠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며 당신의 절대적인 명령을 의미한다.  
(2)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나팔 소리를 동반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왔다(출 19:16, 18, 1).  
(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나팔 소리와 더불어 승천하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마 24:31; 살전 4:16).

4. **㉠ 하나님께서 나팔을 몇 개 만들도록 명하셨는가? (2절)**

- ㉠** (1) 두 개를 만들게 하셨다.  
(2) 왜냐하면 나팔을 사용할 제사장이 두 명뿐이었기 때문이다(3:4).  
(3) 반면에 솔로몬 시대에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동시에 불었다는 기록도 있다(참조, 대하 5:12, 13).

5. **㉠ 나팔을 불어야 할 각각의 경우와 그에 따른 방법을 열거하라(3-10절).**

- ㉠** (1)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 불었다. 이때는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되(3절) 소리를 울려 불지 않았다(7절).  
(2) 각 족장들을 모이게 할 때도 불었다. 이때는 나팔 하나만을 불었다(4절).  
(3) 진(陣)의 행진을 위에서도 불었다. 이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었다(6절).  
(4) 전시(戰時)에도 나팔을 불었으며, 또한 소리를 울려 불었다.  
(5) 거룩한 절기에 나팔을 불었는데 이때는 제물 위로 나팔을 불었다(10절).  
(6) 그러므로 나팔을 불 때는 분명한 소리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했다(고전 14:8).  
(7)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행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생활하였다.

6. **㉠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울려 불지 않고 평탄하게 불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2) 즉 회중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가나 특별한 절기를 지키며, 또는 회합(會合)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다.

(3)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에게 경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잡념을 가라앉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참조, 합2:20).

7. **㉠** 제조된 은나팔은 누가 불도록 되어 있었는가? (8절)

**㉠** (1) 제사장들만 불도록 되어 있었다. 즉 아론의 아들들이었다(3:4). 즉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이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使役者)들이 나팔처럼 크게 소리를 내어 백성들의 죄를 일깨워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示唆)해 준다(참조, 사 58:1).

(3) 또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해 준다(참조, 사 27:13).

8. **㉠** 이스라엘이 대적(對敵)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불었는가? (9절)

**㉠** (1) 나팔을 울려 불었다.

(2) 이것은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다.

(3) 그리고 무엇보다 대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의(決意)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승리에 대한 기원이었다.

(4)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에 개입하셔서 기필코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참조, 시 98:3).

(5)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9. **㉠** 번제물과 화목 제물 위에 나팔을 불게 한 때는 언제인가? (10절)

**㉠** (1) 이스라엘 백성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그리고 월삭(月朔) 때에 나팔을 제물 위에 불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제사와 제물들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 같다(참조, 대하 29:27; 시 81:3).

(3) 또한 제물 위에 나팔을 분 것은 이스라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준행한다는 것을 뜻했다.

(4) 이렇게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방편이 되었다.

10. **㉠** ‘제 2년 2월 20일’이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11절)

**㉠** (1) 출애굽 제 2년 2월 20일을 말한다.

(2)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한 지 약 11개월 후를 말한다(참조, 출 19:1).

(3) 또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지루한 대기 생활을 끝내고 바란 광야로 진행을 시작한 때이었다.

(4)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11. **㉠**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신호로 행진을 시작했으며 또한 멈추었는가? (11, 12절)

**㉠** (1) 구름이 증거막 위에 떠오를 때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로 행진을 시작했다.

(2) 또한 구름이 증거막 위에 머무를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로 행진을 중단하였다.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단계 매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다.

(4)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는 길을 몰랐어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다.

(5)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들은 아무리 난처한 지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갈 길을 알게 하시며 지도하여 주신다(요 14:16-26).

12. **㉠**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란 광야에서 다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12절)

- Ⓐ (1)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모든 이동은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의 이동에 불과하다.
- (2) 즉 성도들은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이 각오해야 할 것은 언제 어디로 가든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비극만이 성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 (4)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편히 쉬기까지는 진정한 평안과 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 (5) 성경은 이러한 길을 명확히 보여 준다(시 119:105).

13. Ⓒ 이스라엘의 진영(陣營) 중에 어느 진이 제일 먼저 출발하였는가? (14절)

- Ⓐ (1) 유다 자손의 진기(陣旗)에 속한 자들이었다.
- (2) 즉 유다와 잇사갈, 스블론 지파 자손들이 각기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다(참조, 2:3-9).
- (3) 유다 지파와 함께 유숙하던 선발대의 깃발이 이제는 지휘권의 표시가 되었다.
- (4) 다윗 시대에도 지휘의 권한이 유다 지파에게 맡겨졌다(참조, 삼하 5:1-5).
- (5) 그리고 이 지휘권은 최종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되었다(참조, 딤후 2:1-4).

14. Ⓒ 이스라엘의 진영 중 두번째로 출발한 진은 어디인가? (17절)

- Ⓐ (1) 레위 지파의 두 집안, 즉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었다.
- (2) 이 두 집안은 회막 운반의 책임을 맡았다(참조, 4:21-33).
- (3) 이 두 집안이 회막을 걷은 후에 두번째로 출발한 이유는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도착하기 전에 다음 진칠 곳으로 선정된 장소에 그 회막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21절).

15. Ⓒ 이스라엘의 진영 중 네번째로 출발한 진은 어디인가? (21절)

- Ⓐ (1)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었다.
- (2) 고핫 자손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으므로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영예로운 위치인 진 한가운데서 행진했다.
- (3) 오늘날 성도들 역시 자신의 삶 한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4:7).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16. Ⓒ 지도자 모세가 그의 처남 호باط에게 길 안내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 (29절)

- Ⓐ (1) 모세는 호باط이 미디안 거주자로서 광야의 지리적인 특성과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길 안내를 부탁했다.
- (2)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인간의 편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 (3) 모세가 호باط의 도움을 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즉 건강한 신앙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이다.
- (4)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며 그 자연 법칙의 모든 질서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신다(참조, 시 19:1-6).

17. Ⓒ 모세가 호باط에게 길 안내를 부탁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여 호باط에게 강청(強請)할 수 있었는가? (29절)

- Ⓐ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호باط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여호와와 복을 호باط과 함께 나누겠다는 보증(保證)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크나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속 8:23; 요일 1:3).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이웃에게 목적 있는 여행 길을 함께 떠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18. **㉠ 모세의 요청에 대한 호باط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30절)**

- ㉠** (1) 호باط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 고향 곧 시내 광야 동남편의 미디안 땅 자기 친 족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을 했다.  
 (2) 즉 호باط이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본토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3) 그러나 호باط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한 축복의 진가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거절은 없었을 것이다.  
 (4) 호باط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참조, 창 25:1-4).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미치지 못한 자인 듯하다(참조, 히 11:8).

19. **㉠ 호باط의 거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30절)**

- ㉠** (1)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사랑하여 자신의 일생을 그르칠 때가 있다.  
 (2)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의 유혹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을 추구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된다.  
 (3) 그러나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 실상의 가치와 증거를 부여(附餘)할 줄 아는 자들이다(참조, 히 11:1).

20. **㉠ 모세의 또 한번의 요청에 대한 호باط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31, 32절)**

- ㉠** (1) 호باط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  
 (2) 그러나 호باط이 그 이상 거절한 사실이 언급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출발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필시 모세의 요청에 동의했을 것으로 본다.  
 (3) 더욱 분명한 사실은 먼 훗날 호باط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살았다는 성경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사 1:16; 삼상 15:6; 27:10).  
 (4)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모든 죄인들에게 모세의 요청 이상으로 강권(強勸)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다(참조, 고후 5:14).

21. **㉠ 여호와와 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산을 말하는가? (33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 산을 말한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중 이 시내 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산을 떠날 때에 여호와와 언약체를 메고 떠났다.  
 (4)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지킬 것이며 하나님과 계속 친교를 나눌 것이라는 표시였다.

22. **㉠ 언약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33절)**

- ㉠** (1) 언약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한다.  
 (2)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체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3)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체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정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할 것이다.

23. **㉠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언약체의 위치는 어디에 두었는가? (33절)**

- ㉠** (1) 이스라엘 진영(陣營)보다 3일 길에 앞서 위치하였다.  
 (2) 언약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위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식 장소를 마련하시려는 의도에서이기도 하다.

- (3)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위치하여 고향 자손들이 이동했던 성물과 분리시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두었다.
-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쉼 만한 곳으로 이끄시고 계신다(참조, 시 23:1-6).

24. **㉠**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 길을 앞서 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33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마다 3일 정도 행군할 거리 앞에서 언약궤가 이동했다는 말이 아니다.
- (2) 다만 시내 산에서 행군을 시작하여 기브롯 핫다아(11:34)까지 이르는 3일간의 행군 도중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선두에서 이동하였다는 말이다.
- (3) 이것은 그 후 40여 년 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계속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 (4)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

25. **㉠**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는 무엇을 하였는가? (3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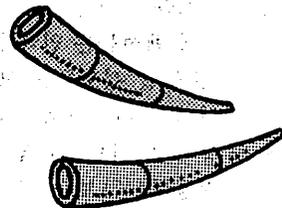
- ㉠** (1) 모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 (2)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적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였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 (3) 다윗도 오랜 후에 이 기도문을 이용했다(시 68:1). 다윗 역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하나의 전쟁터이다(엡 6:10-18). 성도들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엡 6:11)로 무장함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26. **㉠** 언약궤가 쉼 때에 모세는 무엇을 하였는가? (36절)

- ㉠** (1) 모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 (2)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안식하게 해 달라는 간구이며 하나님의 품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안전은 그들 백성의 수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참조, 사 63:11-14).
- (4)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8:20; 요 16:22).

본장의 요점

‘은 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2절)



# 제 11 장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의 불평

단락구분 1-3 하나님이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백성의 진을 불로 치시다 / 4-15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호소 / 16-23 메주라기 때로 공급할 것 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 24-25 세움받은 70인의 장로들 / 26-30 열닷과 메닷의 예언 / 31-35 메주라기 고기와 큰 재앙

1 백성이 여호와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라 여호와와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불이 그들 중에 불은 연고였더라

4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 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7 만나는 낫 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댕들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10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와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쫓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어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15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

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칠십 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18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이십 일만 먹을 뿐 아니라

20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21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 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와 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옳하는 여부를 보리라

24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2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26 그 녹명된 자 중 열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27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 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28 락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 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 여 급하소서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0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 중으로 돌아 왔더라

31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결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허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

리게 한지라

32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 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심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 두었더라

33 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 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 앙으로 치셨으므로

34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 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5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 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 **㉠** 본장은 어떤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성막의 건립과 제사 제도의 확립 직후에 발생한 사건들로서 불기둥과 구름기 등의 인도와 만나의 공급 같은 특별한 이적을 집중적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원망과 탐욕에 관한 기사(記事)가 기록되었다.  
 (2) 물론 이 원망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출 16:2, 3) 이후에도 계속되었다(21:4, 5).  
 (3)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없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용서하시는 무한한 자비로 반복되어 있다.

2. **㉠**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죄가 되는가? (1절)

- ㉠** (1) 성경은 원망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다(참조, 창 3:12, 13).  
 (2)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께 향한 반역죄이다(참조, 출 16:2-8).  
 (3)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징벌을 가하신다(참조, 고전 10:10; 약 5:9).  
 (4) 예수께서는 원망을 삼가할 뿐 아니라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권고를 하셨다(참조, 마 5:22-24).

3. **㉠**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1절)

- ㉠** (1) 하나님은 불로써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 이 불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던 그런 불꽃이었다(3:4).  
 (2)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표시이다(참조, 출 19:18; 신 4:11; 왕상 18:38; 시 11:6; 렘 4:1; 벧후 3:12).  
 (3)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진영(陣營) 끝의 천막에만 미쳤는지, 백성에게 미쳤는지, 아니면 그 모두에게 미쳤는지 확실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4) 그러나 이 불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권능만을 보이심으로 원만이 사라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위엄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주입시키는 것이 이 불심판의 목적이었다.  
 (5)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참조, 고전 11:32; 히 12:7).

4. **㉠**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하여 멈추어졌는가? (2절)

- ㉠** (1)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中保祈禱)로 인하여 하나님은 백성에 대한 진노를 멈추셨다.  
 (2)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특히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간구를 들으신다(참조, 출 32:32; 시 51:17).

5. **㉠** ‘다베라’라는 지명(地名)의 뜻은 무엇인가? (3절)

**㉠** (1) ‘다베라’는 불붙는다는 뜻이다(참조, 신 9:22).

- (2) 즉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불사름을 당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 (3) 현재 다베라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베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가다듬었을 것이다.
- (4)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다베라의 교훈과 같이 항상 그 마음에 원망을 멀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살전 5:16).

6. **㉠**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4절)

**㉠** (1)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따라왔던 이방인(나일 강의 삼각주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일부 이집트인)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38; 신 29:11; 수 8:35).

- (2)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현세적인 축복만을 생각했던 자들이며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었다.
- (3) 이러한 기복 신앙(祈福信仰)을 가진 자들은 그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참 사명을 오염시켜 왔다.

7. **㉠**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4-6절)

**㉠** (1)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못내 아쉬워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탐욕을 경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가증한 무리들과 연합하였다.
- (3)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엄청난 잘못이나 되는 듯이 원망을 일삼았다.
- (4)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는 만나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인간의 악한 본성과 끝없이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8. **㉠**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4-6절)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보다 오늘 당장을 화려하고 달콤하게 살아가겠다는 현대의 어리석은 찰나주의자(刹那主義者)들과 흡사하였다.

- (2)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값없이 먹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중노동으로 값비싼 화생을 치르며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을 미화(美化)시켜 생각하였다.
- (3)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생각하기에 매우 부족한 백성들이었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백성을 택하시고 끝까지 돌보심으로 당신의 크신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셨다.
- (5) 이와 같은 사실은 죄인 중에 피수 된 자 같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다(딤후 1:15).

9. **㉠** 만나에 관해서 설명하라(6-9절).

**㉠** (1)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만>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이다.

- (2) 이것은 짝새와 같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으며 모양은 진주와 같다는 표현으로 보아 훌륭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사도 바울은 만나를 가리켜 이 땅의 식물과 구별하여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다(고전 10:3).
- (4) 그러므로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0. **Q** 신약 시대에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음식인가? (6-9절)

**A** (1)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음식이었다(참조, 요 6:31-35).

(2) 즉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롬 5:17; 엡 2:8).

(3) 또한 만나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필요를 채워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셨다(요 1:16; 16:24; 17:13).

(4) 만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공급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신다(참조, 마 6:11; 눅 11:3).

11. **Q**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번민에 빠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라(10-15절).

**A** (1) 첫째로 모든 백성의 책임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0-12절).

(2) 두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고기가 없다고 호소하였다(13절).

(3) 마지막으로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다(15절).

(4)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는 모세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5)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차원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은 나이와 신앙 정도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존재이다.

12. **Q**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15절)

**A** (1)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을 명하셨으나 그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모두 맡기신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실 것이다.

(2) 오늘날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참조, 시 68:19).

(3) 또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기를 공급해 주시지 못할 만큼 미약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모세의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였다.

(4) 그리고 죽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부족했음을 보이는 것이다.

(5) 이처럼 믿음의 종도 시험에 들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6) 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전 10:12).

13. **Q**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각각 필요한 난제(難題)를 해결하여 주셨던 내용은 무엇인가? (16-23절)

**A** (1) 모세와 함께 사역할 장로 70인을 선택할 것을 명하셨다(16, 17절).

(2) 또한 고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1개월간 계속해서 고기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18-20절).

(3)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식시키셨다(21-23절).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자들이 만족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도 아울러 체험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셨다(31-34절).

14. **Q**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졌느냐'란 말은 무슨 뜻인가? (23절)

**A** (1) 하나님께서 하시기 못할 힘든 일이 무엇이나라는 의미이다.

(2)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제약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만 제약된다.

(3)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즉 바다를 측량하시고 하늘을 펴시며(사 40:12) 바람을 움직이시던(잠 30:4)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시다.

15. **Q** 70인 장로들에게 임한 신(神)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25절)

- A** (1)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뜻한다.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그의 종들에게 맡기실 때에는 자신의 영을 부어 능력과 지혜를 전달하신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성령)만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슥4:6).  
 (4) 그 당시 70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로로 임명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행동한다는 권위를 공적으로 입증했다.
- 16. C** 여호수아의 시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모세의 신앙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26-30절)
- A** (1) 엘닷과 메닷이 신적 권능에 사로잡혀 예언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의 치리(治理)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중지하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말했다.  
 (2)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폭넓은 지도자적 담대성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였다.  
 (3) 모세는 하나님 이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과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절대성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4) 그리고 형식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攝理)를 모세는 인정했다.
- 17. C** 위와 같은 모세의 태도가 신약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6-30절)
- A** (1)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의 하나는 교회 제도 속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역과 역량을 지나치게 절대시하여 강조하는 데 있다(참조, 고전 1:10-12).  
 (2) 가시적(可視的) 교회에서 교회 제도 내의 지위(地位)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3) 그러한 지위는 각 개인에게 합당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참조, 고전 12:4-31).  
 (4)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절대시하지 않고 서로간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때 교회의 평화가 유지된다(참조, 빌 2:1-8).
- 18.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것들(18-20절)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31-34절)
- A** (1)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원망)과 그들의 탐욕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만족을 채우신 후 곧이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3)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였는데 이는 '육망의 무덤'이라는 뜻이다(참조, 33:16, 17; 출 16:13-20).  
 (4)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인의 번영이 무엇인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즉 죄인의 번영은 멸망을 향한 행진일 뿐이다(참조, 잠 23:17; 전 2:26; 사 1:28).

### 본장의 요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아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모은 자도 심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  
 두었더라’ (32절).

## 제 12 장 아론과 미리암의 범죄

단락구분 1-3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와 비방 / 4-8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다 / 9-12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다 / 13-16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이 치유되다

1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삼 인이 나아가매

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시라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 내 중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중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9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11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13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음지라도 그가 칠 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칠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5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칠 일 동안 갈렸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16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 1. Q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A (1)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비방했다. 그러나 실상 그 비방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의 우월성에 대한 인간적인 시기였다.

(2) 이와 같은 비방의 주모자는 모세의 누이이며 여선지였던 미리암이었다. 그녀는 모세를 비방한 죄에 대한 징벌로 문둥병에 걸렸다. 이러한 사실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 준다.

(3) 특히 미리암의 질투는 모세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미리암은 인간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동시에 범죄한 것이다.

(4) 이와 유사한 범죄는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계 지도자간에 발생하는 상호 비방과 질투는 한국 교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죄는 단순한 인간에 대한 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한 범죄이므로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Q 모세가 이방 사람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었는가? (1절)

- A** (1)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애굽 여자와 결혼한 것(참조, 창 48:5)이 신정 국가(神政國家)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모세가 구스(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 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다.
- (2)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시대는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특히 강조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는 종교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지 그 자체가 무슨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었다(출 34:16; 신 7:3, 4).
- (3) 그러므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 3. C**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사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A** (1)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혈연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영적인 부르심에 더욱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이와 같은 결혼은 먼 장래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
- (3) 성경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렸던 룻과 같은 이방 여인도 기록되어 있다(룻 4:13-22).
- 4. C**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했던 말은 무엇인가? (1, 2절)
- A** (1)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이다.
- (2) 즉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며 추악한 시기심에서 나온 말이다.
- (3) 물론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적이 있었다(참조, 출 15:20, 21).
- (4) 그리고 아론은 우렁과 둠뭉이 있는 흉패를 붙인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대를 인도하기까지 하였다.
- (5)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특권과 위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신 자의 권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삼았다. 이것은 극도로 교만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
- 5. C** 모세의 신적 권위는 오늘날에도 유효(有效)한가? (2절)
- A** (1)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 성취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적인 권위를 부여 받았지 그가 본래부터 특수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 (2)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해 주어야 하나 지도자 자신과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일 뿐이며 아무 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3)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증거하였다(참조, 요 1:6-8, 19-27).
- (4)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신적 권위를 가진 자는 없다(참조, 시 14:1-3; 롬 3:10-12).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다.
- 6. C** 모세의 은유한 성품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절)
- A** (1)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은유한 성품을 통하여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모범적인 지도자임을 보여 준다.
- (2) 모세의 은유한 성품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처리하는 무기였다.
- (3) 그리고 모세의 은유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참는 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였다.
- 7. C** '은유하다'(meek)는 것은 '연약한(weak)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3절)
- A** (1) 은유한 것과 연약한 마음, 즉 비겁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용기와 만용(蠻勇)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 (2) 오늘날 성도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서 대항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은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다루어야 한다.
- (3) 이것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가 순교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살아남아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게 된 하나의 비결이었다.
- (4) 예수님께서도 은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마 5:5) 자신 역시 은유한 자이심을 강조하셨다(마 11:29).

8. **㉠**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가? (2-8절)

- ㉠** (1) 불평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 세우셨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는 심판을 위한 소환(召喚)을 뜻한다(참조, 16:15-18).
- (3) 그리고 회막에 친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권위를 부여한 모세에게 어떻게 감히 시기와 불평을 하느냐는 힐책(詰責)을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에게 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유한 지도자인 모세의 변호인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9. **㉠** 모세와 다른 일반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6-8절)

- ㉠** (1) 일반 선지자들은 비록 영감을 받은 자들이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계시 형태인 이상(異像)이나 꿈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다.
- (2) 그러나 모세는 이상이나 꿈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달받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출 3:4, 5).
- (3) 그러므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이다. 즉 모세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였다.
- (4) 그러나 특별 계시의 결정체(結晶體)인 성경이 주어진 오늘날에는 모든 사실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판단되고 분별되어야 한다(참조, 롬 12:2; 고전 2:13; 12:10; 요일 4:1).

10.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의 온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7절)

- ㉠** (1) '나의 온 집'은 '여호와의 모든 집'이라는 뜻이다.
- (2) 즉 그것은 모세가 그 관리와 통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온 집 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간주되는 언약의 나라를 가리킨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셨다(히 3:6).

11. **㉠**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7절)

- ㉠** (1)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았다.
- (2) 즉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충실한 사환(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의 모세는 예언자와 구별된다.
- (4)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문제를 모세의 손에 맡기셨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재자(仲裁者)로 하여 하나님과 교제했다.

12. **㉠**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對面)하여 명백히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중재자나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친구와 같이 친밀하고 자유스럽게 대화하듯 말씀하셨다는 뜻이다(참조, 출 33:11).
- (2)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외형적인 고유한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다. 따라서 모세가 대면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출 33:11의 경우와 같이 그의 위엄스러운 임제의 영광스러운 상징을 가리킨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요 14:17-19).
- (4)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본

체를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계 22:4).

13. **㉠**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어떻게 나타났는가? (10절)

- ㉠** (1)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드셨다.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으로 간주되었다.
- (2) 미리암의 죄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반역,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역이었다.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특이한 질병을 주신 것은 구약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참조, 왕하 5:27; 대하 26:19).
- (4) 그런데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찾아 보기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침묵일 뿐이지 인간의 죄가 구약 시대처럼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 (5)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죄인의 행통함은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다(참조, 히 10:30).

14. **㉠**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할 때에 어떠한 호칭(呼稱)을 사용했는가? (11절)

- ㉠** (1) 모세의 형인 아론이(출 7:7) 모세에게 '내 주여' 라고 하였다.
- (2) 이것으로 보아 모세는 은유하여 자기를 낮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3) 이와 같이 은유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 **㉠**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던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11, 12절)

- ㉠** (1) 무죄한 자들을 비방하거나 중상(中傷)하는 일은 죄가 됨을 볼 수 있다(11절).
- (2)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계 3:9).
- (3)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는 신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할 것이다.

16. **㉠** 미리암의 문둥병에 대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하나님과 백성의 증보자로서의 철저한 사명 의식과 그 사명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 (2) 또한 하나님의 징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모세의 태도는 모든 지도자들의 귀감(龜鑑)이 된다.
- (3) 이러한 본을 통하여 성도들은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 (4) 그리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이 하나님이나 사람에 의해서 지극히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처벌을 기뻐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왕상 13:6).
- (5) 예수 그리스도와 스테반 집사 역시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잊지 않았다(참조, 눅 23:34; 행 7:60).

17. **㉠**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4절)

- ㉠** (1) 침을 뱉는 것은 모욕과 멸시를 주는 일임과 동시에 저주를 의미했다(참조, 신 25:9; 욕 30:10; 사 50:6; 마 27:30).
- (2)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자식을 꾸짖으면 일정한 수욕(羞辱)의 기간이 뒤따랐다.
- (3) 하물며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한 미리암이 7일 동안 수치의 기간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4) 미리암의 죄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처벌을 받아야 했다(참조, 딤후 5:20).

(5)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 교회의 정당한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18. **㉠**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진(陣) 밖에 격리되었던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14, 15절)

- ㉠** (1)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 난 것은 백성들로부터 잠시 끊어진 것을 나타낸다.  
 (2) 비록 미리암이 여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 더우기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복종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참조, 레 13:46;14:8).  
 (4)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만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료

중보의 기도

성경 저자들은 타인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효과를 믿었다(렘 1:15, 19; 3:16-19; 빌 1:9-11; 골 1:9-12). 구약 성경에 언급된 중보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	성 경	내 용
아브라함	창 18:22-33	소돔 성 거민을 위하여
	창 20:17	아비멜렉을 위하여
모 세	14:17; 출 32:32	이스라엘을 위하여
	12:13	자기 누이 미리암을 위하여
사 무 엘	삼상 7:5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 람	왕상 13:6	여로보암을 위하여
시편기자	시 122:9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윗	대상 21:17	이스라엘을 위하여
솔 로 몬	대하 6:21-42	이스라엘을 위하여
히스기야	대상 30:18	백성들을 위하여
요	요 42:10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아 모 스	암 7:2	이스라엘을 위하여

# 제 13 장 열 두 정탐군의 파송

단락구분 1-16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된 12정탐군의 명단 / 17-20 모세가 정탐군에게 내린 지사사항 / 21-24 40일 동안의 정탐 / 25-33 정탐군들의 상반된 보고 내용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 3 모세가 여호와와 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 된 사람이라
- 4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 5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 6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 7 잇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 8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 9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 10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잣디엘이요
- 11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잣디요
- 12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 13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이요
- 14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요
- 15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 16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 17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 18 그 땅의 어떠한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 19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분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 20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니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 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음 즈음이었더라
- 21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 22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칠 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가 있었더라
- 23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들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고 곧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 25 사십 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 26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 27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 28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하더이다
-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 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1) 본장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2)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3) 그중 본장에 기록된 12정탐군 파송으로 인한 구세대의 가나안 입국 금지와 20:1-13에 기록된 모세의 실수로 인한 그의 가나안 입국 금지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 (4)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천국을 향한 행로(行路)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긴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천국은 가만히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용기와 절제와 결단이 계속되어야 한다.

2. **㉠** 가나안 땅에 대한 탐지(探知) 명령은 누가 내렸는가? (1, 2절)

**㉠**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 (2) 그런데 본장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정탐군 보내기를 요청하였다(참조, 신 1:22).
- (3) 즉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다.
- (4)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요청한 것은 가나안 정복의 실패에 대한 공포를 그들의 적은 믿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5)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출 13:5)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결과였다.

3. **㉠** 가나안에 파견된 정탐군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2절)

**㉠** (1)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공평하게 뽑힌 족장의 위치에 있는 인사(人士)들이었다.

- (2)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사실을 보면 그들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보고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 (3) 이러한 사실로 보아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모두 유능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 가나안 정탐군 12명의 명단과 그 이름의 뜻을 도표화하라(4-15절).

**㉠**

지 파	이 름	이 름 의 뜻	아 버 지
르 우 벤	삼 무 아	알리다	삭 굴
시 므 온	사 바	재판장	호 리
유 다	갈 렵	공격자	여분네
잇 사 갈	이 갈	그가 속할 것이다	요 셉
에브라임	호세아(여호수아)	도움, 구원	눈
베냐민	발 디	구 속	라 부
스불론	갓 디 엘	하나님의 기쁨	소 디
므낏세	갓 디	나의 행복	수 시
단	암 미 엘	하나님의 백성	그말리
아셀	스 들	가리운 비밀	미가엘
납달리	나 바	숨기다	웁 시
갓	그 우 엘	여호와와는 도움이시다	마 기

5. **㉠** 모세는 12정탐군 중에 누구의 이름을 개명(改名)시켰는가? (16절)

**㉠** (1) 모세는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고쳐 불렀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명칭인 여호와와 생략형이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붙어 여호수아가 되었다.
- (3) 따라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다.
- (4) 이후에 호세아(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27:18-23).
- (5)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다(참조, 마 1:21).

6. **㉠** 여호수아로 개명된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이름이 되었는가? (16절)

- Ⓐ (1)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었다.
- (2)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 (3)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역(使役)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롬 8:37-39).

7. Ⓢ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뀐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6절)

- Ⓐ (1)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각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애의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 (2) 따라서 이름을 새로 바꾸는 것은 그의 생애가 크게 변화된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창 17:5), 사래가 사라로(창 17:15, 16), 시몬이 베드로로(마 16:17-19) 개명되었던 것과 같다.
- (3) 그러므로 호세아의 개명은 그의 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돌입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즉 죄인과 중이라는 지난날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부(新婦), 주님의 친구라는 이름들이 붙여지게 되었다(참조, 호 2:16; 요 1:12; 15:15).

8. Ⓢ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군들을 보내며 지시한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7-20절)

- Ⓐ (1)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옥토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탐군들을 보낸 것이다.
- (2) 이와 같은 예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그가 그리스도인가를 물어보도록 한 것은 요한 자신이 아니라 그가 보낸 제자들을 위해서였다(마 11:2-6).
- (3) 예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과 불신앙을 만족시켜 주셨다(요 20:24-29).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비록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하심을 믿는 적극적인 신앙이다(참조, 요 20:29; 히 11장).

9. Ⓢ 모세가 정탐군들에게 '담대하라'고 지시한 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말하라 (20절).

- Ⓐ (1) 담대하라는 말은 성격적인 용기가 아니라 신앙의 용기로서 정확히 판단하라는 말이다.
- (2)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과 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 (3) 주님께서도 최악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만 얻어진다(요 14:1).
- (4) 그러므로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참조, 마 1:23; 28:20).

10. Ⓢ 두 사람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메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가? (23절)

- Ⓐ (1)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산물(産物)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한 견본(見本)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즉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비록 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비옥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표시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나타내 보이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11. **Q**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대부분의 보고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25-29절)

- A** (1) 가나안 땅이 대단히 비옥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서 가져 온 과일들을 제시했다.  
 (2) 또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며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었다고 했다.  
 (3) 보고자들의 대부분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렸다.  
 (4) 이러한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이었다.

12. **Q**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의 대조적인 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5-33절)

- A** (1) 사람들이 하나의 물체를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2) 즉 가나안 땅이 기름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을 정복하러 가자는 의견과 그 땅의 거민(居民)들이 강한 자이므로 올라가지 말자는 의견이었다.  
 (3) 이런 현격(懸隔)한 관점의 차이는 신앙의 유무(有無)의 차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다(빌 4:13). 이런 확실한 신앙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3. **Q**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두 사람의 신앙은 성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30절)

- A** (1)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그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참 믿음이 있었다(참조, 히 3:19).  
 (2)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의 수가 비록 적다고 해서 변경되는 일은 결코 없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불신앙을 가진 다수를 모두 죽이시고 신앙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4) 이 사건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살후 3:2).  
 (5)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두 사람의 신앙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동일하다(요 3:12-18).  
 (6) 즉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도 믿음으로 구원얻는 사실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14. **Q** 보고자들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惡評)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32, 33절)

- A** (1) 가나안 땅은 거민(居民)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은 그 땅이 매우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 족속이 싸우다가 멸망하였다는 뜻이다.  
 (2)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신장(身長)이 장대하다. 즉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3)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 이것은 싸움도 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이미 패배한 모습이다.  
 (4) 보고자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언사(言辭)는 백성들을 선동하기에 충분했으며 이스라엘은 회중을 낙심시키고도 남았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고 만다.

# 제 14 장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자들

단락구분 1-3 정탐군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원망 / 4-10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들로 치러 하다 / 11-19 진노하신 여호와를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 / 20-35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와 광야에서 죽은 자들 / 36-38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10명의 정탐군들 / 39-45 아말렉과 가나안 산지 사람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민족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 온 회중이 그들을 들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3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 이니이다

15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16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추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17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18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 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옵소서

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1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22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좃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5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들이켜 흥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26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 너희가 사로잡혀있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 나 여호와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6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37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 그 땅을 탐지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9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와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 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41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와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42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4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 갔고 여호와와 언약케와 모세는 진을 떠나치 아니하였더라

45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열사람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그 반작용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 (2)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 계속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의 장엄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를 선택하시는 계기가 되었다.
- (3) 그리고 가나안 입국이 40년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만 했다.
- (4)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택하신 경륜(經綸)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불신앙, 불충성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다.
- (5)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고 심판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다(합 3:2).

2. ㉠ 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사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4절)

- ㉠ (1)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되 거리낌없이 함부로 발설(發說)하였다(1-3절).
- (2) 즉 불신앙은 두려움을 낳았고 두려움은 원망을 낳았다.
- (3)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을 인도한 선한 목자인 모세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으며,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는 만행(蠻行)을 저질렀다(4절).
- (4) 지도자를 새로 세우려는 목적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5절).
- (5)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인간은 옛 죄의 길로 퇴보(退步) 하고야 만다.

3. ㉠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되었는가? (2-4절)

- A** (1)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되었다.  
 (2) 그 이유로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수행자(遂行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참조, 출 4:1-17).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도록 만드셨다(33-35절).  
 (4) 즉 지금까지의 행군이 뜻대를 향한 희망과 질서의 행군이었다면 이제부터의 행군은 허공을 휘젓는 것과 같은 무의미하고 끝없는 절망의 행군이 될 것이다.  
 (5)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하는 죄는 다른 어떠한 죄악보다 더 두서운 범죄의 결과를 가져 온다.
- 4. Q**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일으켰던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가? (5절)
- A** (1)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완악하고 성급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다.  
 (2) 모세와 아론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실 수 있다는 신앙적인 자세이다.  
 (3)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극한 역경(逆境)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될 뿐더러 늘 깨어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살전 5:17).
- 5. Q**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어떠한가? (6-9절)
- A** (1)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6절). 이것은 백성들의 최악적인 언행(言行)에 깊은 실망과 분개를 표시한 것이다(참조, 레 10:6).  
 (2) 또한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탐색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분명히 복된 땅이라고 말했다(7, 8절).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출 3:8)을 그대로 믿었던 참 신앙적인 표현이었다.  
 (3)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권면했다(9절).  
 (4)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에 대하여 이러한 두 사람의 신앙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지만 우리는 두 사람에게서 진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5) 이처럼 성도는 비록 성경의 진리가 많은 사람에 의해 버림받더라도 거기에 약하여지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6. Q**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 A** (1)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백성들의 반란(反亂)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2)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의와 양심의 편에서 서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진리를 고수(固守)하는 자들을 건지실 뿐 아니라 동시에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엄위와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벌하신다(참조, 시 37:28).  
 (3) 즉 하나님의 간섭과 중재(仲裁) 하심은 언제나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시며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신다(참조, 시 145:20).
- 7. Q**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1, 12절)
- A** (1)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가 지극히 악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다(11절). 그리고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다.

- (2)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거듭하였음을 지적하셨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완악한 심성을 계속 간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지적한 것이다.
- (4)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가하시겠다고 하셨다 (12절). 이 재앙은 전염병을 통하여 범죄한 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다.
- (5)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 (6)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도래(到來) 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사 35:8-10).

8. **㉠** 하나님께서 이적(異蹟)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이였는가? (11절)

- ㉠** (1)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었다.
- (2) 그러므로 이적의 참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결단에 있다.
- (3) 그러나 일부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표면적인 이적만을 구하는 자들도 있다(참조, 요 6:30-36).
- (4) 이적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 (5)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이적의 능력과 표적만 구하는 자들과 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책망하셨다(마 11:20-24).
- (6) 하나님은 이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더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참조, 요 20:29; 고전 1:22, 23).

9.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中保祈禱)에서 무엇을 먼저 염두(念頭)에 두고 기도하였는가? (13-16절)

- ㉠** (1)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였다.
- (2)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조롱할 것이므로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 (3) 물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오해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손해 될 일은 전혀 없다.
- (4) 모세도 이것을 잘 알았으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
- (5)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출 32:11-14).

10. **㉠**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17-19절)

- ㉠** (1)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내용이었다(17절).
- (2)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仁慈)하심에 호소하여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다(18, 19절).
- (3)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만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은 성취되기를 소원하였다. 즉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다(18절).
- (5)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의 속성 가운데 그의 인자하심에 더욱 호소하고 있다(19절).
- (6) 만약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을 판단하신다면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롬 3:10-18).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 11. ㉠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하였는가? (20-38절)

- ㉠ (1)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존중하셨으나 죄를 범한 백성들은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2)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23, 29절).  
 (3)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며(25절) 이후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33절).  
 (4) 그리고 백성을 미혹시킨 10명의 정탐군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37절).  
 (5) 결국 주님을 신뢰한 자,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나(24, 30, 38절)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 12.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들을 나열하라(22절).

- ㉠ (1) 본절에서 말하는 '열 번' 이란 문자적으로 정확히 '열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큰 사건은 아래와 같다.  
 (2) 홍해에서의 반역(출14:10-12)  
 (3) 마라에서의 원망(출15:22-24)  
 (4) 신 광야에서의 원망(출16:2)  
 (5) 만나와 관련해서 불순종한 일(출16:20, 27)  
 (6)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출17:1-3)  
 (7) 호렙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일(출32:7-20)  
 (8) 다베라에서의 원망(11:1)  
 (9)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의 불평(11:4)  
 (10)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14장)

## 13. ㉠ 원망하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23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不信)하면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불신하는 자(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히11:6).  
 (3)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이 세상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來世)를 위해서도 필요하다(참조, 엡3:12).

## 14. ㉠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던 길을 되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25절)

- ㉠ (1) 이것은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던 희망의 민족에서 이제는 죽음과 허무만 남아 있는 절망의 민족으로 그 운명이 바뀌어졌음을 뜻한다.  
 (2)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의 품에서 떠날 때에는 생활이 광야같이 늘 허무할 수밖에 없다.  
 (4) 이러한 광야 생활은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을 초래(招來) 하고야 말 것이다.

## 15. ㉠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맹세하셨는가? (28절)

- ㉠ (1)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2)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에 대부분 자신보다 위대하고 고귀하며 불변하는 대상의 권위를 증거로 내세워 맹세한다.

(3)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으므로 결국 자신을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었다.

(4) 이것은 성경만이 가지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유일신 여호와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16. **㉠**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8절)

**㉠** (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망언(妄言) 대로 행하시겠다는 뜻이다(참조, 2-4절).

(2) 사실 이 말을 함부로 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행한 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한다(참조, 잠 17:20; 벧전 3:10).

(4)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혀(말)의 파괴적인 힘을 경고하고 있다(약 1:26; 3:5, 6, 8).

17. **㉠**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징벌 대상을 20세로 규정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29절)

**㉠** (1) 이것은 1장에 기록된 1차 인구 조사 대상자들, 즉 이스라엘의 구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질 것이라는 말이다.

(2)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20세 미만인 자들을 남겨 두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건설의 새로운 주역자(主役者)로 사용하셨다.

(3)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창 12:1-3)이 잠시 실패하는 듯하였으나 영원히 좌절되지는 않았다.

(4) 이와 같은 사실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8. **㉠** '어린 자들은 백성(20세 이상)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消滅)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는 무슨 뜻인가? (33절)

**㉠** (1) 반역한 백성의 자녀들은 그들이 구세대의 임무를 완전히 떠맡을 때까지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얼마나 컸던가를 목격하며 4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2) 이것은 부모들의 범죄가 2세들의 영적 생활은 물론 육체에도 심각한 고통을 줄 것이라는 교훈적인 경고이다.

(3)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19. **㉠**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킴에 있어서 40년간 유보(留保)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28-35절)

**㉠** (1) 이 유보는 단지 새 세대(20세 미만)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즉 새 세대가 성숙한 육체와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이다.

(3)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마 13:24-30)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위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연기시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4)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인에 의하여 고통을 받을 때에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 **㉠**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衝動)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와의 재앙으로 죽었던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36, 37절)

**㉠** (1)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는 자들의 최후는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 또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반감(反感)을 조성하는 자의 죄가 어

떠함을 말해 주고 있다(참조, 마 23:13).

(3) 그리고 이러한 10명의 보고자들의 죽음은 불신앙인들의 최후 과멸을 예시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참조, 벧후 2:1-3).

21. **Q**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2, 43절)

**A**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더 이상 일하시지 않겠다는 말이다.

(2)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므로 이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게 되었다.

(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총이며 축복이다(참조, 사 7:14; 8:8; 마 1:23).

## 연구자료

홍해. 이곳의 지층은 제 3기 하층과 백악기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풍화작용에 의해 짙은 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석양이 비추면 동쪽과 서쪽의 절벽 부분은 다같이 진홍 빛으로 물든다. 이와 같은 광경이 고대의 항해자들로 하여금 붉은 바다라는 뜻의 홍해(Red Sea)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다. 홍해는 V자형을 이루어 서쪽에 수에즈 만과 동쪽에 아카바 만이 있는데, 이 두 만은 시나이 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성경에서 홍해와 연관된 중요한 사건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언급된다. 첫째는 출애굽의 기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즉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서(출 14:29) 이는 지중해와 수에즈와 사이에 있던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이다. 출 15장은 홍해, 즉 <압수프>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한 노래이다(4, 22절). 둘째는 유대인들이 아카바 만에 있는 에시온게벨(엘랏) 항구를 통제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과 함께 무역선을 만들어 운항했으며 오빌과 기타 동방 여러 나라와 상업적인 거래를 했다(왕상 9:26, 27; 10:11, 12). 뿐만 아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자국에서의 소비와 수출을 위해 충분한 구리를 생산하던 구리광을 개발하고 제련소를 가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상의 발굴을 통하여 고대 유적으로서는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구리 용광로 및 제련소가 발견됨으로써 입증되었다.

# 제 15 장 가나안 입국 이후의 제사법

단락구분 1-16 각종 제사에 절가될 소제와 전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 / 17-21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법 / 22-31 부지중애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하여 / 32-36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사형이 집행되다 / 37-47 여호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옷단의 술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 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 4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일에 기름 한 힌의 사분지 일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 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사분 일을 예비할 것이요
- 6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예바 십분지 이에 기름 한 힌의 삼분지 일을 섞어 예비하고
- 7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삼분지 일을 드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 8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 9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예바 십분지 삼에 기름 반 힌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 10 전제로 포도주 반 힌을 드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 11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 12 너희 예비하는 수효를 따라 자기 수효에 맞게 하라
- 13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 14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 15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올레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 16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 19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

- 를 드리되
- 20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 21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 22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 23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 24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 25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 2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 27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였거든 일 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 28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 29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 30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훼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 31 그런 사람은 여호와와 말씀울 떨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 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 33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 왔으나
- 34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 모든 제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제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라.

㉠ (1) 본장에 기록된 율법은 레 1-7장에 기록된 제사 제도의 보다 상세한 세부 규칙이라 할 수 있다.

(2) 특히 본장의 '내가 주어 거(居)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2절)라는 말과 '너희가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30)는 말씀을 잘 비교하여야 한다.

(3) 즉 본장에 기록된 율법을 실천할 사람들은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할 구세대가 아니라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이었다.

(4) 이것을 볼 때 본장에 기록된 율법은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었던, 즉 출애굽 제 38년째가 되는 광야 생활 말기에 주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참조, 신 2:14).

2. ㉠ 본장의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과 14:30의 구세대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을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1) 한 마디로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사 43:11).

(2) 전날 구세대의 반역으로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것에서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이 확연(確然)히 드러났다.

(3) 한편 이제 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복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눅 18:27).

(4)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언제나 구속사(救贖史)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 도덕적으로 실패와 타락의 연속이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인간의 실패를 복구해 오셨다.

3. ㉠ 화제(火祭)란 무엇인가? (3절)

㉠ (1) 화제(fire offering)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번제와 소제를 비롯하여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는 모두 화제이다.

(2) 제물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 제사의 주목적이다.

4. ㉠ '서원(誓願)을 갚는 제(祭)'란 무엇인가? (3절)

㉠ (1) 하나님께 특별히 맹세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참조, 레 22:21; 27:2).

(2) 이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 제사가 그 좋은 예이다(6:1-21).

(3) 또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므로 결코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참조, 시 15:4; 전 5:6).

5. ㉠ 낙헌제(樂獻祭)란 무엇인가? (3절)

㉠ (1) 낙헌제(freewill offering)는 감사제, 서원제와 더불어 화목제의 3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 (2) 이것은 서원한 것을 갚는 서원제와 함께 자의(自意)로 예물을 드리는 자원제이다(레 7:15-18).
- (3) 낙헌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화목제나 번제로 드렸고 그 희생 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다 먹을 것이며 제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라 버려야 했다(레 7:16, 17).
6. **㉠ 정한 절기제(節期祭)란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해마다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이다(참조, 레 23:37, 38).
- (2)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먼저 성회를 가지고 안식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레 23:33-44).
- (3) 이 제사를 드리는 절기는 영원한 내세(來世)에 들어간 성도들의 하나님을 중심한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한다(계 7:9-17).
7. **㉠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것은 노아가 홍수 후 에 드린 제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향기를 흠향(歆饗)하신 때부터 생겨난 말이다(창 8:20, 21).
- (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다(엡 5:2).
- (3) 그러므로 향기롭게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가장 즐겨 받으시는 것은 분향하는 냄새보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에서 나오는 향기이다(참조, 마 25:34-40).
- (5)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나 아니냐 하는 것(참조, 롬 12:1)은 제물을 가져 오는 자의 동기(心)에 달려 있다(참조, 창 4:1-15; 히 11:4).
8. **㉠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제(素祭)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을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참조, 요 16:22; 행 27:21-36).
9. **㉠ 전제(奠祭)란 무엇인가? (5절)**
- ㉠** (1)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위에 포도주(혹은 드물게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참조, 레 23:13).
- (2)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감사와 성령의 역사를 표상하는 제사이다(참조, 사 55:1; 행 2:13-15).
- (3) 전제는 일반적으로 번제와 화목 제물 위에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0. **㉠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다같이 한 법도, 한 규례대로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1-16절)**
- ㉠** (1)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말해 준다.
- (2) 즉 인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모두 다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내어 놓고 회개하는 예를 밝아야 했다(참조, 롬 3:9-18).
- (3)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랐다면 구원받은 무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참조, 롬 11:29).
- (4) 결국 이것은 장차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예표한 조항이었다.

11. **㉠** 거제(擧祭)란 무엇인가? (19-21절)

- ㉠** (1) 제사장이 제물을 상하로 흔들어서 여호와께 헌납하는 제사이다(참조, 레 7장).  
 (2) 이것은 하나님께 바쳤다가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출 29:27, 28; 레 7:14, 32).  
 (3) 그러므로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드린다는 것(21절)은 거제로 드린 부분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제사란 무슨 의미인가? (18-21절)

- ㉠** (1) 이것은 자신이 노동한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한 것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2) 이것은 타작 마당의 거제, 즉 맨먼저 거두어 들인 곡식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20절).  
 (3)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참조, 롬 8:23; 고전 15:23; 약 1:18; 계 14:4).

13. **㉠** '그릇 범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2-26절)

- ㉠** (1) '그릇 범죄하였다'는 말은 알지 못하여 부지중(不知中)에 범한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수하여 범죄하였거나 언약해서 유혹에 빠져 일시적으로 범한 죄를 가리킨다(레 4:2).  
 (2) 그러므로 그릇 범죄한 죄에는 속죄 제물이 요구되었다(24절).  
 (3) 그러나 그릇 범한 죄는 자신이 능히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고범죄(故犯罪)와는 구별된다.  
 (4) 그릇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  
 (5) 오늘날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완전한 제물로 믿으며 회개해야 한다(참조, 히 9:28).

14.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둠함을 아시고 하신 말인가? (22, 23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성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다.  
 (2)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규정하신 후에 또다시 그 법을 파괴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법을 허락하셨다(24-31절).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받아 주신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은 사랑을 그 전제(前提)로 하신 구원의 법이다.  
 (5) 결론적으로 인간의 약함을 인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깊은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의 가증(可憎)한 죄까지도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다(참조, 요 14:6).

15. **㉠**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중(不知中)에 범한 죄마저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 (1)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비록 알지 못한 중(무의식 중)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참조, 레 5:17).  
 (3) 혹시 부지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핑계치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  
 (4)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상황 윤리자들이 내세우는 죄의 상대성은 참다운 진리가 될 수 없다.

16. **㉠** 속죄제를 드릴 경우 죄중이 지은 죄와 개인이 지은 죄에 따라 제물이 달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4-28절)

- Ⓐ (1)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에 비하여 한 공동체의 죄를 더 크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그런데 오늘날은 개인보다 한 공동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
- (3)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좋은 예이다.
- (4) 또한 건전한 교회에서도 때로 구제와 선행보다 자기 교회만의 안일(安逸)과 영예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 (5)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 자행(恣行)되는 온갖 종류의 단체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참조, 사1:11-17)을 깨닫고 단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構成員)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7. ⓐ 한 개인이 범죄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었는가? (27, 28절)

- Ⓐ (1)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회중(會中)의 죄에 비하여 적게 예물을 드려 속죄를 받았다(참조, 레4:27-5:13).
- (2) 이 경우에는 암염소를 제물로 드리기로 했으나(27절)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으로 드릴 수도 있었다(5, 6절).
- (3) 또한 더욱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와 함께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 드릴 수도 있었다.
- (4) 이렇게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예물보다 상한 심령을 더욱 원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51:17).

18. ⓐ '짐짓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30, 31절)

- Ⓐ (1)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말한다.
- (2)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었으며 자기 생명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참조, 레24:10-23).
- (3) 신약 성경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마12:31; 히10:26-31)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다(요일5:16).

19. ⓐ 안식일(安息日)에 나무한 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32-36절)

- Ⓐ (1) 백성들이 진(陣)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36절).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분명히 십계명의 제4계명을 어기는 행위였다.
- (2) 일찌기 안식일에 나무하거나 불을 피우는 일체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이 법은 백성에게 공포되었다(출35:1-3).
- (3) 이 사실을 알고도 나무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반역하는 죄악이었다.
- (4) 즉 여호와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짐짓 범한 죄의 대가와 동일한 죽음을 당하였다(참조, 출31:14, 15; 35:2; 레20:2).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행위는 항상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의 생활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20. ⓐ 옷 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7-41절)

- Ⓐ (1) 옷 가에 술을 붙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기억했다(39, 40절).
- (2) 그러나 후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는 옷 술을 크게 하고 경문(經文)을 넓게 하는 것으로 본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종교적인 그들의 교만을 상징하게 되었다(참조, 마23장).
- (3) 즉 하나님이 주신 참 의미는 망각되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 (4) 이러한 형식화된 율법주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

- 까지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5) 왜냐하면 신앙의 참 모습은 옷 술에 있지 않고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이 말은 경건하고 건전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내적 신앙이 없는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증한 것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 연구자료

정착자가 된 나그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손님의 예우(福遇)를 누릴 수 있는 나그네들(신 15:3; 23:21)과 팔레스틴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히, 게림)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게르>로 살았으며(창 23:4) 모세는 미디안에서 <게르>로 거주했다(출 2:22; 18:3).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게림>이었다(출 22:20; 23:9). 이것은 다른 종족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적용되었는데, 그 증거로 어떤 에브라임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게르>로 거주했다는 것이다(삿 19:16). 이와 같은 의미에서 특정 지역을 할당받지 않았던 레위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율법이 <게림>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다(신 12:12; 14:29). 그래서 정착자가 된 나그네들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자유인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으므로 완전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이 되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해 있었으므로 그들은 주로 품군으로 일했다(신 24:14). 그래서 성경은 <게림>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곤궁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의 대열에 포함시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참조, 레 19:10; 23:22; 비교, 렘 7:6; 22:3; 겔 22:7; 숙 7:10).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게림>으로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들을 도와 줄 때는 그러한 역사를 기억해야만 했다(출 22:20; 23:9; 신 24:18).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십일조의 농산물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출 14:29) 안식년에는 농산물 자체를 차지했다(레 25:6).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게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정결의식(19:10; 레 17:13-18; 18:16)과 안식일(출 20:10; 신 5:14)을 지켜야 하며 속죄 제물을 바칠 때에 금식을 해야 하고(레 16:29)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5:15, 29; 레 17:9; 22:18) 종교 축제들에도 가담할 수 있었다(신 16:11, 14). 또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율월절 축제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9:14; 출 12:48).

## 제 16 장 고라 일당의 반역

단락구분 1-3 모세에게 향한 고라 일당의 비방 / 4-11 모세의 현명한 답변과 제안 / 12-19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 20-30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 / 31-35 땅이 갈라져 고라당을 삼키다 / 36-40 반역자들의 향로 / 41-50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아론이 속죄하다

1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 오십 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3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뇨

4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5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6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7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때에 여호와와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8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이 들어 들으라

9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니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 네가 우리를 짓과 같이 흐르는 땅에서 이

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짓과 같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5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를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17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이백 오십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18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19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0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1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2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한 사람이 범죄 하였거든은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좃았더라

26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 하노라 하며

27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28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29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30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니라

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불건을 삼키매

33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34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인을 소멸하였더라

3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7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명하여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38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39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낫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40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41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5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앞드리니라

46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49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에 죽은 자가 일만 사천 칠백 명이었던라

50 염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 1. ㉠ 본장은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인가?

㉠ (1)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참조, 14:34).

(2) 그중 38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참조, 신 2:14).

(3) 본장에 언급된 고라 일당의 반역은 광야 38년의 생활 중 마지막 시기, 즉 38년 이후의 마지막 1, 2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4) 본장의 내용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늙은 지도자 모세에게 도전함으로써 정권을 잡으려던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 2. ㉠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 (1) 고라는 레위의 증손(曾孫)이고 고랏의 손자였으며 이합의 아들이었다. 그는 또한 모세의 친사촌이기도 했다.

(2) 이처럼 고라는 레위 사람이었으므로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3)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서도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활동 범위는 대단히 컸으며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신임을 받았던 것이다.

(4) 그러나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레위인 중에 최고 직분인 제사장직을 탐(貪)내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역하였다(10, 11절).

(5)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감사치 못할 때 성도의 삶은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하고 말 것이다.

3. **㉠** 고라와 함께 모세에게 반역한 자들은 누구이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3절)

- ㉠** (1) 르우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에 동참했다.  
 (2) 아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지도자로서)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각 지파와 가정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을 것이다.  
 (3) 그러나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毀損)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유명한 자들의 자만성, 열망, 경쟁 의식 따위는 교회나 국가 모두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4. **㉠** 고라 일당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들은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모세가 너무 많은 권위를 스스로 내세운다고 비난했다.  
 (2)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출 19:6)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3) 따라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다.  
 (4) 뿐만 아니라 고라 일당은 그들의 사촌인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였으며 결국 그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였다.  
 (5)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6)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모두 고라의 패역과 같은 범죄자로 보실 것이 틀림없다(참조, 유 1:11).

5. **㉠** 모세가 고라 일당의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앞드렸던 행동은 어떤 뜻이 있는가?(4절)

- ㉠** (1)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행위였다.  
 (2) 즉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었다.  
 (3)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양보하고 타인에게 그 지위를 물려줄 태세였다(5-7절).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마음은 있을지라도 두려운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다(요일 4:18).

6. **㉠** 모세가 반역한 고라 일당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5-7절)

- ㉠** (1) 모세는 고라 자손에게 향로를 취하여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하였다.  
 (2) 모세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방법을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의 말은 권위와 공정함이 있다(참조, 잠 18:4).  
 (4) 그러므로 성도들의 언어(言語)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7. **㉠**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가? (5-7절)

- Ⓐ (1) 하나님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2)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3) 그리고 아론 역시 특별한 위임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고(출 28:1; 29:1; 레 8:12, 30)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레 10:3).  
 (4)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두 사람에게 지도자의 위치를 주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한 것도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다.  
 (5)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참조, 롬 8:26-30).
8. ⓐ 모세의 말을 통하여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레위 자손들의 속셈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11절)
- Ⓐ (1) 자신들의 회막 봉사보다 아론에게 부과된 제사장의 직무를 더욱 탐내었다.  
 (2)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회막을 봉사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고 귀한 일이었다(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불만을 터뜨렸다(10절).  
 (3) 이처럼 작은 일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는 큰 일을 맡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얼마 만큼 충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전 4:2; 히 3:5).
9. ⓐ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비난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12-14절)
- Ⓐ (1) 먼저 모세가 백성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이 비난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은폐(隱蔽)한 것에 불과하다.  
 (2) 또한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의 구속사적인 행위를 비난하였다.  
 (3) 세째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을 불신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뿐이다.  
 (4)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세를 자신의 눈을 때려는 자, 즉 백성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자로 매도(賣渡)하여 백성을 교묘히 속이는 악한 지도자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신실한 지도자였다.
10. ⓐ 모세의 의분(義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았기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  
 (2)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사심 없이 자신의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3)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남용(濫用)하여 타락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4)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책임자 됨을 깨닫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참조, 약 3:1).
11. ⓐ 회막 문 앞에서 고라가 행한 반역은 결국 무엇을 드러낸 행동이었는가?(18, 19절)
- Ⓐ (1) 고라는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제사장이 되려고 음모(陰謀)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했다.  
 (2) 또한 고라가 군중 심리에 이끌린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미숙한 신앙 인격을 드러낸 행동이었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뜻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의지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분이시다(참조, 롬 9:19-23).
- (4)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 21:33-46; 25:14-30; 눅 16:1-10).

12. **㉠**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0, 21절)

- ㉠** (1) 하나님께서 온 회중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과 한 패가 되거나 작은 일이라도 그들과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 준다.

13. **㉠**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하였는가? (22절)

- ㉠** (1) 모세와 아론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넘어간 것을 한 번 더 용서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2) 여기서 어진 지도자의 위대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3) 즉 자신에게 순종하고 따를 때에만 백성들을 위한 책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곧 양 떼를 버리는 샅군 목자가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양 떼를 이끄는 선한 목자상을 보게 된다.  
 (4)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완전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 하셨다(참조, 요 10:11-18).

14. **㉠** 백성들을 위한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24절)

- ㉠** (1) 군중 심리에 휩쓸려 반역에 동참했던 백성들에게 반역자(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셨다.  
 (2) 이것은 반역에 동참했던 우리들이 반역 주동자에게서 떠나면 그들과 함께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3) 이와 같이 배교(背敎)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히 3:12, 13; 벧후 3:17) 잘못하면 그들의 죄로부터 오염되기 쉽다(참조, 마 18:15-17; 딤후 3:10; 요이 1:10, 11).

15. **㉠**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인가? (25-30절)

- ㉠** (1) 반역자들과 함께 있지 말며 또 그 반역자들의 물건에도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은 죄의 오염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26절).  
 (2) 또한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 받은 참 선지자임을 강조했다(28절). 즉 지도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뿐이라 했다.  
 (3) 그 증거로 모세는 고라 일당이 보통 사람과는 달리 특별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29, 30절).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때때로 주위에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5)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자들이다(요 16:33).

16. **㉠** 음부(陰部)란 어떤 곳인가? (30절)

- ㉠** (1) 이것은 히브리어 <쉐울>에서 나온 말로 무덤을 뜻한다(참조, 시 16:10).  
 (2) 그리고 무덤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의 우주관에 따라 지하에 있다고 생각한 사자(死者)들이 머무는 장소를 뜻하기도 했다(참조, 창 37:35; 잠 9:18).  
 (3)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음부(헬, 하데스; 게헨나)의 개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멸망의 장소로 통용되었다(참조, 마 11:23; 눅 16:23; 행 2:27, 31; 계 20:13, 14).

17. **㉠ 여호와와 진노는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31-35절)**

**㉠** (1) 여호와와 진노는 지진으로 나타났는데, 땅이 갈라져서 반역 주동자(고라, 다단, 아비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및 물건들을 삼킨 후 갈라졌던 땅이 다시 합하여졌다(31-33절).

- (2) 또한 고라 일당의 추종 세력 250명은 분항하는 도중 여호와와 불에 타 죽었다(35절).  
 (3)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며, 피조물 중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4) 또한 이 사건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상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참조, 시 9:15; 55:15).

18. **㉠ 고라의 가족들은 완전히 멸망하였는가? (32, 33절)**

**㉠** (1) 아버지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죽지 않았다(26:9-11).  
 (2) 뿐만 아니라 고라의 후손들은 후에 크게 번성하여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서 성막 문을 지키며(대상 9:19)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다(대하 20:19).  
 (3)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겔 18:2-4).

19. **㉠ 반역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36-40절)**

**㉠** (1) 불법으로 사용되었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판을 만들도록 명령하셨다.  
 (2) 즉 여호와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범죄한 250명의 향로에 있는 불을 타처에 쏟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片鐵)을 만들라고 하셨다(37, 38절).  
 (3) 이것은 고라 일당의 사건을 후세에게 알려서 아무도 제사장의 특권을 탐(貪)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였다(40절).  
 (4)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파멸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경계하신다.

20. **㉠ 반역자들이 사용했던 향로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 (38절)**

**㉠** (1) 비록 악한 무리가 그 향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250개의 향로들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었다.  
 (2) 그러나 향로에 남아 있던 고라의 수종자들이 드린 본은 다른 곳에 버리게 했다.  
 (3) 이것은 내용물을 다른 곳에 버림으로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표시였다.  
 (4) 이와 같이 모든 죄의 요소가 제거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향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5)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존재해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참조, 롬 6:19; 고전 3:17).

21. **㉠ 고라 일당의 멸망을 지켜 보았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1-50절)**

**㉠** (1) 죄로 어두워진 인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사단은 이러한 본성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유혹한다.  
 (2) 그러므로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잠시 두려워하지만 곧 옛 모습으로 돌아가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22. **㉠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염병(染病)으로 죽어 가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46, 47절)**

- Ⓐ (1) 모세는 아론에게 그 회중을 위하여 분향하라고 하였다.  
 (2) 이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아론의 중보 기도라 말할 수 있다.  
 (3) 참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약5:15). 그러므로 성도들은 약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이웃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다.

23. ⓐ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란 무슨 뜻인가? (48절)

- Ⓐ (1) 이 말은 이미 죽어야 할 자와 용서받아 살 자를 분별하였을 때라는 의미이다.  
 (2) 아론의 이 같은 행동은 그가 인간의 생과 사를 분별할 위치에 있었으며 대제사장으로 서 그가 중보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3) 또한 아론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자들에게로 갔다. 즉 백성을 위해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4)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헌신적인 행동은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사53:4-6).

화보자료

향로(香爐). 아래의 사진은 예루살렘 고고학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B. C. 1200 - 900년경의 향로이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이러한 향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성경상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 및 제사장의 직무였음을 알 수 있다(출27:21; 대하13:10, 11).

# 제 17 장 아론의 싹 난 지팡이

단락구분 1-7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하나씩의 지팡이를 회집(會集) 시키다 / 8-11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다 / 12-13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공포(恐怖)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 는 곳인 증거재 앞에 두라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함이 열 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재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 1. ㉠ 본장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이적을 통해 아론이 가진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분명히 보여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2) 이런 의미에서 본장은 16장에 나온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  
 (3)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도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일체 침묵시키셨다.  
 (4)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일군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신다.

## 2. ㉠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지팡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2절)

- ㉠ (1)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목자나 여행자들이 도보용(徒步用) 또는 호신용(護身用)으로 사용되었다.  
 (2) 때로는 통치자에 의해 권위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참조, 창 49:10; 출 17:5).  
 (3)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많았다(참조, 출 4:2-4; 겔 37:16).  
 (4) 한편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지팡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시 23:4).

##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팡이를 몇 개나 가져 오게 하셨는가? (2, 3절)

- ㉠ (1) 각 지파의 족장에게서 하나씩, 즉 12개의 지팡이를 모으게 하셨다.  
 (2) 이 지팡이들은 레위 자손을 대표했던 아론의 지팡이까지 합쳐서 12개였다.  
 (3) 이와 같이 레위 지파가 계산된 것으로 보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한 지파

로 간주되었음이 분명하다(참조, 신 27:12, 13).

(4)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팡이를 모으신 것은 표적(表蹟)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불만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였다.

4. **㉠** 하나님께서 족장들이 가져 온 지팡이에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성경에서 이름은 종종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변하기도 했다(참조, 창 17:5, 15, 19; 21:33; 출 32:32; 레 19:12; 신 18:19-22).
- (2) 그러므로 지팡이에 족장들의 각 이름을 쓰게 하신 것은 자신들의 전인격이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 (3)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힘입어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라 할 수 있다(요 15:16; 16:23-26).

5. **㉠**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들을 증거케 앞에 두게 하셨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4-7절)

- ㉠** (1) 증거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참조, 출 25:22).
- (2) 그러므로 12개의 지팡이가 증거케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3)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그 여부(與否)를 판가름받았다.
- (4)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판의 한 모형이었다(5절).

6. **㉠**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5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명(使命)을 위탁하신 자에게는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군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냥 계시지 않는다.
- (3)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뜻에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택한 자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7. **㉠**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5절)

- ㉠** (1) 이것은 죽어 버린 새로운 육신에서 생명의 기운이 돌아 나는 것을 뜻한다.
- (2) 즉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엡 2:1, 5)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 것이다(고후 4:7-15).
- (3)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악취보다는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싹난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2:15, 16; 4:12).

8. **㉠** 모세가 지팡이들을 가지고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7절)

- ㉠** (1) 지성소 안 증거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참조, 히 9:7).
- (2)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직의 신적 기원을 가르치기 위해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 모세가 증거케 앞에 나아오는 것을 허용하셨다.
- (3)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전에 종종 그 뜻을 수여받을 인격에게 절대

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개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축복이다.

9. **㉠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8절)**
- ㉠** (1)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와웨드>는 '깨어 있다' 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계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말이다.
- (2) 또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3) 왜냐하면 이 이적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소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 (4) 즉 죽음이 선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10. **㉠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8-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참된 종이 애매하게 수욕(羞辱) 당할 때에 그를 변호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 (2) 이러한 변호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 주시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어 작정한 일을 이루신다.
11. **㉠ 아론은 신약 시대의 누구를 예표한 사람인가? (8-10절)**
- ㉠** (1)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였다.
- (2)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루시고(히 7:28) 그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히 7:16).
- (3)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므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12. **㉠ 하나님께서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증거케에 간직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1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대항함으로써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지도자들에게 대항하지 않도록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 주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심으로써 백성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셨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군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 이스라엘은 모두 다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恐怖)는 무엇을 뜻하는가? (12, 13절)**
- ㉠** (1) 이스라엘의 공포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던 근본 목적을 알지 못한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 (2) 이스라엘 민족은 고라 일당의 최후를 목격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이적을 보았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 즉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자비의 사역(참조, 문 10)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라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 (4)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사랑하는 부

모님께 모든 일을 겸손히 맡기듯 순종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참조, 롬 8:14-17).

## 연구자료

### 성경 비평과 구약

1. 본문 비평. 성경의 본문을 서기관들이 정성들여 필사하지 만 그 필사 과정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오류를 찾아 내어 원문에 가까운 사본을 재편집하는 것이 본문 비평 학자들의 소임이다. 1947년 쿨란 동굴 안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Dead Sea Scrolls)은 발견 당시 가지고 있던 사본들보다 무려 천년이나 더 오래된 구약의 많은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본문을 제공해 줌으로써 구약의 역사에 큰 빛을 던져 주었을 뿐 아니라 본문 비평의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2. 자료 비평. 성경의 저작자들이 참고 또는 인용하였던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자료 비평 학자들의 할 일이다. 그렇지만 자료 비평은 처음부터 가설(hypothesis)을 세워 작업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객관성을 띤 비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비평에서 보통 4자료, 즉 J, E, D, P 문서를 구분하여 가설을 세웠는데, 그 근거는 문체나 어휘의 변화 그리고 중복 기사(doublets)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오늘날에 와서 고고학의 발달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3. 전승 비평.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역사나 전승(tradition)이 처음 언급된 때부터 기록될 때까지 그 내용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조 기사가 처음에는 구두 전승(oral tradition) 되었으며, 어느 시기에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구전을 모세가 바로 인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비평도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다.

4. 편집 비평. 이것은 전승 비평이나 자료 비평과 많은 연계성을 지니면서 성경의 편집자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니면 그가 무엇을 첨삭 가감했는지 그리고 그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내는 것이다. 이것 역시 자료 비평이나 전승 비평과 같은 난점이 있다.

5. 양식 비평. 성경에는 저자에 따른 다양한 문학적 양식이나 타난다. 그래서 양식 비평은 비슷한 양식끼리 서로 비교하여 어떤 독특한 문학 형식의 특징들을 찾아내어 그 특징들의 이유를 추출하는 것이다.

6. 역사 비평. 성경은 뚜렷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그 문서의 기록 연대 및 사본의 기록 연대를 추정해야 한다. 특히 어떤 책의 역사적 배경과 저작자를 찾아내는 일은 그 기사의 의미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제 18 장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

단락구분 1-7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 8-20 제사장들이 받은 분깃 / 21-24 레위인들이 받아 쓸 백성들의 십일조 / 25-32 레위인들이 드릴 십일조

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2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3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5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6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10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11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2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14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15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16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 지 일 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온 다섯 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제라니라

17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18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혼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영한 율례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

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 같이 여기리니

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들리되

29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

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30 이따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31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32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17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은 다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규례(1-7절)와 그들의 직무를 위해 바쳐질 십일조(8-32절)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 (2)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해 이미 주어졌던 율법들은 단지 부분적인 사항만 취급되었지 본장과 같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 (3) 본장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지시들을 아론에게 내리셨던(1, 8절) 반면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칠 십일조 부분을 말씀하실 때(25절) 만은 모세에게 명하셨다는 것이다.
- (4) 이처럼 아론이 본장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수신자(受信者)로 언급된 것은 본장의 내용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 분담 및 분깃(share)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 **㉠** 성소(聖所)에 대한 죄란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불법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함부로 성소 안에 있는 성물(聖物)을 만지거나 취급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킨 죄를 가리킨다(참조, 출 28:38; 레 16:6).
- (2) 소극적으로는 여호와의 교훈을 잘 몰라서 짓게 되는 죄를 미연(未然)에 방지하지 못한 것과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을 백성들이 드리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다.
- (3)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와 제사장직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모두 맡게 되었다.
- (4) 이와 같은 사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예를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부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성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1절)

- ㉠ (1)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성소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었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성막에서 발생한 모든 죄악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였다.
- (2)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3) 한편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짐을 나누어 가지는 사랑이 필요하다(참조, 갈 6:2).
- (4)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이 된다(참조, 고전 12:12-31).

4. **㉠** 레위인들이 아론 밑에서 일하는 모습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가? (2-7절)

- ㉠ (1)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다(히 8:1). 그러므로 아론 밑에서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 아래서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同役者)

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2) 이러한 레위인의 동역(同役)은 현대 목회학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동 사역(team ministry) 정신의 모범이 된다.
- (3) 이것은 또한 현대 교회에서 평신도들도 교회의 여러 직무에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성실히 봉사해야 할 것을 보여 준다.

5. **㉠ 증거의 장막이란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증표로 세워진 장막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다. 성막은 그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몇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 (2) 즉 회중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한 회막(23절; 출 27:21; 레 1:1).
- (3)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던 여호와의 전(왕상 3:1; 스 7:16).
- (4) 그리고 거룩과 신성을 강조한 성막(17:13; 출 26:1).
- (5) 마지막으로 율법과의 관련성을 강조한 법막(대하 24:6) 등이다.
- (6) 한편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성결히 구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참조, 고전 3:16).

6. **㉠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4절)**

- ㉠** (1) '외인'이란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아무나 접근하는 것을 금하셨다.
- (3) 그러나 이러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마무리 지어졌고 어떤 허물을 가진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히 10:19).
- (4) 더 자세한 내용은 1장 **㉠** 18을 참조하라.

7. **㉠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 직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말한다.
- (2) 그러므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떠한 교만과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겸손의 자리에 있었다.
- (3)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모든 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 (4) 즉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은 자신이 맡은 직책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성실히 봉사해야 한다(참조, 마 25:14-30).

8. **㉠ '영성한 음식(應食)'이란 무엇인가? (8절)**

- ㉠** (1) '응식'이란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 (2)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만은 생계 수단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다.
- (3)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한 분깃이나 기업이 되었다(20절).
- (4) 이것은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참조, 벰전 2:5, 9; 계 1:6)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과 인도자로 삼아야 할 것을 교훈한다.
-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수고를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 주신다.

9. **㉠ 하나님께 바쳐졌던 성물(聖物)을 기쁨 부음 받은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뭇으로 준 이유는 무엇인가? (8-20절)**

- ㉠** (1) 제사장들은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토지와 다른 재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성물(聖物)이 그들의 생계를 위한 몫으로 할당되었다.
- (3)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역자들이 받는 보수와 동일하다(참조, 롬 15:16; 고전 9:13).
- (4)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 (5) 따라서 교역자들은 자신의 생계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참조, 빌 4:15-19).

10. **Q**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주어진 것들은 무엇인가? (8-20절)

- A** (1)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다.
- (2) 즉 거제물(15:19-21), 제단의 불로 사르지 않은 모든 것(9절; 레 6:19, 24), 모든 요제물(11-13절; 레 7:30), 특별히 드린 모든 것(14절; 레 27:28), 처음 난 사람과 동물에 대한 속전(15-18절; 출 22:29) 등이다.
- (3)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다.
- (4)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기업이며 생명으로 역사하신다(참조, 엡 1:18; 히 9:15; 벰전 1:4).

11. **Q**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所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2절)

- A** (1) 첫 소산은 첫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 (2)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준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여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참조, 마 10:37-39; 골 3:5).

12. **Q** 소금 언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9절)

- A** (1) 소금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물질을 섞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 즉 소금 언약이다(참조, 레 2:13; 대하 13:5).
- (2) 비록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비록 당신에게 해로우실지라도 변치 않고 지키신다(참조, 시 15:4; 89:34).
- (3)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코 의심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딤후 2:11).
- (4) 또한 소금이 다른 물질을 섞지 않게 하듯이 성도들도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들의 생활이 부패하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다.

13. **Q** '나는 이스라엘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가? (20절)

- A** (1)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며 기업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선물이다.
- (2) 또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의 지혜이다.
- (3)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했다(시 33:12).
- (4)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며 기업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해치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시 73:28).

14. **Q** 레위인들이 받을 분깃은 무엇인가? (21-24절)

- A**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였다(21절). 또한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

은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었다(26절).

- (2) 이 십일조 제도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북 전쟁 중에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시작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창 14:20).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규정하신 것은 이 제도가 결코 인간(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고안한 제도임을 밝히시기 위해서였다.
- (4) 그러므로 이 제도에 순응하는 것은 단순히 성막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며 당신이 모든 산업과 삶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15. **㉠**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십일조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십일조를 드리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21-24절)

- ㉠** (1) 십일조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욘 1:21) 그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롬 11:26).
- (2) 성도 중에 십일조를 드림으로 축복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는 말 3:10-12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 (3) 즉 십일조는 복받기 위해 드려지는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신앙 표시이다.
- (4) 또한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몫이고 10분의 9는 자신의 몫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생명까지도)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 (5) 다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참조, 마 25:14-30).

16. **㉠**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란 무슨 뜻인가? (23절)

- ㉠** (1) 이것은 레위인이 회막 일을 할 때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거나 태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만일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악이 된다.
- (2)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때 우리의 눈이 흔히 사람들에게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만을 힘쓴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인간의 봉사를 기뻐하실 리 없다(참조, 삼상 16:7).
- (4)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타성(惰性)에 젖은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성실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가야 할 것이다.

17. **㉠** 백성들이 바친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6절)

- ㉠** (1) 레위 사람들도 그들이 행한 성막 봉사의 대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 중에서 자신들의 십일조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다.
- (2)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비록 특별히 선택받아 성막에서 봉사는 하고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특권 의식이 결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20:12; 27:12-14; 신 34:4, 5).
- (4)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낸 십일조는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돌아갔다(28절).

18. **㉠**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7, 30절)

- ㉠** (1) 이것은 농부가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얻는 것이 당연하듯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분깃을 필연적으로 받으리라는 뜻이다.
- (2) 이와 같이 신약 시대 교역자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다(31절; 고전 9:13, 14).

19. **㉠**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제물을 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9절)

- ㉠** (1) 이것은 레위인들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일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바치라는 의미이다.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대상으로서 가장 영화로운 방법에 의하여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참조, 출 20:3; 마 10:37, 39).  
 (3)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은 다른 신들이나 사람 등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며 진리와 사랑의 근본이심을 가르쳐 주셨다.

20. **㉠**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의 십일조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1절)

- ㉠** (1) 레위인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회막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십일조가 주어졌다.  
 (2)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받은 그 예물들을 가족과 함께 아무 곳에서나 먹어도 허물이 되지 않았다.  
 (3)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한(고전 9:13) 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전 9:14) 고 말했다.  
 (4) 즉 그는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얻게 되는 보수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참조, 마 10:10).

21. **㉠**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는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가? (32절)

- ㉠** (1) 레위인들이 그들이 받은 보수(백성들의 십일조)에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였다.  
 (2) 즉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는 행위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십일조를 훔쳐 자신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 되었다(참조, 말 3:8).  
 (3) 만약 레위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행하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이 뒤따랐다.  
 (4) 이렇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십일조를 바침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제물의 일부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했다.  
 (5) 이와 같은 사실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그리고 감사를 잊고 사는 인생은 멸망할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시 49:20; 롬 1:21).

### 본장의 요점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레라’  
 (23절).

## 제 19 장 정결식을 위한 것물

단락구분 1-10 정결식을 위한 것물을 만드는 법 / 11-13 시체를 만진 자가 행할 정결식의 법 / 14-19 장례식에 동참한 자의 부정과 정결식의 법 / 20-22 부정하고도 정결식을 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방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여호와와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데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4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5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7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10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칠 일을 부정하리라

12 그는 제 삼 일과 제 칠 일에 이 것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 삼 일과 제 칠 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 날 부정하니

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와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케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쳐 있음이니라

14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칠 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 무릇 두정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16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칠 일 동안 부정하리라

17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 청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울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 그 정한 자가 제 삼 일과 제 칠 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 칠 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20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1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 ㉠ 본장에 언급된 정결 예식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 (1) 정결(淨潔)을 위한 철저한 의식 행위를 주신 이유는 레위기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정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둘째, 언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였다.

(2)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외적 형태의 정결을 통하여 내적, 정신적 정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다.

(3)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 예식은 레 12-15장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 '은전하여 흙이 없고 명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2절)

**㉠** (1) 이 암송아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요 19:17, 20).

(2) 특별히 '은전하여 흙이 없고 아작 명에 메지 아니한'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붉은' 색을 띤 암소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다.

(3) 한편 구약 시대에 속죄 제물로 희생되었던 암송아지는 그 효력이 1회적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암송아지의 깃털은 인간의 외적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의 전인격을 정결케 하신다.

3. **㉠** 제사장 엘르아살은 어떠한 사람인가? (3절)

**㉠** (1)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째 아들로써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이다.

(2) 그런데 그의 형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자 장자의 자격으로서 아론을 계승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다(참조, 3:4; 20:25-28; 신 10:6).

(3) 여기에서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시체의 관련된 부정에서 피해야 하기 때문에(참조, 레 21:10-12) 특별히 대신 지명되어 주검에 관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다.

4. **㉠** 암송아지를 진(陣) 밖으로 끌어내어 그곳에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희생 제물된 암송아지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여 제사장이 진 밖에서 잡았다(참조, 레 4:12; 6:11; 10:4, 5; 14:3; 16:27).

(2) 이처럼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예표한다(참조, 마 27:33; 막 15:22).

(3)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를 믿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히 13:11, 12).

5. **㉠** 제사장 엘르아살은 정결 의식을 위해 잡은 짐승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4절)

**㉠** (1) 그는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찍고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렸다.

(2) 여기서 피를 일곱 번 뿌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피뿌리는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피흘림이 완전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참조, 히 7:27; 9:12; 10:10, 12, 14).

(3) 이와 같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히 9:22).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행 4:12).

6. **㉠**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위하여 잡은 암소를 어떻게 하였는가? (5절)

**㉠** (1) 그는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했다.

(2) 여기서 암소 전체를 불사른다는 말은 완전한 희생을, 그리고 똥까지 불살랐다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희생을 더욱더 강조하는 말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되 완전하게 자신의 온 몸을 죽이셨다.

(4)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된 각자가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할 것을 보여 주는 교훈적인 의식이다(참조, 롬 12:1).

7. **㉠**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1) 그것은 백향목과 우슬초(午膝草)와 홍색실이다.

(2) 여기서 '백향목'은 쉽게 썩지 않는 나무로서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슬초'

와 '홍색실'은 백향목과 더불어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레 14: 4, 6, 49, 51, 52).

(3) 이와 같이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정결 의식에 이 세 가지를 집어 넣은 것은 이 의식을 영구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4) 그런데 이 상징적인 행위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8. **㉠** 암소 드리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 자는 누구인가? (7-10절)

**㉠** (1) 제사장, 불사르는 자, 재를 거둔 자로서 모두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다.

(2) 왜냐하면 그들은 희생 제물에 전가된 죄의 오염과 죽음의 부정을 입었기 때문이다.

(3)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大贖罪日)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이끌어 놓아 준 사람이 그 염소에게 전가(轉嫁)된 죄로 말미암아 부정을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참조, 레 16:26).

9. **㉠**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게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7-10절)

**㉠** (1) 이것은 죄로부터 씻음 받아 정결케 됨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참조, 8:21; 출 19: 10, 14).

(2)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흘 리신 물과 피로써 영혼과 몸을 씻음 받는다라고 묘사하였다(히 9:14; 10:22).

(3) 더우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의(義)의 옷을 입게 된다 (참조, 사 64:6; 롬 13:14; 갈 3:27).

10. **㉠** 시체 만진 자를 제 3일과 제 7일에 잿물로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13절)

**㉠** (1) 제 3일에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는 의식은 죄를 기억하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뿐임을 알게 하여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목적이 있다.

(2)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 견하고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참조, 갈 3:23-25).

(3) 제 7일의 의식은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된 것을 뜻한다.

(4) 이것은 오늘날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 완전하게 그 죄 로부터 정결케 되어 새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참조, 고후 5:17).

(5) 결국 이 두 번의 의식은 회개와 구원을 의미하며 제 3일과 제 7일의 의식이 서로 분리 될 수 없듯이 회개를 통한 구원은 분리될 수 없는 구속의 통로이다.

11. **㉠** 시체로 말미암아 두경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 가? (15절)

**㉠** (1) 흑자는 주검(시체)의 냄새가 두경을 덮지 아니한 그릇에까지 스며들어 갔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Keil).

(2) 즉 죽음이 죄의 삯이라는 뜻(롬 6:23)에서 주검의 오염이 그릇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3) 여하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멀리하라는 교 훈을 주기 위해서이다.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외적인 부정 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죄악까지 멀리하 려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다.

12. **㉠**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어떤 물을 마련했는가? (17절)

**㉠** (1) 제사장은 암송아지로 만든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준비하였다.

(2) 여기서 '흐르는 물'은 성령의 사역을 비유하는 것으로 암송아지의 재를 이 물에 넣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 온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

음을 예표한다(참조, 고전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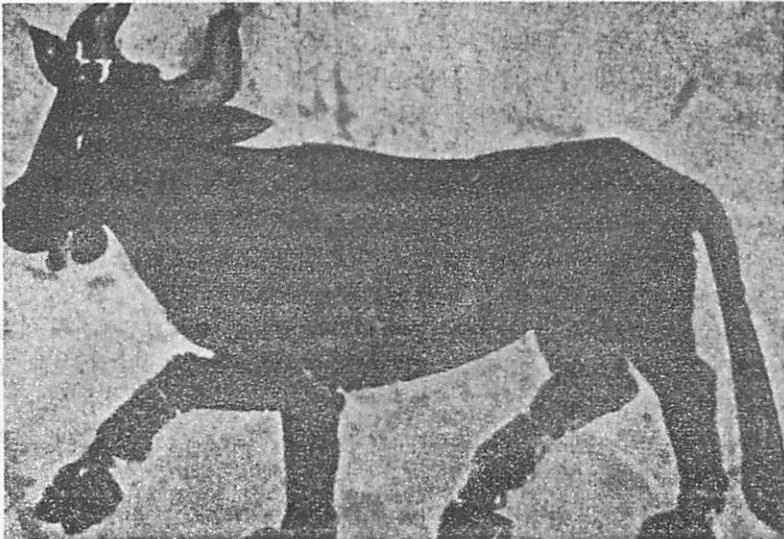
(3)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요 3:5).

**13. Q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할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20-22절)**

- A** (1)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율법이다(참조, 레 11:45).
- (2)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는 점이다.
- (3) 왜냐하면 의지가 약한 인간은 알면서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의 회개와 속죄 제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속성(屬性)에 의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하셨다(13절).
- (5) 이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 그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하고(고후 7:9, 11; 요일 1:8, 9)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참조, 고전 11:29-32; 요일 5:16, 17).

화보자료

붉은 암송아지. 아래 사진은 라이프찌히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14세기경의 그림이다.



암송아지는 성도들이 죄 씻음 받는 것을 뜻한다(요일 1:7-9).

# 제 20 장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실수

단락구분 1 모세의 누이이며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의 죽음 / 2-13 가데스 바네아에서 목말라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망으로 모세가 실수하다 / 14-21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과를 불허(不許)하다 / 22-29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다

1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 장사하니라

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 하였도다

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

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17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궁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18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 하겠고 우리나라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22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

23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24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 하리니 이는 너희가 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25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

르 산에 올라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 가리라

27 모세가 여호와와 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 은 회중 곧 이스라엘 은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1) 출애굽 후 제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은 회중은 바야흐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들어가 기 위하여 신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이르렀다.

(2) 이곳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으며 백성들은 물이 없었으므로 구세대처럼(14:1-4)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였다.

(3) 계속되는 백성들의 반항에 혈기로 맞섰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형 아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다.

(4) 본장에 언급된 사건들은 가데스 아니면 호르 산으로 진행되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들로서 엄격히 연대적인 순서를 좇아 집약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분류적인 순서를 좇아 집약된 것이다.

2. **㉠** 미리암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절)

**㉠** (1)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었다(참조, 출 15:20).

(2) 그녀는 민첩한 여성(출 2:7)이었으며 또한 정력적이고 예술적인(특히 음악) 여성(출 15:20, 21)이었다.

(3) 또한 그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으나(미 6:4) 야심을 품고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다(12:1, 2).

(4) 특히 여선지자로서 활동하기도 했다(출 15:20).

(5) 미리암은 가나안 입국 직전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죽어 그곳에 장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14:30).

3. **㉠** 가나안 입국 직전, 즉 출애굽 제 40년에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하였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2-5절)

**㉠** (1)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공박(攻駁)하였다.

(2)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신한 결과 멸망당한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3)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대신에 자신이 맞이한 나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버릇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의 생활(살전 5:18)을 강조하였다. 사실 넓은 시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4. **㉠** 모세와 아론을 공박(攻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평을 어느 지점까지 물고 갔는가? (3절)

**㉠** (1) 백성들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상태까지 물고갔다.

(2) 즉 그들은 가나안 땅에 보낸 12정탐군의 보고 사건 이후 약 38년 동안 계속된 광야 생활 중에 죽은 구세대 사람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꺼낼 정도로 어리석었다.

(3)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가나안 복지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묵살해 버리는 처사였으며 생명의 주인이 자신인 양 착각하는 교만이었다.

(4)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발언은 끝내 자신의 전인격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철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약 3:6).

5. **㉠**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였는가? (6절)

- ㉠** (1) 백성들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기도한 것을 뜻한다.  
 (2) 모세와 아론은 영적으로 어리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자 우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告)하고 그분의 해답을 기다렸다.  
 (3) 이와 같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신앙 지도자로서의 가장 탁월한 성품 중 하나였다(참조, 14:5; 16:4, 22, 45).

6. **㉠**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 지팡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7-11절)

- ㉠** (1)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顯現)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2) 이것은 앞에서 모세가 이적들을 행하여 왔던 바로 그 지팡이를 말한다(출 7:20; 14:16).  
 (3) 그러나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전달 수단으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뿐이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도하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의 사역은 그 자신의 초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7. **㉠**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심히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13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기를 반석에게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고 했을 뿐 치라고 하지는 않았다.  
 (2) 그러나 모세는 분노하여 자신이 물을 내듯이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시 106:32, 33).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거룩성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4) 예수께서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살인과 결부시켜 죄로 단정하셨다(마 5:21-26). 이와 같이 악한 감정에서 쏟아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8. **㉠**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1절)

- ㉠** (1) 갈증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을 것이다(참조, 고전 10:4).  
 (2) 이것은 또한 성령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요 7:38, 39).

9. **㉠** 모세에 대한 가나안 입국 불허(不許) 명령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이것은 지도자가 갖는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모세의 격앙된 감정 폭발은 온 몸을 바쳐 헌신한 평생의 사업에 대한 결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2)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적용하실 때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공평하게 적용하신다. 즉 지도자 모세에게는 과거의 커다란 공적이 있었으나 단지 실수로 인해 결국 징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개인적이고 비윤리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거짓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공의(公義)의 원칙이다.  
 (3)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늙은 지도자 모세를 이토록 급박한 지경까지 몰고간 백성들의 무지하고 흉악한 행동도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4) 따라서 성도는 지도자가 되든지, 지도자를 받드는 자가 되든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덕을 세워야 한다.

10. **㉠** 모세의 분노로 일어난 물은 무슨 물인가? (13절)

- ㉠** (1) 그 물은 '트리바 물'이라 불리워졌다.

- (2) 여기서 '므리바'란 '다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서 이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의 감격과 가나안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사소한 감정이 그들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짐을 서로 지어 줄 정도로 허물과 실수를 덮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갈 6:1-5).

11. **㉠**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使者)를 보내 전한 말은 무엇인가? (14-21절)

- ㉠** (1) 모세는 사자를 보내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 나라라는 것을 밝혔다(14절;창 33:1-7).
- (2)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음을 알렸다(15, 16절).
- (3) 그리고 에돔 지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17, 19절).
- (4)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이 요구를 묵살하였다(18, 20절).
- (5)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보하여 이 지역을 돌아서 갔다(21절;신 23:7).
- (6) 이와 같이 성도들은 사소한 일로 인해 불평하고 다툼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 화해하고 양보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히 12:14).

12. **㉠**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모세의 겸손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7-21절)

- ㉠** (1) 모세는 가나안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길을 통하여 쉽게 가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형제 민족(창 25:21-26)이었던 에돔을 설득하려 했다.
- (2)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이외의 땅은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하더라도 단 순히 통과해야 할 땅이었으며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 해도 그들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참조, 신 21:10).
- (3) 이처럼 성도의 삶은 영원히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적인 행진을 했듯이 모든 성도들은 다만 통과하는 나그네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벧전 2:11).
- (4)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 갈 때 우리는 허황된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더욱 겸손히 생활할 수 있다.

13. **㉠** 하나님께서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예언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2-26절)

- ㉠** (1)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얼마 후 모세의 임종에 대해 진술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을 인간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시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뚜렷하게 제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신 분이다(요 1:14).

14. **㉠**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 가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 (1) 므리바 물 사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레위인이 수행하는 제사장직의 불완전성을 말해 주고 있다. 즉 그 제사장들은 죄와 죽음 때문에 그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었다.
- (3)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는다(참조, 히 7:24).
- (4) 그러므로 123세(출애굽 제 40년 5월 1일)에 죽은 아론의 죽음(33:38, 39)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모든 영예를 양보해야 했다(참조, 히 7: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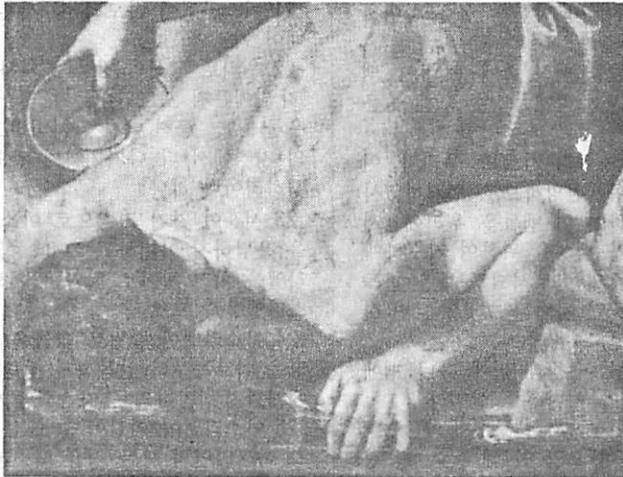
(5) 보통 애도 기간은 7일(창 50:10;삼상 31:13)이었으나 아론과 모세의 경우(신 34:8)에는 각각 30일간을 애도했는데 이는 국장(國葬)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29절).

15. **㉠**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려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가? (26, 28절)

- ㉠** (1) 여기서 옷은 대제사장의 성의(聖衣)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다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엘르아살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이와 같이 제사 수행을 위해서만 특별히 입는 옷인 대제사장의 성의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는 필수 요건이었다(참조, 출 28:2, 3, 43;29:29).  
 (3)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꼭 갖추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입혀진 의(義)의 옷을 예표한다(참조, 마 22:11-14).

### 화보자료

므리바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 아래의 사진은 브론찌노의 그림으로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낸 물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출애굽 후 가데스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므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지시하셨다(8절).

## 제 21 장 불뱀과 뱀뱀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정복

단락구분 1-3 호르마에서 아랏 왕을 정복하다 / 4-9 불뱀의 재앙과 뱀뱀의 치유 기적 / 10-20 호르 산에서 비스가 산까지의 행진 / 21-32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다 / 33-35 바산 왕 옥을 정복하다

1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10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11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 들는 편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쳤고

12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13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는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는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14 이러므로 여호와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는 골짜기와

15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

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16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17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8 이 우물은 족장들이 뿔고 백성의 귀인들이 흠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20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21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22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23 시혼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암복까지 점령하여 암논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논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25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26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는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27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읊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

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29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30 우리가 그들을 쫓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3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32 모세가 또 보내어 야셀을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물

아 내었더라

33 들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5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벗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약속의 땅의 가장자리에 도착하게 되었다.
- (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뱀을 통해 내려졌다.
- (3)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계획은 결국 실현시키셨다. 이런 의미에서 본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승전(勝戰)이 기록되어 있다.

## 2. ㉠ 아랏 왕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했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라고 서원했다.
- (2)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1인칭 단수로 자기들을 지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다.
- (3)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점에 도달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모세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 (4)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응답을 하신다(3절).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유(赦宥)하기를 즐기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 준다(참조, 출 34:6; 시 86:5).

## 3. ㉠ 아랏과의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3절)

- ㉠ (1) 가나안 족속 중의 하나인 아랏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을 막아보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급습하여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
- (2)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불의의 세력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간절한 합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을 방해하던 아랏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
- (4)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에게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라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후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4. ㉠ '호르마'란 무슨 뜻인가? (3절)

- ㉠ (1) '호르마'란 '파멸' 또는 '저주'라는 뜻으로서 아랏의 도읍에 새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므로 아랏 족속과 그 성읍들을 멸할 수 있었다.

(3)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파(破)한 아랏 지역에 호르마란 이름을 붙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다.

5. ㉠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진 백성들이 보여 준 신앙 생활의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음이 짝아졌다', '안목(眼目)이 좁아졌다'라는 의미이다.
- (2) 즉 보다 큰 최종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눈 앞에 보이는 고통 때문에 근시안(近視眼)적으로 된 것을 말한다.
- (3) 우리 성도들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실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때일수록 더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마음이 짝아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 (4) 신약 성경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참되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에 동참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참조, 마 5:10-12; 빌 3:10; 골 1:24; 딤후 1:8; 2:3, 11, 12; 계 2:10).

6. ㉠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薄)한 식물도 싫어하노라'라고 원망하였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광야로 이끌어 내었다고 불평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였다.

7. ㉠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받게 하였으며 또 죽게 만들었다.
- (2) 신 8:15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 생활은 불뱀들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뱀의 해(害)로부터 지켜 주셨다.
- (4) 그런데 이제 그들이 원망하게 되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피하던 짐승으로 하여금 그곳에 몰려들어 그들을 물게 하였다.
- (5)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인간을 심판하신다.
- (6)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8. ㉠ 불뱀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7절)

- ㉠ (1)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백성들은 즉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해 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했다.
- (2)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행하시는 회유(懷柔)의 채찍으로써 범 죄의 길로부터 돌아오도록 하신다(참조, 계 3:19).
- (3)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들의 회개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 (4)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있는 후에도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 (5) 하나님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이처럼 징계와 항복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간교한 죄인들은 이 관계를 파괴하여 스스로 추한 멸망을 자초하

고 있다.

9. **㉠**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은 놋뿔은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되는가? (8, 9절)

- ㉠** (1) 그 당시 놋뿔은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요 8:34; 롬 6:23) 우리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었다(요 14:6; 행 4:12).
- (2) 장대 위의 놋뿔은 살아서 독을 쏟았던 불뿔을 처형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마 27:46; 갈 3:13).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사단을 패배시킨 승리의 상징으로 선포되었다(골 2:15).
- (3) 백성들이 불뿔의 독에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놋뿔을 쳐다보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사단으로 상징되는 옛 뱀(계 12:9)에게 물려 죄와 죽음의 독에 고통하는 모든 인간들은 놋뿔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요 3:14, 15).
- (4) 이처럼 그 당시 불뿔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만든 놋뿔을 바라본 자는 모두 회복될 수 있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거나 미련한 것으로 취급한다(고전 1:18).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다(사 45:22).

10. **㉠** 모세가 만든 놋뿔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9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보관해서 가나안 입국 때 가지고 들어갔다.
- (2) 그 놋뿔은 히스기야 왕 이전까지 보존되었는데 히스기야 때에 와서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왕하 18:4).
- (3)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뿔 앞에서 분향하는 등 미신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이용된 사람과 물건 등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양 무릎을 꿇곤 한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다(참조, 출 20:3-5).

11. **㉠**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봇에서 비스가 산까지 진행하며 진(陣)쳤던 장소는 어느 곳인가? (10-20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는 건너편, 브엘, 맛다나, 나할리엘, 바뭇, 비스가 산의 순서로 진행하며 진쳤다.
- (2) 이 부분은 호르 산(20:22)을 출발하여 홍해 광야 길(4절)을 우회(迂廻)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스가 산(20절)까지 여행한 행군 노정을 가리킨다.
- (3) 이 같은 여행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순간의 거처로서 머물 뿐이고,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진다.

12. **㉠** 여호와와의 전쟁기(戰爭記)는 무엇인가? (14, 15절)

- ㉠** (1) 여호와와의 전쟁기란 수 10:13과 삼하 1:18에 언급되어진 야살의 책과 함께 알려지지 않는 고대의 두 책 중 하나이다.
- (2) 이 책이 여기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 대적과 싸우는 가운데 거둔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모아 놓은 책인 것 같다.

13. **㉠** 브엘에서 우물물이 솟아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16-18절)

- ㉠** (1) 브엘의 우물물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요 10:10).

- (2)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즉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줄곧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근원이 되어서 끝없는 기쁨을 허락하신다(참조, 요 4:14; 7:37, 38).
- (3) 또한 이 우물물은 성령을 가르키기도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 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內住)케 하시므로 심령을 만족시키는 생명수가 되게 하셨다(참조, 요 14:16, 17, 26).

14. **㉠**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使者)를 보내어 화친(和親)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21-2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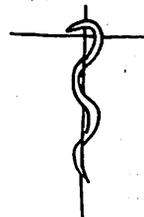
- ㉠** (1) 아모리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이미 이른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창 15:16; 신 20:16-18).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평화를 전한 것(신 2:26)은 단순히 운명의 결정권을 시혼의 손에 쥐어 주기 위해서였다.
- (3)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하였으므로(23절)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이겼다. 이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 (4) 왜냐하면 시혼 왕국은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단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다(27-29절).
- (5)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되어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하였다(참조, 수 2:8-11).
- (6)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15. **㉠**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이스라엘을 격려하셨는가? (33-35절)

- ㉠** (1)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하나님)가 옥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네(이스라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다.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이스라엘이 종종 어려운 환경이나 외부의 위협이 닥칠 때마다 주어졌다.
- (3)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증거이며 믿음의 내적 현상이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참조, 마 28:20; 요 16:33).
- (5)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아모리 왕 시혼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기선(機先)을 제압하였다(참조, 수 2:8-11).

본장의 요절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9절).



## 제 22 장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다

단락구분 17-6 발락이 발람을 부른다 / 7-14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청을 거절하다 / 15-20 발락의 두번째 초청에 발람이 응하다 / 21-30 천사의 출현과 나귀의 책망 / 31-35 발람을 향한 천사의 분부 / 36-41 발락이 발람을 환영하다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2 심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때에 심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라

5 그가 사자를 브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6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이니라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슬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심불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

니하시느니라

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15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데려 많이 보내매

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심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도 거리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달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 보리라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22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23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6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있드려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을 때리도뇨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31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었드려니

32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 나귀가 나를 보고 아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때가 네게 이르러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36 발람이 발람의 온다 합을 들고 모압 변경의 끝 이르러는 기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37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38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인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39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가랏 후숫에 이르러서는

40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41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이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1) 모압 왕은 자기 영토 즉 가나안 땅 문턱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공연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이방 신의 도움으로 저주하며 물리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브돌에 사람을 보내어 복술자(卜術者) 발람을 청했다.
- (2) 주문의 힘(특히 공식적인 축복과 저주)이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이 시대에는 이런 복술자들의 행위가 일상적이기도 하였고 또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끼쳤다.
-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함으로 해서 출애굽 이후 요단 강을 건너기까지의 광야 행진은 끝이 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 2차 인구 조사(26장), 모세의 죽음 등 대사건이 일어났다(산34장)
- (4)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도 바로 이곳에서 행한 모세의 선포이다. 그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므로 출애굽 40년 생활은 막이 내리게 된다.

2. ㉠ 이스라엘을 사악한 이방 종교의 저주 방법으로 대적하려 했던 발락의 우매(愚昧)한 점은 무엇인가? (2-6절)

- ㉠ (1)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선민(選民)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 (2)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려는 악한 계획으로서 이 세상의 군주인 사단(요 12:31; 16:11; 엡 6:12)이 그 배후 조종자이다.
- (3) 발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물질과 권력을 사용하였다(7절). 즉 물질과 명예를 사용하여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케 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의 구렁이에 빠지게 했다.

(4) 이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과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유혹했던 방법과 유사하였다(마 4:1-11).

3. **㉠ 모압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3, 4절)**

- ㉠** (1) 모압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다.  
 (2)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큰 딸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을 말한다(참조, 창 19:30-38).  
 (3) 모압 족속은 사해와 요단 동편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접촉을 가졌다(참조, 신 23:4-6; 수 13:15-28; 삼하 8:2, 12; 사 15:1-11).  
 (4) 특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롯도 모압 여자였다(참조, 롯 1:4).

4. **㉠ 미디안 장로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

- ㉠** (1) 이들은 모압 족속의 거주지 근처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족장들을 가리킨다.  
 (2) 이들은 모압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영토로 진입해 오는 이스라엘을 미신적인 힘으로 패퇴시키려 하였다(5, 6절).  
 (3) 그러나 그들의 어설픈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전멸하고 만다(31:1-12).  
 (4) 이와 같이 악한 세력과 규합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은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5. **㉠ 발람의 이름과 행적에서 볼 수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7-14절)**

- ㉠** (1)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탐닉하는 자' 또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이다.  
 (2) 그의 이름처럼 발람은 22-24장에 걸쳐 계속해서 책망받으며 심지어 나귀의 충고까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네 차례나 시도하였다(22:41-23:10, 13-24, 27-30; 24:15-24).  
 (3) 또한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사용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삿군 목자들 같았다(참조, 요 10:11-13).  
 (4) 여기서 삿군 목자들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겉으로 경건이라는 옷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허위와 욕망으로 가득차 있는 자들이다(참조, 마 7:15).  
 (5) 이처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의의 일군으로 가장해서 백성들을 미혹케 하여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한다(참조, 마 7:22; 고후 11:15).

6. **㉠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인가? (7-14절)**

- ㉠** (1) 발람은 '강변 브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명한 복술가(卜術家)였다(신 23:4).  
 (2)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가 된 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수 13:22에 사용된 그의 직함인 '술사' (히, 싸캄)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지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단순한 점장이에게 사용된 명칭이다.  
 (3) 이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종교계의 흐름이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 성도들은 그들의 설득에 현혹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한다.

7. **㉠** 발람이 복술(卜術)의 예물을 가져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돌려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유숙(留宿)하도록 권한 이유는 무엇인가? (7-14절)
- ㉡** (1) 여호와께서 발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함이었다(8절).  
 (2) 만일 발람이 여호와와 참 선지자요 신실한 종이었다면 당장에 그는 발람의 사자들이 요청한 내용을 거절하고 돌려 보냈어야 했다.  
 (3)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발람은 불의의 삯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패한 그의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5)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악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딤펴전 6:10).
8. **㉠** '복술의 예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복술의 예물'이란 점술을 행한 대가로 주는 일종의 복체(卜儀)를 가리킨다.  
 (2) 이처럼 인간들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앞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물질과 정력을 쏟아 붓는다.  
 (3)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안녕을 위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앞날을 망쳐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참조, 롬 1:18-32).
9. **㉠**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인가? (12절)
- ㉡** (1) 이것은 진정한 저주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신 30:19).  
 (2) 따라서 거짓 선지자의 저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의 저주하는 말까지도 막으셨다.
10. **㉠** 물질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결심은 진심이었는가? (15-20절)
- ㉡** (1) 여기 표현된 발람의 말은 그가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한 말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했던 말이다(참조, 시 78:36).  
 (2)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히 발람의 청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으나(12절)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 보겠다고 하였다(19절).  
 (3)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도록 명하셨지만(20절) 돈을 사랑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셨다(22절).  
 (4) 이와 같이 거짓 신앙인들은 물질과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참조, 딤펴후 3:13).
11. **㉠**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는 명령(12절)과 가라는 명령(20절)을 주셨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2,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돈과 명예에 미혹되어 계속 당신의 뜻을 거역하자 발람에게 일단 가도록 허락하셨다.  
 (2) 혹자는 이 부분의 모순을 이렇게 극복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放任)하셨다고 한다(Calvin).  
 (3) 여하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0절)는 단서를 붙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왜 가도록 허락하셨는지 더욱 잘 알게 해준다.  
 (4) 즉 발람은 모압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했던 것이다.

12. ㉠ 본장에 나타난 발람의 행위가 나귀보다 못한 점은 무엇인가? (21-35절)

- ㉠ (1) 미물에 불과한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나 초자연적인 세계와 교통한다고 자부하는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책망하였다.
- (2)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발람에게 나귀는 책망했다(28, 30절).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동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 (3) 발람은 나귀로 인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즉 나귀는 발람에게 생명의 은인(恩人) 같이 되었다(33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고야 말 것이다(참조, 눅 15:11-16).

13. ㉠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신 후 그의 사자를 보내어 가는 길을 방해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1-27절)

- ㉠ (1)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전혀 모르면서 자기 자신의 말만을 외치고자 곧 서둘러 길을 떠났다.
- (2)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뜻을 버리고 돈과 명예에 끌려 행동하는 거짓 예언자를 가증히 여기시므로 가는 길을 방해하셨다.
- (3) 즉 떠난 것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마음과 태도에 대해 진노하신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참조, 삼상 16:7; 벰전 1:17).

14. ㉠ 첫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나귀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23절)

- ㉠ (1)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 (2) 발람은 여기서 어떤 압시를 깨달아야만 했다. 즉 자신이 지금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했다.
- (3)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귀를 길로 돌리키려고 채찍질하였다.
- (4)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로 무모하게 즐달음치는 자들은 그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막으려는 이들에 대해 오히려 화를 낸다(참조, 천 10:12).

15. ㉠ 두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나귀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24, 25절)

- ㉠ (1) 나귀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였다.
- (2)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다고 하면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때가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고나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 (3)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우선 우리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16. ㉠ 세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나귀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26, 27절)

- ㉠ (1) 나귀가 발람의 밑에 엎드렸다.
- (2) 이렇게 나귀가 전에 없었던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발람은 특별한 뜻을 찾아야 했지만 오히려 나귀를 때렸다.
- (3) 이와 같이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굳혀진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놓아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부수고 멸망으로 치달는다.

17. ㉠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발람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 (34, 35절)

- ㉠ (1)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의 사자들과 함께 계속 가라고 명령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

님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알리게 하시려는 의도였다.

(3)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발람을 미디안 다섯 왕과 함께 처형하였다(31:8, 16).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패망의 길로 치닫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위해 멸망의 날을 예비하신다(참조, 롬 12:20).

**18. C 물질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발람에게 갔던 발람의 행위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6-41절)**

**A** (1) 우리들의 삶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상의 유혹(요일 2:16)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수많은 육체적 소욕들(갈 5:16, 17, 19, 20)이 있다.

(2)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참조, 롬 7:14, 15, 18, 1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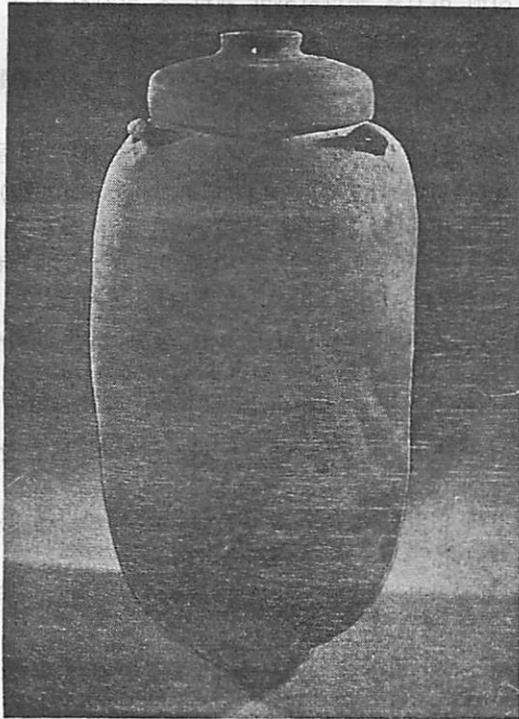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 즉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도우시며 그 능력을 힘입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갈 5:16, 17, 25).

(4)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엡 4:30; 살전 5:19)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의지대로 놓아 두신다.

(5) 이와 같이 방임되어진 자유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롬 14:11, 12; 고전 5:10).

**화보자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를 보관했던 항아리. 쿰란 동굴 발굴시에는 점토로 구워 만든 먹물통과 더불어 성경 두루마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림과 같은 항아리와 항아리의 파편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성경 원전 연구에 있어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사해의 석회석 암벽의 천연 동굴 속에 보관하셨다.

## 제 23 장 발람의 예언 노래

단락구분 1-6 발람과 발락이 일곱 제단을 쌓다 / 7-12 발람의 첫번째 예언 노래와 발락의 불평 / 13-17 발람과 발락이 두번째 일곱 제단을 쌓다 / 18-26 발람의 두번째 예언 노래와 발락의 불평 / 27-30 발락이 브을 산 꼭대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다

1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하매

2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3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흑시오서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 난 산에 이른즉

4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일곱 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5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6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7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9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본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11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12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13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14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15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16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라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17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18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심본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 여호와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2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낯선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24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25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26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

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28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을 산 꼭대기에 이르니

29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30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당시에 동방(東邦)의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보호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 (2) 특히 갈대아인들은 제사와 제물을 통한 간구로 말미암아 재난을 피하고 매사에 축복과 형통(亨通)을 얻고자 하였다.
- (3) 발람도 여기에서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신 23:4)의 풍습대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다.
- (4) 이방 신들은 큰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역사에 대한 전망, 윤리 의식은 전혀 갖지 않고 바쳐지는 제물에 따라 움직이는 지극히 유치한 신들이었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들의 뇌물에 가까운 제물에 헛되이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시고 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2. **㉠ 일곱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4절)**

- ㉠** (1) 여기서 일곱이라는 수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도 완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수자로 사용되었다. 한편 일곱 제단을 쌓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제사의 풍습이었다.
- (2) 이처럼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유권을 이루기 위해 일곱 제단을 쌓았다.
- (3) 즉 그들은 이방인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협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는 모순에 빠졌다.
- (4) 이와 같은 헛된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3. **㉠ 발람이 사태(沙汰) 난 산에 오른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3절)**

- ㉠** (1) 당시에 이교의 복술가들은 항상 그들의 신을 접(接)하거나 점괘(占卦)를 얻기 위해서 전망이 넓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산꼭대기 암벽 위나 별거승이가 된 장소를 찾는 관습이 있었다.
- (2) 이렇게 사면이 열려 있는 장소에 올라간 것은 다양한 피조물들이 나타내 보이는 신적 계시를 찾기 위해서였다.
- (3) 만약 표적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면, 즉 자연 현상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 (4)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통한 계시(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무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4. **㉠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제사 방식으로 드러진 발람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이 아니다.
- (2) 오히려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축복을 더욱 뚜렷이 하시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발락과 발람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지 않았다.
- (4)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을 발람의 입에 주셨으며 또 그 말씀을 모아 왕 발락에게 가서 고하라고 명하셨다.
- (5)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마음의 계획이 비록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주셨다(잠 16:1).

5. **㉠**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실 때 발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냐 말했다는가? (4절)

- ㉠** (1) 발람은 '내가 일곱 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라고 하였다.
- (2) 발람은 이방 종교에서의 제사 의식을 통하여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생각하였다.
- (3) 즉 그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줄 모르고 이방 잡신의 하나처럼 바쳐진 제물을 기뻐하셔서 찾아 오신 줄 알았다.
- (4) 이처럼 하나님께 짐승 몇 마리를 바치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은 엄청난 독신(濟神) 행위였다.
- (5) 물질 만능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하여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보겠다는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

6. **㉠**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의 마음이 물질적인 탐욕으로 젖어 있었음을 알고 계셨다.
- (2)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기 보다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뱉으셔서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차 있는 발람의 마음을 저지하셨다.
- (3) 그리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 (4) 즉 그는 전인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만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 (5) 그러나 이 말은 주의 신실한 종들이 자신의 의지는 겸손히 묶어두고 오직 자신이 기계처럼 쓰여지길 원하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해달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참조, 출 4:15; 렘 1:9; 겔 3:27).

7. **㉠** 발람이 노래한 예언의 요지는 무엇인가? (7-10절)

- ㉠** (1) 먼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민족과는 구별된 민족이다(7-9절).
- (2) 두번째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므로 그가 볼 수 있는 것에서 4분의 1조차도 셀 수 없을 정도이다(10절).
- (3) 마지막으로 발람 자신도 죽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랐다(10절).
- (4)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것이다.
- (5)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입까지도 제어할 능력이 있다.

8. **㉠** 발람의 노래 중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라는 말이다.
- (2) '홀로' 라는 말은 고립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월성을 강조한 말이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열방들과는 다른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우월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특수성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 (5) 그리고 이 특수성과 우월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9. **㉠** 야곱의 티끌은 무엇을 뜻하는가? (10절)

- ㉠** (1) 야곱의 티끌이란 야곱의 후손을 의미한다.

(2)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티끌같이 번성할 것을 의미한다(창 12:2).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성은 불변하셔서 비록 인간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반역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10. **㉠** 발람의 노래 중 의인의 죽음이라는 말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절)

**㉠** (1) 의인의 죽음이란 그 삶의 시작과 끝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구별되며 더우기 그 과정도 확연히 다르다는 뜻이다.

(2) 의인의 삶은 의를 위하여 날마다 육을 죽이면서 살아 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참조, 고전 15:31; 고후 4:11).

(3) 의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고후 2:16)가 발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후 4:12).

11. **㉠** 의인의 죽음같이 죽겠다던 발람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신앙 생활의 교훈은 무엇인가? (10-15절)

**㉠** (1) 여기서 참 믿음은 흥분 상태에서 발하는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가리켜 씨뿌리는 비유에서 잘 말씀하셨다(마 13:5-8; 막 4:3-8; 눅 8:5-8).

(2)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기쁨을 구하여야 하겠지만 그 기쁨에는 말씀의 윤리적 실천과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다.

12. **㉠**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발락은 발람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13-15절)

**㉠** (1)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산으로 올라갔다. 이 비스가 산은 때때로 느보 산과 동일시 된다(신 34:1).

(2) 여기서는 사해의 북동단을 향해 떨어 있는 산맥을 말한다. 그 중 느보 산은 최고봉이다. 이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의 또 다른 부분을 보았다.

(3) 발락이 이처럼 높은 산으로 발람을 데려온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너무 장대해서 집을 먹었기 때문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4)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눈 앞에 보이는 원인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보면 그 실패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랑하여 반역을 거듭하는 발람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5, 16절)

**㉠** (1)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즉 의인들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악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2) 즉 구원의 혜택은 일부만 받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3)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 기계처럼 발람을 사용한 것뿐이지 발람 자신을 축복한 것은 아니다.

(4) 즉 발람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 후에는 발람 자신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어 그가 제 욕심의 대가로 멸망받게 하셨다.

(5)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 단지 그가 본래 받을 멸망에 내어두신 것뿐이다(참조, 롬 9:20-24).

(6)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4. ㉠ 발람이 두번째 노래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18-24절)

- ㉠ (1) 첫째, 발람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에 대해 노래하였다(19절).  
 (2) 둘째,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20절).  
 (3)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어떤 세력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다고 하였다(21-24절).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다(참조, 창 12:2).  
 (5)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방인의 사술로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었다.

15. ㉠ 하나님께서 야곱(이스라엘)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았던 사실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악하고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수많은 죄악을 범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참조, 렘 50:20).  
 (3) 이와 같이 오늘날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구원해 주신다.  
 (4)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써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과거의 1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역의 효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히 9:12; 10:12, 14).

16. ㉠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는 거듭되는 계획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27-30절)

- ㉠ (1)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발락은 자기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2) 그래서 그는 술사(術士) 발람을 불러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  
 (3) 이것은 이방 종교 특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4) 우상 숭배자는 윤리나 공의와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우상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소기(所期)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5)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 본장의 요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8절).

# 제 24 장 야곱의 별에 대한 발람의 예언

단락구분 1-9 발람의 세번째 예언 노래 / 10-14 발람과 발람의 논쟁 / 15-24 발람의 네번째 예언 노래 (야곱의 별에 관한 예언) / 25 발람이 헛되이 돌아가다

1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슬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낫을 광야로 향하여

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3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엿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5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6 그 벌어진이 끝까지 갈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7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 끊어 앓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10 발람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여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11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12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13 가령 발람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4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15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엿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흙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

로다

18 그 원수 예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

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20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21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22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23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숄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에 살 자가 누구이라

24 갓뎀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던 발락과 발람의 모략이 좌절된 이야기가 계속되며 나아가서 그 결말을 전해 준다.
- (2) 이 같은 좌절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 주신 능력과 그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실증(實證)이다.
- (4) 또한 본장은 여호와와 전쟁기(戰爭記)에 나타난 승리의 기록이다.

2. **㉠** 발람이 사술(邪術)을 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것은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 인격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거짓된 자세였다.
- (2) 또한 이것은 발람의 탐욕에 찬 열망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체념한 것을 말한다.
- (3) 본래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것조차도 발람에게는 능력 밖의 일이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의(自意)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참조, 요 10:18).

3. **㉠** 하나님의 신이 발람 위에 임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은 그의 사역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만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 위에 임한 것이다(참조, 삼상 19:24).
- (2)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당신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서 계획대로 수행해 나가신다(참조, 출 31:2, 6).
- (3) 그러나 이처럼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內住)하시는 성령의 사역과는 전혀 다르다.
- (4) 왜냐하면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내주를 말하기 때문이다(참조, 요 14:16, 17).

4. **㉠** 발람이 예언의 노래를 할 때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하였는가? (3, 4절)

- ㉠** (1) 발람은 자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異像)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발람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자라고 거듭 말하였다.
- (3) 결국 그는 성령에 이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
- (4) 그러므로 성령은 의인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 발람이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은 자라고 했던 반면 눈을 뜬 자라고도 했다. 이처럼 서로 대조되는 귀절을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이것은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심령의 눈은 밝히 떠서 진리를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 (2)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자신의 영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시 119:18).
- (3) 오늘날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참조, 요 14:26).

6. **㉠** 발람이 삭막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묘사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5, 6절)

- ㉠** (1) 발람이 본 이스라엘 진영의 영광과 그 위엄은 삭막한 광야에서 안식과 풍요를 공급하

는 골짜기 같았으며 비옥하고 화려한 강가의 동산처럼 보였다(5, 6절).

- (2) 이와 같은 발람의 묘사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비록 광야의 나그네된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곧 축복된 자들이라는 표현이다.
- (3)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표현이기도 하다.
- (4)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비록 현실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생을 사는 자들이다.

7. **Q**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물이 풍부할 것이라고 묘사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7절)

- A** (1)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족 특히 그들이 받을 자연 혜택의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 지역이라서 물이 귀했기 때문이다(참조, 11:3).
- (3)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풍부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고 공급하신다(참조, 시 23:2).

8. **Q** 아각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 A** (1) 아각은 아말렉 왕들의 별칭이다(삼상 15:8, 32, 33). 즉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불리우고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라 칭하여졌던 것과 같다.
- (2) 발람은 그 당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아말렉의 왕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번창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였다.

9. **Q** 발람이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저주를 받을지라도'고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언약을 다시 언급한 말인가? (9절)

- A** (1) 이 예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재표현이었다(창 12:3).
- (2)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오는 축복과 저주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언약의 재현이다.
- (3)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체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당신의 권위를 대행(代行)하는 자들로 삼으셨다.
- (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은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하셨다(참조, 벧전 2:9, 10).

10. **Q** 발람이 발람에게 손뼉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행동인가? (10절)

- A** (1) 손뼉을 치는 것은 격노의 표시였다(참조, 욥 27:23; 겔 21:17).
- (2) 손뼉을 치면서까지 흥분한 발람은 발람에게 이제 보기조차 싫으니 네 갈 곳으로 가버리라고 말하였다.
- (3) 발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입에 말씀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발하였다.
- (4) 이와 같이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이다(잠 15:5).

11. **Q**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한 내용은 무엇인가? (15-24절)

- A** (1)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17절).
- (2) 두번째로 이스라엘이 모압,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에게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17-21절).
- (3) 세째로 가인 족속이 앗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하였다(21, 22절).
- (4) 메소포타미아 지역(깃딤)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앗시리아와 에벨(히브리인)을 괴롭힐 것을 예언하였다(24절).

12. **㉠** 한 별이 아람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7절)
- ㉠** (1) 성경에서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표상(表象)으로 언급되었다 (참조, 마 2:2; 계 22:16).
- (2) 또한 홀이란 지도자나 왕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를 말한다 (참조, 창 49:10).
- (3) 그러므로 별과 홀은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4) 이와 같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또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참조, 삼하 7:12-16; 렘 30:9; 겔 34:24; 37:24; 호 3:5).
13. **㉠** 소동하는 자식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7절)
- ㉠** (1) 이것은 천국의 시민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 (2) 이 소동하는 자식들은 발람의 예언처럼 한 별, 즉 홀이 나타나므로 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 (3)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뜻한다 (참조, 마 3:10, 12; 요 3:18, 19).
14. **㉠** 남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9절)
- ㉠** (1) 에돔 족속들 중에서 멸망받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
- (2) 영적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
15. **㉠** 가인 족속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1절)
- ㉠** (1) 이 족속이 가나안의 겐 족속(창 15:19)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미디안의 겐 족속(삿 1:16; 4:11)을 뜻하는지는 구분지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 (2) 그러나 뒤에 연결된 내용(22절)으로 보아 모세의 처가인 이드로 집안이 속해 있는 미디안의 겐 족속인 듯하다.
- (3) 그런데 이 족속은 나중에 앗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22절) 또 앗시리아는 기딤 해변에 있는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다(24절).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신다.
16. **㉠** '에벨'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3절)
- ㉠** (1) 에벨은 셈의 증손자이며 아브라함의 7 대조이다(창 10:21; 11:14-26). 여기서 말하는 에벨은 에벨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 (2) 한편 발람은 에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브로 섬 근방에 있는 해변 족속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3)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고난과 그 고난 이후의 승리를 예견하는 말이다.

### 본장의 요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11절).

# 제 25 장 시므리와 고스비가 처형되다

단락구분 1-5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처형 명령 / 6-9 비느하스가 공의로 범죄자를 처단하다 / 10-13 비느하스 후손에게 약속된 대제사장직 / 14-15 처형당한 두 남녀의 이름 / 16-18 하나님께서 주신 미디안 정복 명령

1 이스라엘이 잇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3 이스라엘이 바알브음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음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을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투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7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18 이는 그들이 궤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브음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브음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 하였음이니라

## 1. ㉠ 본장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발람의 저주에서 지켜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과 이교(異敎)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 (2) 즉 모압 평지의 잇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음란한 제사 의식에 빠져 들었다.
- (3) 이것은 모압과 동맹했던 미디안 왕들이 모압 왕의 충고자와 협조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고자 계획했던 일이 실패한 후에 생긴 일이다.
- (4) 본장의 기록 목적은 이방 족속들의 부패한 모습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부패한 종교와 행습(行習)을 받아들여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 2. ㉠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잇딤의 위치는 어디인가? (1절)

- ㉠ (1) 잇딤은 '아카시아 나무' 라는 뜻으로 모압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22:1).
- (2) 33:49에서는 이 지역을 아벨잇딤(아카시아의 초원)으로 묘사되었다.

- (3) 또한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이다 (참조, 수 2:1).
- (4) 그리고 이곳은 모세가 신명기에 언급된 모든 고별 설교와 율법을 전승(傳承)한 곳이기도 하다.

3. **㉠**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러 있을 때 범한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1-3절)

- ㉠** (1) 음행(淫行)과 우상 숭배였다.
- (2)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는 대부분 난잡한 성 행위를 그 의식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었다.
- (3) 그런데 이스라엘을 유혹한 모압 여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권유하지 않았다.
- (4) 모압 여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음란한 잔치에 초대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였다(2절).
- (5)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들은 양심이 마비되고 타락하여 거기에 만족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

4. **㉠**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附屬)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바알브올'이란 '브올 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부속되었다'는 말은 '함께 어울려 지냈다'는 의미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가 이방 신의 노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3) 또한 바알브올이란 브올 지방의 바알이란 뜻도 있는데 특히 다산(多産) 또는 아들을 낳게 해주는 모압 땅의 지방 신으로 알려졌다(신 4:3).
-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 (5)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약속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쾌락에 유혹되어 멸망의 길로 그 발걸음을 옮겨 놓는 자들이 많다.

5. **㉠** 여호와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4절)

- ㉠** (1) 백성의 두령(頭領)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는 것이었다.
- (2)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 중 평민들은 단순히 염병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으나(8절) 백성들의 지도자인 두령들은 교수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
- (3) 왜냐하면 존경받는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가(加)하였다.
- (4)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책임과 권리의 양면을 동시에 조화시킨다.

6. **㉠**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으므로 공의로우신 당신 앞에서 처벌을 받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 (2)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징벌을 죄인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는 말이다.
- (3) 한편 이스라엘 내에서는 목매어 다는 형벌(교수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율법에도 이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목매어 달라'는 명령은 다른 방법(칼 등)으로 사람을 죽인 다음 시체를 나무에 매라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
- (4)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7. **㉠**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염병이 퍼졌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은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회개하는 한 모습이었다.
- (3) 이것은 교만하고 가증한 죄를 자행하다가 이처럼 육체적인 형벌을 당해야만 그 죄를 깨닫는 어리석은 인간성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8.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백성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6절)

- ㉠** (1) 이것은 음욕에 눈이 먼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 (2) 즉 민족의 공동 문제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욱 중요시하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의 행동이다.
- (3) 바로 눈에 보이는 백성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양심은 가히 화인(火印) 맞은 양심이라 할 수 있다(참조, 딤펴전 4:2).
- (4) 결국 그는 백성들 앞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8절).

9. **㉠**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발생했던 염병이 어떻게 그쳤는가?(8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징벌로 내려진 염병을 그치게 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그 회개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회개가 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 (2) 그러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에 의해서 그 염병은 그치게 되었다.
- (3) 왜냐하면 비느하스의 정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11절).
- (4)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으로 비느하스 가족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다(13절).
- (5) 이와 같이 죄를 마워하고 정의를 보호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된다(참조, 시 76:10).

10. **㉠** 하나님의 질투심은 어떻게 해서 그쳤는가? (11절)

- ㉠** (1)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다.
- (2) 즉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했다.
- (3) 한편 음행은 우상 숭배나 다름 바 없었기 때문에(참조, 레 20:6;문 3)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셨다(출 20:3-5).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할 때는 질투심을 발하시면서까지 백성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신다.

11. **㉠**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당신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 (2) 이 언약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공로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은 평화의 언약은 죄의 세력을 파멸시킨 후에(8절)만 성취되는 값진 언약이다.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수립하셨다(참조, 마 26:28; 요 6:56; 19:34).

12. **㉠** 하나님의 질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공의(公義)와 사랑을 말하라(13절).

- ㉠** (1)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 ‘당신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잠 20:28) 라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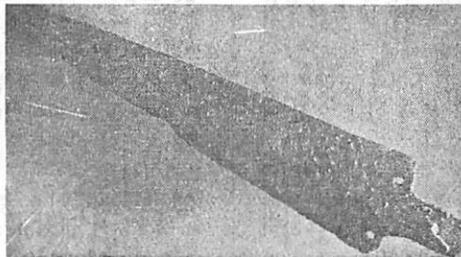
- (2) 만약 하나님의 사랑만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잠 16:12).
- (3) 즉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하여 죄악을 묵과(默過)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죄와 타협하는 자가 되며 결국 당신의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 (4) 이것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빛나게 하신다(잠 20:18).
- (5) 본장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질투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 13. ㉠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16-18절)

- ㉠ (1)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 (2)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심각한 죄(음란)를 전파시켰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인간적인 복수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죄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근거한 것이다.
- (4) 미디안인들은 끝내 이스라엘에 멸망되었으며(31:1-54) 발람도 역시 죽음을 당하였다(31:8).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순수한 신앙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신다. 이러한 당신의 의지가 최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 화보자료

쇠창의 창 끝. 아래의 사진은 파리 성경 박물관에 소장된 기원전 1000년경의 쇠로 만든 창끝으로 라스 샴라에서 출토되었다.



창(槍)은 히브리어로 〈하니트〉, 〈키돈〉, 〈로마흐〉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긴 나무 끝에 돌이나 금속의 창날을 단 무기이다. 〈하니트〉는 보통의 창을 말하며 〈키돈〉은 마병들이 가지고 다닌(욥 39:23) 손에 쥐고 던지는 무기였는데 병사들은 보통 활과 함께 가지고 다녔다(렘 6:23; 50:42). 또 본장의 비느하스가 사용한 창은(7, 8절) 〈로마흐〉로서 자루가 조금 긴 창이며 던지기보다는 찌르는 데 사용되었다.

## 제 26 장 모압 광야에서 실시한 두번째 인구 조사

단락구분 1-4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다 / 5-51 각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 / 52-56 각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 57-62 레위인에 대한 인구 조사 / 63-65 첫번째 인구 조사를 받은 자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죽다

1 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4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6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7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삼천 칠백 삼십 명이요

8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9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10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이백 오십 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11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2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13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14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만 이천 이백 명이었던라

15 갓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가족과

16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17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18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백 명이었던라

19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20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21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22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칠만 육천 오백 명이었던라

23 잇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24 야삽에게서 난 야삽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라

25 이는 잇사갈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사천 삼백 명이었던라

26 스블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알르엘에게서 난 알르엘 가족이라

27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오백 명이었던라

28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9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30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릭에게서 난 헬릭 가족과

31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짐에게서 난 세짐 가족과

32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33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34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이천 칠백 명이었더라

35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36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37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만 이천 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38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39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40 벨라의 아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41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천 육백 명이었더라

42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합에게서 수합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43 수합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사천 사백 명이었더라

44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45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46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47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삼천 사백 명이었더라

48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49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라

50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천 사백 명이었더라

51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십

만 일천 칠백 삼십 명이었더라

5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3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 오직 그 땅을 제비뿔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 그 다소를 물론 하고 그 기업을 제비뿔아 나눌지니라

57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탕에게서 난 고탕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며

58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립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탕은 아르람을 낳았으며

59 아르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60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61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62 레위인의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3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르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 1. ㉠ 본장에 언급된 인구 조사는 무슨 이유에서 실시되었는가?

㉠ (1) 출애굽 제 2년에 실시된 첫번째 인구 조사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장정(壯丁)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64, 65절; 14:30).

(2)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된 광야 생활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와 조직을 위하여 인구 조사를 다시 명령하셨다.

(3) 이때 실시된 인구 조사는 과거 1차 인구 조사가 광야 행군을 위한 조사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디안 족속을 치며(25:16)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 조직으로 볼 수 있다.

(4) 그러나 본장에 언급된 두번째 인구 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준비,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지파와 가족수에 따라 분배할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2. **㉠** **염병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1절)**

- ㉠** (1)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염병(染病)이 발생하여 2만 4천 명이 죽은 사실을 가리킨다 (25:9).
- (2)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멸망이 끝나게 되었다(참조, 14:29, 30).
- (3) 이들의 죽음으로 광야 생활의 방향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기 전에 모든 죄의 요소를 제거하셨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뤄지는 하나님 나라는 죄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건설될 것이다.

3. **㉠** **20세 이상 된 자를 조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 (2)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군사들을 조사하고 계신다.
- (3) 이 군사들은 결코 육체의 나이에 따라서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 즉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하였는가에 따라서 군사될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된다.
- (4)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참조, 엡 6:12).

4. **㉠**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했던 사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 4절)**

- ㉠** (1)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2)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참조, 창 22:15-18).

5. **㉠** **제 2차 인구 조사 때에 계수된 르우벤 지파의 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 (5-11절)**

- ㉠** (1)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 가족의 인구 수는 모두 43,730명이었다.
- (2) 이 수자는 유다나 잇사갈 지파의 인구 수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많은 수는 아니다(참조, 22, 25절).
- (3) 이와 같이 르우벤 지파의 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은 것은 '타월치 못하리라'(창 49:4)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해 준다.
- (4) 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의 수는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2,770명이나 더 적는데 이것은 고라의 반란 사건에 동참한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9-11절).

6. **㉠** **징계(懲戒)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이 말은 경고(警告, warning)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다.
- (2) 즉 고라 일당 250명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반역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셨다.
- (3)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난리와 소문 그리고 자연계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하신다.
- (4)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는 자와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

고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7. **㉠** 고라가 멸망할 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것이 주는 뜻은 무엇인가? (11절)
- ㉠** (1) 고라의 범죄에 그의 아들들은 가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2)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참조, 롬3:23-26).  
 (3) 그 예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갈 3:6) 그 이전에 노아도 여호와와의 의를 힘입어 홍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았다(창 6:8).  
 (4)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으므로 구원을 얻게 된다(참조, 롬3:24).
8. **㉠** 제 1차와 2차 인구 조사 결과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12-14절)
- ㉠** (1) 시므온 지파였다. 즉 이 지파의 인구는 1차 때에 59,300명(1:23)이었는데 반해 2차 인구 조사 때는 22,200명으로 본래 인구(1차 때)의 1/3 정도로 감소해 버렸다.  
 (2) 이것은 시므온의 잔인한 성품을 향해 저주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해 준다 (창 34:25-30; 49:5-7).  
 (3) 한편 모세는 임종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를 제외시켰기 때문에(신 33장)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할 때에 겨우 유다 지파의 남은 땅을 얻는데 그쳤다(수 19:1).  
 (4)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의 일들을 통하여 성내기를 잘하며 잔인한 성품을 가진 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 주셨다(참조, 잠14:17).
9. **㉠**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인가? (19-22절)
- ㉠** (1) 야곱의 네째 아들이며 레아의 소생이다(창 29:35; 마 1:2).  
 (2) 그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형제애(兄弟愛)가 깊은 아들이었으며(창 37:26, 27)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성도 가장 뛰어났다(창 44:18-34).  
 (3) 출애굽 당시에는 12지파 중 이 지파의 자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세력도 가장 강하였다. 또한 광야 생활에서도 늘 선봉에 섰으며(1:27; 2:9) 가나안 진군 때에도 앞장섰다.  
 (4) 그리고 유다의 기업지는 가나안 남방으로 다른 지파보다 광대하고 예루살렘, 시온 산, 성전, 왕궁들이 모두 이 지역에 있었다.  
 (5) 후기에는 국명(國名)도 유다라 하고 왕통도 다윗으로부터 23대 시드기야 왕까지 계승했을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이 지파에서 탄생하셨다.  
 (6)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아름다운 사건들이다(창 49:9-12). 또한 모세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휘권을 갖도록 축복하고 있다(신 33:7).
10. **㉠** 제 1차와 2차 인구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29-34절)
- ㉠** (1) 므낫세 지파이다. 즉 이 지파의 인구가 1차 때에는 32,200명이었으나(1:35) 2차 인구 조사 때는 52,700명이었다(34절).  
 (2)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 즉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의 소생이었다(창 41:51).  
 (3)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은 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으며(창 48:17-19) 이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더욱 큰 축복을 받았다.  
 (4)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광야 생활 중 가장 많은 증가율(64%)을 보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가장 적게 했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1. **㉠** 제 2차 인구 조사 결과 20세 이상된 남자의 수자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51절)
- ㉠** (1) 20세 이상된 장정(壯丁)의 수는 모두 601,730명이었다.  
 (2) 이것은 38년 전 시내 산에서 실시한 제 1차 인구 조사의 결과인 603,550명(1:46)과 비교하면 1,820명이 감소된 수자이다.

- (3) 그러나 38년 기간 동안에 제 1차 인구 조사에서 집계되었던 60만 이상의 장정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장정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이 넘는 장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 (4) 비록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이 장정의 수효가 유지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

12. **㉠** 제 1차 인구 조사와 2차 인구 조사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보라 (51절).

**㉠** (1) 민수기 서론 ㉠ 13을 참조하라.

- (2) 제 2차 인구 조사는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뒤에 내린 명령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 (3)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가나안 천입이 지연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2차 때는 1차 때보다 1,820명이나 줄어들었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셨다.
- (5) 이것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합 3:2).

13. **㉠** 약속의 땅 가나안을 12지파에게 나눌 때 무엇에 근거하여 분할하였는가? (52-56절)

**㉠** (1) 각 지파의 제 2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인구 비례에 따라 토지를 할당하였다 (53, 54절).

- (2) 그러나 실제로 거주할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 (3) 이와 같이 제비를 뽑는 풍습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이 유행하던 것으로 이스라엘은 주로 범인을 찾아낼 때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수 7장; 은 1:7).
- (4)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던 직접 계시 시대에는 더러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 제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5)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위와 같은 직접적 계시보다 성경이 더욱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14. **㉠** 제 2차 인구 조사 결과 레위 지파 가운데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는 모두 몇 명인가? (57-62절)

**㉠** (1) 23,000명으로 집계되었다(62절).

- (2) 이것은 출애굽 제 2년에 실시된 인구 조사의 결과인 22,000명에 비하면 1천 명이 증가된 수자이다.
- (3) 이들은 군대 봉사자들이 아니라 성막 봉사와 그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다.
- (4) 그리고 이들에게는 분배되어진 땅이 없었다(6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 (5) 이처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에 특별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므로 날마다의 삶이 풍요로와질 수 있다.

15. **㉠**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무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64, 65절)

**㉠** (1)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이든 한 번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 준다.

- (2)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더불어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의인을 상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 (3)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징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영생을 소유

하게 되었다(참조, 요 11:25, 26).

- (4)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위망하던 자들이 멸망당하였듯이(16:31-35)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영접하지 않는 자들 만드시 멸망에 이를 것이다(참조, 요 3:81).

## 연구자료

제비뽑기(lot). 본장 중에는 ‘제비뽑은 기업’(3절)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곳의 땅을 제비뽑아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진 것을 의미한다(33:51-54; 수 14:2).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종 제비를 사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곤 하였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신·구약 성경에 골고루 나타나 있다(수 18:6; 대상 26:13-15; 행 1:26).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제비뽑기를 하면서도 늘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에게 있느니라’(잠 16:33)는 의식(意識)을 잃지 아니하였다.

즉 그들은 무슨 일을 실행함에 앞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제비를 사용하였다(수 14:2; 18:6). 다윗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할 사람의 직임(職任)을 결정할 때(대상 25:7, 8), 그리고 성전의 각 문을 지킬 사람을 결정할 때(대상 26:13-15)에도 제비뽑기를 시행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전체가 관계되거나 여러 사람이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근원이 되는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내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이때도 역시 제비뽑기가 시행되었다(수 7:14; 삼상 14:36-42). 이러한 일 외에도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初代) 왕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제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삼상 10:17-24).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선지자 사무엘(Samuel)은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베냐민 지파 기스(Kish)의 아들 사울(Saul)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 한편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끔 제비를 뽑아 일을 처리하곤 하였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시 로마 군병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던 일이다(마 27:35). 하지만 초대 교회 시대에 사도(使徒)들은 제비를 뽑아 맛디아(Mathias)를 택함으로써 가룟 유다의 뒤를 이을 자를 얻기도 하였다(1:26).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란 일종의 요행수를 바라는 주술적 행위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신앙적 행위였다.

# 제 27 장 여자 상속 및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단락구분 1-5 기업을 요구하는 슬로브핫의 딸들 / 6-11 새로 제정된 상속법 / 12-17 죽음을 앞둔 모세의 간구 / 18-23 새로운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다

1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 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2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3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5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풀하니라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버지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9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들아간 것 같이 너도 초상에 게로 돌아가리니

14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 물이니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약술하라.

㉠ (1) 본장에서는 제 2차 인구 조사(26장) 이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 문제가 제기되었다.

(2) 당시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부인이 남편의 칭호를 부를 때 마치 노예가 주인을 호칭하거나 신하가 왕을 호칭하듯 한 것이다(참조, 창 18:12; 사 19:26; 암 4:1).

- (3) 또한 여자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재산(출 20:17; 신 5:21)으로서 부인은 남편에게 아무 것도 상속받지 못했으며 딸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권리를 갖지 못했다.
- (4) 그러나 본장에는 남자 후손이 전혀 없을 경우 여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8절). 이것은 당시 근동(近東)의 여러 법들과 비교해 볼 때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자의 권익(權益)이 존중되었음을 암시한다.
- (5) 이외에도 본장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지명받은 사건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 슬로브핫의 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7대(代)에 걸친 족보가 약속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2) 즉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허구(虛構)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
- (3) 또한 성경에서 이러한 족보가 언급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암시하는 한 방법이다(참조, 창 4:16-26; 5:1-32; 11:10-32; 마 1:1-16).
- (4) 우리는 이처럼 열거되어 나오는 족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3. **㉠**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3절)

- ㉠** (1) 슬로브핫은 고라 일당처럼 약속의 땅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었다(14:35; 26:64).
- (2) 여기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아버지 자신의 죄라고 인정했다.
- (3) 이처럼 '죄'는 온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다 주었으며 그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롬 5:12).
- (4) 그러나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참조, 요일 1:9).

4. **㉠** 슬로브핫의 딸들이 가나안 땅 일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들의 열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우어 준다.
- (2)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옷입고 나온 새 사람들이 인종적, 신분적 및 성적(性的)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다(참조, 갈 3:28).

5. **㉠**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稟)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이것은 모세가 그 사건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다는 의미이다.
- (2) 즉 그 사건의 진상(真相)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그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신정(神政) 정치의 원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 기본법 중에 하나인 상속법에 관하여 인간적인 토론이나 유권(有權) 해석 없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 (4)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이 풍요로우며 안전할 것이다(참조, 시 84:12; 잠 16:20; 28:25; 29:25).

6. **㉠** 슬로브핫의 딸들을 위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셨다.
- (2) 이 사건은 즉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판례(判例)가 되어 딸도(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딸조차 없을 때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 기업이 돌아가도록 조치되었다(8-11절).

- (3) 이처럼 딸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새 법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4) 성경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서나 천국의 축복에서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 (참조, 고전 11:11, 12; 뱀전 3:7).
- (5) 한편 딸이 이미 상속받은 경우는 자기 지파 내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했다(참조, 36:6).

7. **Q** 딸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이 상속되는 채 규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7, 8절)

- A** (1) 이것은 여호와와 모든 율법은 형식에 얽매이는 제도적 틀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화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이것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참조, 마 22:34-40; 요일 4:16-18).

8. **Q**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아무런 상속자가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주게 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A**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비례대로 땅을 공평히 나누고 그 땅이 계속해서 그 혈통의 사람에게만 상속되기를 원하셨다.
- (2) 그러므로 이 규례는 상속이 최소한 그 지파 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규정한 것이다.
- (3) 이스라엘에서는 토지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 성경의 고유한 회년법도 이것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참조, 레 25:10-54; 27:17, 18; 겔 46:17).

9. **Q**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돌아 간 것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하신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A** (1)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썼던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모세도 머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아론이 그러했듯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표현이었다.
- (2) 여기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간다'는 말은 모세의 조상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가리킨다(참조, 마 8:11; 눅 16:22).
- (3) 이처럼 죽을 직전에 내세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사실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누리는 최후적인 은혜이다.
- (4) 또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0. **Q**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A** (1) 그 이유는 가데스의 트리바 물 사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보다는 모세 자신의 분노를 발했기 때문이다(20:2-13).
- (2) 이것은 직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끼치는 자에게는 그에 해당되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 (3) 또한 사람의 분노가 어떠한 결과를 남기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좋은 예이다(참조, 욥 5:2; 잠 27:3, 4; 약 1:19, 20).

11. **Q** 죽음이 선고된 후에 모세가 취한 태도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15-17절)

- A** (1)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16절).
- (2)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 (3) 모세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죽을 준비를 하되 먼저 백성 전체를 위한 후계자 문제를 서둘렀다(16, 17절).

- (4) 이러한 모습에서 참 목자(지도자) 상(像)을 발견하게 된다. 참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다.
- (5)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참 목자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다(요 10:11-18).
- (6)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마 9:36)하지 않도록 보혜사(保惠師)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자로 삼으셨다(요 14:16-26).

12. **Q**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8, 23절)

- A** (1) 이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전가(轉嫁)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안수는 흔히 어떤 직분의 임명 내지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 은사를 주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8:10; 시 139:5; 행 9:17; 딤후전 4:14; 딤후 1:6).
- (3)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직무나 임무 자체가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가된 것은 아니다.
- (4) 왜냐하면 모세의 임무는 모세에게만 국한되었으며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직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모세의 안수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존엄성만 전가된 것이다.

13. **Q** '우림의 판결법'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21절)

- A** (1) 우림은 우림과 둠뎀의 생략형으로 이것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출 28:15-29) 사이에 넣은 일종의 제비(lot) 기구이다.
- (2) 그런데 우림과 둠뎀의 판결법이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 (3)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묻는데 사용된 것만은 확실하다(참조, 레 8:8; 신 33:8; 삼상 28:6; 스 2:63; 느 7:65).

14. **Q**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21, 22절)

- A** (1)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일을 행하였다.
- (2)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림의 판결법에 따라 내리는 제사장의 결정을 좇아 그의 말은 일을 결정하며 수행해 나가야 했다.
- (3) 비록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하고(18절) 모세의 존귀가 그에게 부여되었을지라도(20절)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혜와 권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물을 수도 없었다.
- (4)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흡사하다(요 14:13, 14).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8절).



# 제 28 장 절기와 제물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2 정기 제사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 3-8 상번제(常番祭)에 대한 규례 / 9-10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 / 11-15 월삭(月朔)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 / 16-25 유월절 제사에 대한 규례 / 26-31 칠칠절(七七節) 제사에 대한 규례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 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 지니라
- 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들씩 상번제로 드리되
- 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 5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뿔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 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 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 8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 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 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 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 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 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 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 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 16 정월 십 사 일은 여호와와 유월절이며
- 17 또 그 달 십 오 일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 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 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 20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를 드리고
- 21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 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 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 24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 25 제 칠 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 26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 27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 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 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 30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 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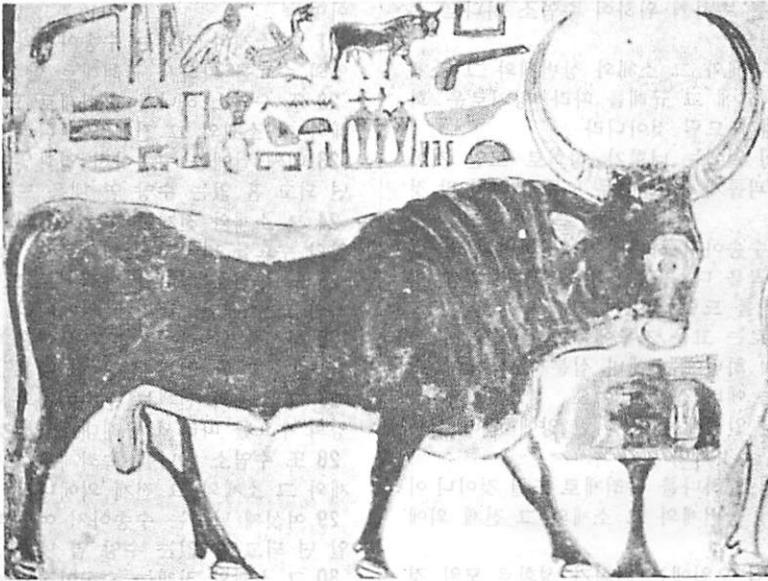
- Ⓐ (1) 이스라엘이 제 2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군대 소집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맞이하는 등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 규정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
- (2) 이 율법은 날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유지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구실을 하였다.
- (3) 백성들의 생활을 거룩히 구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이 제사 규례는 출 23:14-17; 29:38-42; 31:12-17; 레 23장 등에 이미 제시된 제사와 절기에 관한 율법보다 하나의 통일되고 조직이 잘 된 법전으로 완성, 정리되었다.
2. ⓐ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에서 '나' 라는 말을 열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이것은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 (2) 즉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보다도 그것을 받으시는 여호와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의 제물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며 감사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전 12:13).
- (4) 따라서 제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높이며 또 영광을 돌리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 (5)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은 인간만이 가지는 축복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신다.
- (6)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
3. ⓐ 상번제(常番祭)는 무엇이며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3-8절)
- Ⓐ (1) 상번제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각각 흠 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 (2) 이 제사가 상번제(continual burnt offering)라 불리워지게 된 이유는 제사의 제물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태워져야 하기 때문이었다(참조, 스 3:5; 느 10:33).
- (3)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의미에서 상번제를 드렸다.
- (4)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 준다.
4. ⓐ 상번제는 누구의 사역(使役)을 예표한 것인가? (3-8절)
- Ⓐ (1)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 (2) 또한 상번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역을 예표하기도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5. ⓐ 상번제와 더불어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5-8, 9절)
- Ⓐ (1) 그것은 소제와 전제이다.
- (2) 여기서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또 전제는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 (3) 그런데 전제에 사용되는 독주는 진짜 독한 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포도주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전제에는 반드시 포도주만 쓰였기 때문이다(참조, 15:5; 레 10:9).
6. ⓐ 매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사용된 제물은 무엇인가? (9, 10절)

- A** (1)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아울러 소제와 전제가 사용되었다.  
 (2) 결국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제사이므로 평일 보다 약 2배 정도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3) 이와 같이 안식일에는 평일과는 다르게 특별한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특별한 날임을 말해 준다.  
 (4)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안식일(오늘날은 주일)에는 평일보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7. Q** 월삭(月朔)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1-15절)  
**A** (1) 월삭이란 매달의 첫째 날을 가리킨다.  
 (2) 이날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외에 월삭 제물을 더 드렸다.  
 (3) 월삭 제물에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수양 일곱과 그 짐승에 해당되는 각각의 소제와 전제를 아울러 드렸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하나를 드렸다.  
 (4) 또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은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하였다(10:10).  
 (5)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깨워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다.
- 8. Q** 무교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16, 17절)  
**A** (1)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한 주간 계속되었다. 즉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졌다.  
 (2) 애굽으로부터의 황급한 탈출을 기념(출 12:39) 하는 이날은 매일 두번씩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삭에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분량의 제물을 매일 드려야 했다(24절).  
 (3) 또한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무교병(無酵餅)을 먹었는데(17절) 이것은 발효시키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상징한다.  
 (4) 그리고 이 무교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요 6:30-59; 고전 11:24) 진실한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다(고전 5:7, 8).
- 9. Q** 무교절은 어떤 방식으로 지켜 졌는가? (17-25절)  
**A** (1)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다(17절).  
 (2) 첫날과 마지막 날(제 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18, 25절).  
 (3)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하루에 두 번씩 반드시 드렸다(24절).  
 (4) 또한 월삭에 드렸던 제물과 동일한 분량을 무교절 제물로 매일 드렸다(19, 20절).
- 10. Q** 안식일과 성회(聖會)의 차이는 무엇인가? (18절)  
**A** (1)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창 2:1-3).  
 (2) 즉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마치고 쉬신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날을 거룩히 지내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며 안식하는 날로 제정하신 것이다.  
 (3) 한편 성회로 모이는 날 역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처럼 노동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며 거룩히 보내는 날이었다.  
 (4) 이 두 날은 다같이 노동이 금지되었는데 거룩한 날은 완전히 예배와 묵상으로만 지내게 하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주일(主日)을 하나님께 드리기 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자가 있다.
- 11. Q** 칠칠절(七七節)이란 무엇인가? (26-31절)

- Ⓐ (1) 칠칠절은 무교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 즉 오늘날의 토요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 (2) 이날의 다른 명칭으로는 맥추절(출 23:16), 초실절(출 34:22), 오순절(고전 16:8) 등이 있다.
- (3) 칠칠절은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던 특별한 축제일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보리의 첫 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의 7주 가량 되는 전반적인 곡물 수확 기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 (4) 그러므로 이 칠칠절은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감사제이다.

### 화보자료

수송아지. 아래 사진은 네페르타리 여왕의 분묘의 벽에 그려진 희생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습이다.



수송아지는 번제물, 화목 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레 1:3-9; 3:1-5; 4:3-21).

# 제 29 장 나팔절과 속죄일 및 초막절의 규례

단락구분 1-6 나팔절에 대한 규례 / 7-11 속죄일에 대한 규례 / 12-40 초막절에 대한 규례

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 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곱을 드릴 것이며

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 칠 월 십 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곱을 드릴 것이며

1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12 칠 월 십 오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13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 셋과 수양 들과 일 년 된 수양 열 넷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14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 셋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들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이요

15 어린 양 열 넷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일곱

드릴 것이며

16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17 들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들과 수양 들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18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19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0 세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하나와 수양 들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21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2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3 네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들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24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5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6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양 들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27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8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9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들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0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2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들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죄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36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37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8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9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40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1. **㉠** 본장에 제시된 규례는 어떤 것들인가?

- ㉠** (1) 본장은 28장에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드릴 절기의 제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2) 특히 이곳에는 제 7월에 드리는 절기의 제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7월 1일의 나팔절, 10일의 속죄일, 15일의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그것이다.
- (3) 이 세 절기에는 모두 성회(聖會)로 모이며 모든 노동을 금하고 거룩한 날로 지켰다(참조, 레 23:23-44).
- (4) 본장의 더욱 상세한 내용은 레 23장 문답 강해를 참조하라.

2. **㉠** 이스라엘에는 1년 중 어느 때에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는가? (1-39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 제 7월에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다.
- (2) 이 제 7월은 민간력으로는 제 1월(디스리 월)이 되는 때로서 1년 중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다.
- (3) 그리고 이 제 7월은 안식의 달로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이때가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와 부담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당신의 법을 적절히 규정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 인간들은 자발적이고 감사에 찬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3. **㉠**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년 7월 1일은 어떠한 날로 정해졌는가? (1-6절)

- ㉠** (1) 이날은 나팔을 불어 여호와와 은총을 기념하는 날, 즉 나팔절이었다.
- (2) 이스라엘의 종교력 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곧 새해의 첫날이었다.
- (3) 이날은 속죄일과 초막절을 예시하는 기능도 가졌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표하기도 한다.

4. **㉠** 나팔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 (1) 이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 (2) 또한 이날은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사건(참조, 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을 상징하며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를 뜻한다.
- (3) 그러므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초림(初臨)과 복음 선포의 사역, 즉 그의 수난,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이라는 하나의 일직선적인 구속 사건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

5. **㉠** 속죄일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7-11절)

- ㉠** (1)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참조, 레 23:27, 29, 32).
- (2) 즉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날에 자신과 백성 전체 및 회막의 죄를 속하는데 이때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회개하였다(참조, 레 16:29; 23:27).
- (3) 또한 백성들은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으며(레 23:25) 사소한 개인적인 일까지도 금하였다.

(4) 이처럼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죄악이다.

6. **㉠ 속죄일에 드러진 짐승은 무엇인가? (8-11절)**

- ㉠** (1) 그것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그리고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과 수염소 하나이다.  
 (2) 즉 속죄 제사는 짐승을 죽여 피를 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피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참조, 히9:22).  
 (3) 결국 속죄일에 드러진 이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  
 (4)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드러진 희생의 모범이 되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참조, 엡1:7).  
 (5) 이와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참조, 히10:12).

7. **㉠ 초막절(草幕節)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12-38절)**

- ㉠** (1) 초막절은 제 7월의 15일째 되는 날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졌는데 제 8일째 되는 날은 이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성회(聖會)의 날로 모였다.  
 (2) 이 한 주간 동안 백성들은 집을 떠나 초막이나 오두막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했다.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고(레 23:43) 모든 추수를 완료한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다.

8. **㉠ 초막절(장막절) 제사의 제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12-38절)**

- ㉠** (1) 초막절에는 다른 절기에 비해서 아주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러졌다.  
 (2) 즉 이때는 상번제 이외에도 매일 수양 둘과 일 년 된 수양 열 넷을 제물로 드렸으며 또 한 주간 동안 잡은 수송아지는 모두 70마리였다.  
 (3) 그런데 이 수송아지는 하루에 10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라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이렇게 해서 매일 한 마리씩 그 수자가 줄어들어 7일째 되는 날은 7마리를 다른 짐승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4)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대대적인 잔치를 벌인 것은 광야 생활 중 그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9. **㉠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2-38절)**

- ㉠** (1) 초막절의 행사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천국을 예표한다(참조, 계 21:1-4).  
 (2) 또한 감격에 찬 초막절 행사는 죄의 세계로부터 해방되어 구속이 완성된 후 승리를 쟁취한 교회의 기쁨과 행복을 가리킨다.  
 (3) 이런 기쁨에 대해서 특히 레 23:40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내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이것은 성도들이 미래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사실을 예표한다.

10. **㉠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 ㉠** (1)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예물(물질)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다.  
 (2) 그러나 꼭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감사는 아니다.  
 (3)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감사라 할 수 있다.  
 (4) 특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이 희생되어 지

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매우 값진 감사의 예물이다.

- (5)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등은 물질은 두려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예물이다(참조, 눅 17:16; 롬 1:8; 고전 15:55-57; 고후 9:15; 골 2:7; 살전 3:9; 살후 1:3).

## 11. ㉠ '이 절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39절)

- ㉠ (1) 이 절기란 '이 절기들'이라는 복수형인데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절기, 즉 상변제,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월삭에 드리는 번제, 유월절 제사, 칠칠절 제사, 나팔절 제사, 속죄일 제사 및 초막절 제사를 말한다(28, 29장).
- (2)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런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아울러 그에 합당한 생활, 즉 순종과 겸손의 생활을 원하신다(참조, 삼상 15:22; 사 1:10-17).
- (3)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삶은 형식적인 예배와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참조, 마 25:31-46; 롬 12:3-21; 약 1:26, 27).

## 연구자료

서원(誓願)의 종류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입으로 말하여 '맹세'나 '약속'이 되는 서원은 성경에서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① 쌍무적(雙務的)인 서원: 이는 아굽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을 세우며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한 서원과 같은 것이다(창 28:20-22). 또한 이 같은 서원은 입다(삿 11:30, 31), 한나(삼상 1:11), 압살롬(삼하 15:7-12)에게서도 볼 수 있다. ② 일방적인 헌신: 이것은 서원자가 무조건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바치는 것이다(참조, 시 132:2-5). ③ 각성(覺醒)과 절제를 위한 서원: 이에선 아랏(Arad) 백성을 멸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서원(21:1-3), 자신의 군사들을 각성케 하려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삼상 14:24) 등과 같은 실례(實例)가 있다. ④ 일반적인 예배의 의무: 삼상 1:21에 나타난 내용을 지닌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제사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잠 31:2; 나 1:15). ⑤ 소망과 감사: 시편에 나타난 서원에는 주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 것이 많다(참조, 시 56:12, 13; 66:13-15).

## 제 30 장 서원을 규제하는 율법들

단락구분 1-2 서원(誓願)을 파약(破約)하지 말라 / 3-5 처녀의 서원을 규제하는 규례 / 6-8 결혼하는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 / 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 10-16 유부녀(有夫女)의 서원들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4 그 아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 아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7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12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14 그 남편이 일항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가?

- ㉠ (1) 본장은 출애굽 제 40년 모압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27장부터 계속된 이러한 지시는 본장에서 일단 마치고 31장부터는 미디안을 정복하며 가나안을 분할하는 기사가 나온다.
- (3) 본장에는 6 장과 레 27장에서 이미 주어졌던 서원과 서약의 규례가 다시 주어졌다.
- (4) 특히 서원에 관한 규례가 28, 29장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은 모든 서원이 예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모든 서원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그 영향력은 대단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는 몇몇 경우의 서약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서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했다.

2. **㉠**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破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로 약속하였거나 금식하기로 서원하였다면 그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2)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23:19).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참조, 시 15:4).  
 (4) 사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신 23:22). 그러나 한 번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야 했다(신 23:21, 23).  
 (5) 그러므로 서원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전인격적인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참조, 잠 20:25).
3. **㉠** 마음을 제어(制馭)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절)
- ㉠** (1) 이것은 영혼(마음)을 맹세로 묶는다는 뜻이다.  
 (2)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능동적으로 절제할 것을 맹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로 서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이다.  
 (4) 그러나 이러한 서원은 성령의 도움없이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5)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참조, 요 14:16-18).
4. **㉠** 남자가 아닌 처녀가 서원할 때도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는가? (3-5절)
- ㉠** (1) 처녀가 서원했을 경우 그 아버지가 서원한 것을 금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야 했다.  
 (2) 그러나 그 처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을 서약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 서약을 인정하지 않을 때 처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다.  
 (3) 왜냐하면 그 처녀를 지도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마저도 인정하시고 그에 따라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도 있다.
5. **㉠** 여호와께서 사(赦)하시리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5절)
- ㉠** (1)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2) 그러나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녀가 서원했을 경우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3)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자원해서 하는 신앙적인 헌신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규례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허락하신 것은 단지 부모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여도 된다는 의미에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6. **㉠** 결혼 전에 서약한 여자에게는 결혼 후에도 계속 그 서원한 것에 대한 의무가 남아 있는가? (6-8절)
- ㉠** (1) 만약 여자의 남편이 아내가 서약했던 내용을 전해 듣고 그 즉시 아무 말이 없으면 맹세했던 서약은 지켜져야 했다(7절).  
 (2) 그러나 남편이 듣고 그 즉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었고 서약을 실행치 않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8절).  
 (3) 이와 같이 여자가 맹세한 서원의 이행 여부는 남편이 결정하며 남편의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부여되었다(참조, 고전 11:9).

- (4) 비록 결혼 전에 아버지가 허락한 서원이라 할지라도(4절) 결혼 후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 역시 이행할 수 없다.
- (5) 이 규정은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7. **㉠**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처녀나(2-5절) 남편이 있는 여자처럼(6-8절) 자신이 맹세한 서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이 따로 있었는가? (9절)

- ㉠** (1)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들은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한 독립된 인격이다.
- (2)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데 장애되는 요소가 없었다.
- (3) 더우기 그들의 이러한 삶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쌍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참조, 롬7:1-3; 고전7:39,40).
- (4) 이러한 조건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몸을 드리기로 서약하였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것이다.
- (5) 바울은 말하기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하였다(딤후5:5).

8. **㉠** 아내의 서원한 내용을 들은 남편이 그 즉시 서원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얼마 후에 결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결정으로 간주되었는가? (13-15절)

- ㉠** (1)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으며 더우기 자기 아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당할 징벌을 남편이 대신 져야 했다.
- (2) 이러한 실수를 범한 남편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갚아야 했다(참조, 레5:4-6).
- (3)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참조, 레5:1).
- (4) 이것은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지는 책임의 중대성과 또한 지도자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9. **㉠** 지도자가 당연히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14, 15절)

- ㉠** (1) 지도자가 당연히 할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침묵 때문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4, 7, 11절).
- (2)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은 그 일에 대한 승인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될 수 있는 한 말을 삼가해야 되겠지만(전5:2) 침묵 또한 삼가해야 될 것이다.
- (4) 특히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더욱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장의 요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破約)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2절).

## 제 31 장 미디안을 격파하다

단락구분 1-2 미디안을 격멸(擊滅)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 3-6 미디안과의 전쟁 / 7-12 미디안 정복과 다섯 왕의 처형 / 13-18 모세의 진노와 미디안을 섬멸(殲滅) 하라는 반복적인 명령 / 19-24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의 정결법 / 25-47 전리품의 분배 / 48-54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다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 3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와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 4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일천 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 5 매 지파에서 일천 인씩 이스라엘 천만 인 중에서 일만 이천 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 6 모세가 매 지파에 일천 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스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 7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 8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침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을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 9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 10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 11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 12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 1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 14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 15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 16 보라 이들이 발람의 피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브을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와 회중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 17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

- 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 18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 것이니라
- 19 너희는 칠 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 삼일과 제 칠 일에 몸을 깨끗케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케 할 것이며
- 20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들 다 깨끗케 할지니라
- 21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 22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 23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케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 24 너희는 제 칠 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케 한 후에 진에 들어 올지니라
-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6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 27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 28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오백분지 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 29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와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 30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오십분지 일을 취하여 여호와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 3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 32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육십 칠만 오천이요
- 33 소가 칠만 이천이요
- 34 나귀가 육만 일천이요

- 35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이니
- 36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 삼만 칠천 오백이라
- 37 여호와께 세로 드린 양이 육백 칠십 오요
- 38 소가 삼만 육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세로 드린 것이 칠십 이 두요
- 39 나귀가 삼만 오백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세로 드린 것이 육십 일이요
- 40 사람이 일만 육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세로 드린 자가 삼십 이 명이니
- 41 여호와께 거제의 세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 42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 43 곧 회중의 얻은 절반은 양이 삼십 삼만 칠천 오백이요
- 44 소가 삼만 육천이요
- 45 나귀가 삼만 오백이요
- 46 사람이 일만 육천이라

- 47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분지 일을 취하여 여호와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 48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 49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 50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 왔나이다
- 51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 52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일만 육천 칠백 오십 세겔이니
- 53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 탈취한 것이니라
- 54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1. **㉠** 본장에 언급된 사건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먼저 그들을 타락시켰던 미디안인들을 진멸시킴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전주곡(前奏曲)으로 삼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전에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을 유혹하여 바알브올의 음탕한 우상 숭배에 끌어 들인 악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25:1-9).
- (3)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25:16-18) 본장은 그 명령의 반복과 실행에 대한 내용이다.
- (4) 이처럼 유혹에 빠진 자들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혹한 백성도 벌을 받되 더 중한 벌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公義)에서 비롯된 것이다.

2. **㉠**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2절)

- ㉠** (1) 이 말은 미디안인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사건(25장)을 두고 한 말이다.
- (2) 그런데 미디안을 진멸시키려는 여호와와의 계획은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 (3) 오히려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들의 완전한 영적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징벌하실 때 그 죄인이 범한 악한 행동 뿐만 아니라 죄인이 의인에게 미칠 악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징벌하신다.

3. **㉠**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레 19:18)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2, 3절)

- ㉠** (1)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3절)로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은 성경이 규정한 명령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인정하신다.
- (2)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사로운 원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와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범한 여호와와의 원수를 가리키므로 레 19:18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다.

- (3)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무시하는 자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진멸하여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지키는 군사들이기 때문이다.
- (4) 한편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징계라고 표현하였다(참조, 행 13:4-12; 딤후 4:14).
- (5)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원수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참조, 례 19:18; 잠 25:21, 22; 마 5:43, 44).

4. **㉠**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비함에 있어서 승전에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4-6절)

- ㉠** (1) 첫째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출전(出戰)케 한 일이었다.
- (2) 이것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 12,000명에 불과하였다.
- (3)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출전하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 (4) 두번째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일이었다.
- (5)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와 원수인 미디안과의 거룩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 (6) 또한 이것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5. **㉠** 역사적으로 볼 때에 미디안 남자들이 생존했던 사실(삿 7:14)은 본장에 기록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다는 사실과 모순이 되지 않는가? (7절)

- ㉠** (1) 여기서 미디안 남자를 모두 죽였다는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 나왔던 장정들이 전멸했다는 의미이다.
- (2) 더우기 그 당시 미디안족은 한 곳에 모여 거주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산재한 채로 각 부족간의 독특한 영역을 인정하며 생활했다(참조, 출 2:15).
- (3) 그러므로 후대에 나타난 미디안 족속은 그 당시 사로잡혀 가지 않은 어린이들이 자라서 힘을 기른 무리와 그 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후손으로 보아야 한다.
- (4) 미디안이 이러한 징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케 했던 죄악 때문이었다(16절; 25장).

6. **㉠** 미디안 다섯 왕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그 이유는 미디안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음란과 우상 숭배를 파급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 (2) 이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죽임을 당한 것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발람이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25:1-3)을 주장한 주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7. **㉠**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대 장관들에 대하여 모세가 노하게 된 이유와 교훈을 말하라 (11-18절).

- ㉠** (1) 모세의 분노는 군대 장관들이 미디안 여자를 모두 살려 주었다는 데 기인한다(15절).
- (2) 모세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도 있었지만 미디안의 죄악을 징벌하는 이 전쟁은 엄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알았다.
- (3) 즉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사악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세는 여자들의 죄책을 간과(看過)할 수 없었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동정을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죄악을 허용하면서까지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아야 한다.

8. **㉔**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17, 18절)

- ㉔** (1) 아이들 중 남자와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2) 이것은 그 여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였거나(25:1) 바알브을을 섬기도록 유혹했던 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3) 또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은 얼른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때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친 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성전(聖戰)이었으므로 모든 일이 엄정히 지켜져야 했다.  
 (4)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異面)에는 정당성이 내재해 있다.  
 (5) 반면에 순결한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려 두었다.  
 (6) 이것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조치였다(참조, 합3:2).

9. **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한 목적은 무엇인가? (19-24절)

- ㉔** (1) 시체로 인하여 군인들이 입은 부정(不淨)을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인들을 죽였으나 주검(시체)으로 인한 부정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3) 부정은 여호와와의 성결과 반대되는 것이며 부정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짐을 당했다.  
 (4) 왜냐하면 외적인 부정으로 인해 성결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5) 이것이 비록 의식적 성결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 큰 모범이 된다.

10. **㉔**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戰利品)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26, 27절)

- ㉔** (1)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직접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운 그들의 당연한 보수였다. 하나님은 항상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다(참조, 시128:2).  
 (2)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다.  
 (3) 이것은 비록 회중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공동 운명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4) 또한 이들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후방에서 애태우며 기도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았음에 틀림없다.  
 (5)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비록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 아니면 기타 다른 복음 사역자로 일하지 않지만 뒤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6) 바울은 성도들의 이 같은 후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빌4:18).

11. **㉔** 전리품으로서 군인들이 받은 몫 가운데 500분의 1을 여호와께 감사제로 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7, 28절)

- ㉔** (1) 이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 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3) 특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제(擧祭)로 드린 것(41절)은 거제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규례 때문이었다(18:28-30).  
 (4) 또한 이 제물을 거제의 세(稅)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41절).

(5)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한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2. **㉠**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을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30절)

**㉠** (1)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되어 회막 일을 맡게 되었다(1:53, 54). 이 같은 봉사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담당하는 것이었다.

(2)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3) 이것은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참조, 고전 9:13, 14).

(4)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13. **㉠**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금품을 드렸는데 그들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48-54절)

**㉠** (1) 군대 장관들이 전쟁터로 데리고 갔던 군인들 중 한 명도 전사하지 않고 큰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이다(49절).

(2)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았던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현저한 증거였다.

(3) 이처럼 전체 군인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희생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표시하고자 했다.

(4) 여기서 그 헌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와 보호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한 그들의 마음이 귀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 할 수 있다(참조, 살전 5:18).

### 본장의 요절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와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50절).



## 제 32 장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다

단락구분 1-5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 / 6-15 모세가 바네아 사건을 회상시키며 그들을 책망하다 / 16-19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겠다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약속 / 20-27 모세의 조건부 허락 / 28-32 동족과 함께 정복 전쟁에 임하겠다고 회중 앞에서 서약하다 / 33-38 르우벤과 갓 지파의 성읍들 / 39-42 므낫세 반 지파가 거할 곳

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다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3 아다뭇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아 브은

4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7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8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10 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맹세하여 가라사대

11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이십 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12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베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불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그들로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14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16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가로되 우리가 이 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18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 하겠사오며

19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20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와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23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24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26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27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28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2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30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32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33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

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34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못과 아로엘과

35 아다못소반과 야셀과 욱브하와

36 뱀니므라와 뱀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37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38 느보와 바알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39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40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41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야일이라 칭하였으며

42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 동편에 거주한 시혼과 바산 및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하였다(21:10-35;31:1-12).

(2) 본장에는 그 후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을 쳐서 얻은 땅을 그들이 받을 분깃(몫)으로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기록되었다.

(3) 두 지파의 사적(私的)인 욕심에서 나온 요청에 대하여 모세는 공적(公的)인 정복 사명과 가나안에서 이룩하게 될 통일된 신국(神國)을 명분으로 내세워 거절하였다.

(4) 본장은 단체 생활에서 개인주의는 공평과 단합을 위협한다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쉽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2. ㉡ 길르앗 땅을 바라 본 두 지파(르우벤, 갓)가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이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1-5절)

㉡ (1) 그들 두 지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줄 것과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5절).

(2) 이러한 요구는 가축의 떼가 많은 그들에게(1절)는 당연한 것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길르앗 땅에는 가축을 사육하기에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요구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인 착상이었으며 형제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매정한 생각이었다.

(4) 이것은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조건에 눈을 돌려 그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5)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산과 희생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다.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6) 사실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향유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졌을 때 영적인 소망이 극히 약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자의 삶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 3. ㉢ 두 지파의 요구에 대해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6-15절)

㉢ (1)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제안이 다른 지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을 기피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렇게 되면 가데스에서의 반역(14:1-10)이 재현되는 것이다.

- (2) 즉 이러한 그들의 이기적 요구는 다른 지파의 백성들을 실망케 한다는 것이다.
- (3) 모세는 이 점에 있어서 두 지파의 요구를 가데스 바나아에서의 반역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였다(8-14절).
-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며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14, 15절).

4. **㉠** 두 지파를 향한 모세의 책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6-15절)

- ㉠** (1) 협력이 요구되는 일에 있어서 소수의 이기적인 행동은 전체에게 악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집단 전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6절).
- (2)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낙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7-9절).
- (3)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11, 12절).
- (4) 더우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을 얻게 된다(13절).
- (5) 과거의 죄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심한 징계를 받는다(14절).

5. **㉡**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이 말은 여호와와 말씀의 뜻을 좇아 행하는 모든 일을 완수하였다는 의미이다.
- (2)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찬 패역한 백성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순종하고 신뢰한 것을 말해 준다.
- (3) 사람이 주위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 (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히 12:2).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참조, 딤후 3:17).

6. **㉢**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듣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는가? (16-19절)

- ㉠** (1)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기로 했다(16, 17절).
- (2) 그런 후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위한 공동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17절).
- (3) 그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분깃을 받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약속했다(19절).
- (4) 그들이 이와 같이 개전(改愆)의 뜻을 보인 것은 모세의 권고에 진심으로 순종하였음을 의미한다.
- (5) 이처럼 지도자의 정당한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

7. **㉣** 본장에 여러 번 나타나는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0-22절)

- ㉠** (1)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가리킨다.
- (2)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이렇게 여호와와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여호와와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3) 또한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라는 말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야(視野)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 (4)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믿음은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 (5) 더우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은 주님

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초석(礎石)이 될 것이다.

8. ㉠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져다 주는 교훈은 성도의 신앙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8-32절)

- ㉠ (1)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어진 가나안은 그들이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은 결코 아니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을 통하여 정복해야 할 땅이었다.  
 (2)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대적이 항복(降伏)할 때까지 인내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다(29절).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도들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악한 사단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참조, 빌 2:12).  
 (4) 이처럼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면류관을 얻기까지, 즉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과정이며,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삶 그 자체이다.  
 (5)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었던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9. ㉠ 모세가 두 지파(르우벤, 갓)에 관한 명령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두령에게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 (1)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 의해 수행되던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다음 세대의 주역(主役)들에게 인계(引繼) 되어졌음을 백성 전체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2) 즉 혼란과 방황의 시대는 바야흐로 끝나가고 안정과 정착의 시대를 맞기 위한 모세의 마지막 노력이 기울여진 것이었다.  
 (3)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남아 있었으나 모세는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 결과의 뒷일을 부탁하고 있다.  
 (4) 이처럼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 실상과 증거를 부여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이 소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미 눈에 보이는 대상인 것처럼 부탁하고 있다(참조, 히 11:1, 2).

10. ㉠ 만약에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땅 분할은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30절)

- ㉠ (1)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요단 동편 땅, 즉 길르앗 땅에 거할 수 없었다.  
 (2) 대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게 했다.  
 (3) 두 지파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파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 아래서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한다면 결국 요단 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신국(神國)을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5) 이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분열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

11. ㉠ 르우벤과 갓 지파 외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분할한 이유는 무엇인가? (33-42절)

- ㉠ (1)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 길르앗과 그 주변의 촌락을 정복했기 때문이다(39, 40절).  
 (2)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일에 대하여 복주시고 인정하여 주신다(참조, 신 12:7; 시 128:2).  
 (3)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나서 당장에 그 수고에 대한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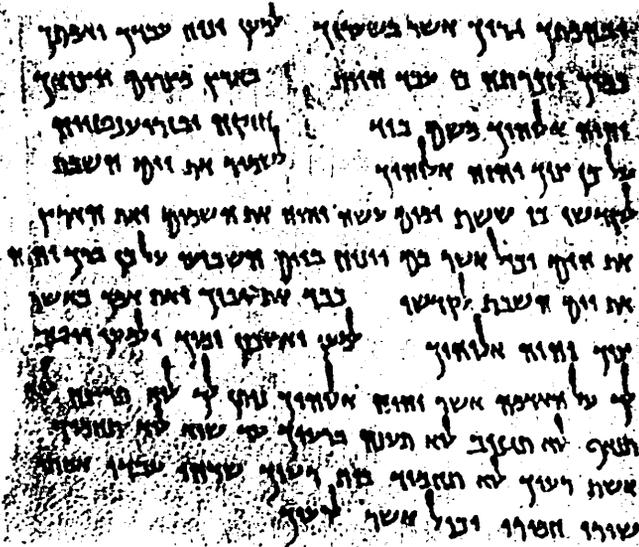
를 요구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말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

12. **㉠** 길르앗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성읍을 새로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의 이름을 새롭게 고쳤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3-42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길르앗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성읍의 이름을 고쳤다.
- (2) 또한 그 성읍들의 이름이 우상 숭배적이었고 거기에서 숭배되던 잡신에 대한 이미지기 성읍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떠나 버리기를 원하신다 (참조, 호 2:17).
- (4)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 ‘진노의 자식’ 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무리’ 로서 축복된 자가 되었다.

화보자료

히브리어로 십계명이 기록된 사해 사본. 현재까지 발견된 십계명이 기록된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사본 중에 하나이다. 쿨란 제 4 동굴에서 발견된 이것은 성경 고고학상의 획기적인 발견물인 사해 사본 중의 일부이다.



십계명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와 도덕, 신앙과 윤리의 표준이 된 계율로서 출20장 및 신5장에 기록되어 있다.

# 제 33 장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旅程)

단락구분 1-4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 대한 서언(序言) / 5-15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 / 16-36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 37-49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 50-56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 1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향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 2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 3 그들이 정월 십 오 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 4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 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진쳤고
- 6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 7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므딕 앞에 진쳤고
- 8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삼 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 9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 둘과 종려 칠십 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 10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 가에 진쳤고
- 11 홍해 가에서 발행하여 신 광야에 진쳤고
- 12 신 광야에서 발행하여
- 13 둑가에 진쳤고 둑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 14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 15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 16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쳤고
- 17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 18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릿마에 진쳤고
- 19 릿마에서 발행하여 립몬베레스에 진쳤고
- 20 립몬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립나에 진쳤고
- 21 립나에서 발행하여 릿사에서 진쳤고

- 22 릿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쳤고
- 23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 산에 진쳤고
- 24 세벨 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 25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막헬롯에 진쳤고
- 26 막헬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 27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 28 데라에서 발행하여 밧가에 진쳤고
- 29 밧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 30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 31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아간에 진쳤고
- 32 브네야아간에서 발행하여 흘하깃갓에 진쳤고
- 33 흘하깃갓에서 발행하여 옷바다에 진쳤고
- 34 옷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 35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에 진쳤고
- 36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 광야 끝 가데스에 진쳤고
- 37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 산에 진쳤더라
- 38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 오 월 일 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 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일백 이십 삼 세이었던라
- 40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왕이 이스라엘의 음을 들었더라
- 41 그들이 호르 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 42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부논에 진쳤고
- 43 부논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 44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쳤고
- 45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 46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쳤고
- 47 알몬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쳤고
- 48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 49 요단 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벨여시못에서부

터 아벨깃땀에 미쳤었더라

50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훼파하고

53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54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예비뿍어나

늘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뿍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55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 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1. **㉠** 본장은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애굽에서 요단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40년간의 여행 중에 진을 쳤던 처소 41개소가 열거되어 있다.
- (2)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 도중에 들렀던 곳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지도에 나타난 지점들도 추상적인 것이다.
- (3) 다만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만은 확정적이다. 이곳은 샘이 많은 오아시스였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 (4) 소집단이 가나안에서 애굽 국경까지 가려면 약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통례였다.
- (5)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은 40년이나 걸렸다. 비록 전민족적 대집단의 이동이었지만,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2. **㉠**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 아래 질서있게 출애굽한 사실은 영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1절)

- ㉠** (1)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질서있게 행군하는 모습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그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질서있게 사는 삶을 예표한다.
- (2)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있게 행동해야 한다(참조, 고전 14:40).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의 하나님이나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4:33).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이다.
- (4)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질서가 파괴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서운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 (5) 그러나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며 질서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후 5:18).

3.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目前)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3절)

- ㉠** (1)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인들의 관용이나 타협에 의한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 준다.
- (2)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의 감격을 되풀이하고 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구원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매일의 삶에 출애굽의 감격을 느낄 수 있다.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은 언제인가? (3절)

- A** (1) 정월 15일이었다(30절).  
 (2) 여기서 정월은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여 그 달(7월)을 첫달(1월)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참조, 출 12:2, 14).  
 (3) 이후부터 구약에 나타난 월력(月歷)은 민간력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종교력(해방된 달을 1월로 기준하는 월력)으로 언급되어 있다.  
 (4)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해방일을 정확하게 표기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5. C** 이스라엘은 유월절 다음날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3절)  
**A** (1)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호되어 죽음의 재앙을 면한 날이다(출 12:1-14). 즉 피로 속(贖)함을 받은 후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  
 (2)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구속을 받아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3) 즉 일반적으로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악한 세대로 묘사되고 있다(엡 2:2).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히 6:18).
- 6. C**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神)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A** (1)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는 뜻이다.  
 (2)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모든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애굽의 재앙이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까지 심판한 것임을 보여 준다.  
 (4)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는 나일 강과 개구리 및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해당하는 것을 징계한 재앙이 많았다(출 7:14-8:15).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항상 죄악의 요소를 파괴하시고 난 후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다.
- 7. C** 엘림에 있는 샘물 12개와 종려 70주(株)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9절)  
**A** (1) 광야에 샘물이 있고 그들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많다는 것은 여행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2)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광야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을 이 나무와 샘들을 통해 알 수 있다(참조, 시 30:5).  
 (3) 샘물 12개의 '12'와 종려나무 70주의 '70'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12는 이스라엘 지파 수를 가리키며 70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수자이다.  
 (4) 여기서 12지파와 70인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낸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며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 된다(참조, 눅 2:14).  
 (6)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인간 구원에 있다(참조, 눅 15:3-24).
- 8. C**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했던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5-49절)  
**A**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존재들이다(참조, 히 11:13).  
 (2) 그러므로 성도들은 광야 여행을 계속해 나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머물지 않

고 방랑하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 (3)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거처할 만한 장소도 없으신 채 일생을 보내셨다(마 8:20; 눅 9:58).
- (4) 그러나 이 방랑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성도들의 나그네 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다.

10. **Q**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51-53절)

- A**
- (1)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가증스런 우상을 없애며 또한 산당(山堂)도 파괴하라고 명하셨다(52절).
  - (2) 여기서 가나안 거민을 모두 몰아내게 하신 이유는 이방 우상에 깊이 몰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또한 산당과 우상을 모두 파괴시키게 하신 이유는 우상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우상을 보고 그 거짓 신을 섬기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참조, 출 20:4-6).
  - (4)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22).

11. **Q**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과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인가? (55, 56절)

- A**
- (1)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진노를 이스라엘 위에 대신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 (3)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가나안인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사사 시대와 왕정(王政) 시대 초기까지 계속해서 이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했고, 이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마침내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운을 맛보았다(대하 36:20).
  -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삶 속에 죄악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죄악이 오히려 성도들을 몰아낼 것이다. 즉 성도들의 인격에서 죄된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의 요소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말 것이다.

**본장의 요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52절).

# 제 34 장 가나안 땅의 경계 및 제비뽑을 족장의 명단

단락구분 1-5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 6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 / 7-9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 / 10-12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 / 13-15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할당된 몫 / 16-29 땅을 나눌 각 지파 대표들의 명단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 3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 4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 5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 6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 7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곳고
- 8 호르 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 9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 10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 11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레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 12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 14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 15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 16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17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 18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 19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 20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므엘이요
- 21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 22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 23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 24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 25 스블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 26 잇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앓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 27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 28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으니
- 29 여호와께서 명하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 1. ㉠ 본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 ㉠ (1)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
- (2) 이러한 상황 아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땅의 분배에 관한 자세한 지시가 내려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당신의 능력을 친히 사 용하신다. 미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의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심으로 앞으로 부딪힐 난관을 의연(毅然)하게 대처하도록 하신 것이다.
- (4) 또한 본장은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함을 보여 준다.

## 2. ㉠ 기업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2절)

- ㉠ (1)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할라’인데 이는 ‘소유’, ‘분깃’을 뜻한다.
- (2)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 하신 것은 담대히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이다.
  - (3)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지 40여 년이 흐른 때였던 터라 매우 지친 상태였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 사라진 때였다.
  - (4) 더우기 그들은 가나안 열국이 엄청난 세력을 지닌 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계획은 불가능하게만 보였을지 모른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불신앙적 태도를 떨쳐버릴 수 있게 하셨다.
  - (6)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다(빌 4:13).

## 3.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에 못 미 쳤다(창 15:18).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12절)

- ㉠ (1)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즉 약속의 땅 을 모두 차지할 필요는 없었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리한 팽창 정책은 해가 되기 때문이다(참조, 신 7:22).
  - (3) 따라서 하나님은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땅만을 허락하셨다.
  - (4)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가서야 그 국토가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렀는데(삼하 8:3; 대하 9:26)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성취(창 15:18)라 할 수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 때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탐욕이 될 수 있다(참조, 잠 30:7-11; 마 6:10).

## 4. ㉠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강까지로 약속되어 있는 땅(창 15:18)을 그 당시 받지 못했지 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3-12절)

- ㉠ (1)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 (2)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욕망에는 만족할 만한 땅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가나안 정복을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능력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사명에 대해 성도들은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 5. ㉠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여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여 주신 하나님 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3-15절)

- ㉠ (1)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이 용기를 잃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 이것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믿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참조, 고후 4:18; 히 11:1-40).

(3) 그러므로 참된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참조, 롬 15:3, 4; 약 1:3, 4; 5:11). 왜냐하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다(롬 8:24).

6.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 안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15절)

- ㉠** (1) 이유로는 그 경계 밖에는 무서운 적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영역 밖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이었다.
- (2)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 (3)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이다(참조, 요 8:32; 고전 8:9).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의 영역이 분명한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즉 말씀 안에서 사는 참된 자유자들이다(참조, 요 8:32; 고전 6:12; 7:22; 고후 3:17; 갈 5:1).

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고 대신 그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15절)

- ㉠** (1) 이것은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과 그 땅 위에 사는 족속은 여호와와 허락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시 24:1; 44:3).
- (2) 그러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비록 그 일부가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登記)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 (3) 즉 이 세상의 땅은 잠시 어느 개인이 청지기처럼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참조, 막 12:1-9; 눅 20:9-16).
- (4)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의롭지 못한 일(부동산 투기 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다.
- (5)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8. **㉠**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위해 가나안 땅을 분할할 자는 누구인가? (17절)

- ㉠** (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
- (2) 여기서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지명에 따라 대제사장직을 수행해 나갈 자(27:21)였으므로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민족적인 큰 행사에서 백성들 앞에 서야 했다.
- (3) 또한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자이며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이었으므로 역시 백성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야 했다.
- (4) 즉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어 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들임이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 (5)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참조, 눅 19:38; 딤후 6:15; 히 2:17; 3:1; 4:14, 15; 계 17:14; 19:1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가나안을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9. **㉠**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가계(家系)와 함께 세밀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18-29절)

- ㉠** (1)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할했던 사실(13절)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2) 또한 당시 세력을 가진 특정한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동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실을 볼 수 있다.
- (3) 이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국가적인 큰 문제에서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에 이르

기까지 자신의 능력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10. ㉠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하여 지명된 족장들의 지파와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순서대로 요약하라(18-29절).**

**㉠**

지 파 명	이 름	이 름 의 뜻
유 다	갈 령	침략자
시 므 온	스 므 엘	하나님께서 들으심
베 나 민	엘 리 닷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단	북 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므 낫 세	한 니 엘	하나님의 은혜
에브라임	그 므 엘	하나님이 기르신 자
스불론	엘리사반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
잇사갈	발 디 엘	하나님은 나의 구원
아셀	아 히 훗	연합하는 친구
납달리	브 다 헬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

**화보자료**

경계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후 각 지파 또는 각 가족 단위의 토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경계선을 설치하였다. 이 사진은 토지 지명 대장이 작성된 시대에도 남아 있는 경계석이다.



경계표를 이동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당 연히 비난을 받는다(신 19:14절).

# 제 35 장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도피성

단락구분 1-8 레위인이 받을 48 성읍 / 9-15 여섯 도피성 / 16-25 살인자 및 과실 치사자(過失致死者)의 취급 방법 / 26-34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에 대한 규례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업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5 성읍 중앙에 두고 성벽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8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들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들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사이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너 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

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

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1. **㉠** 본장에서 특별히 언급된 내용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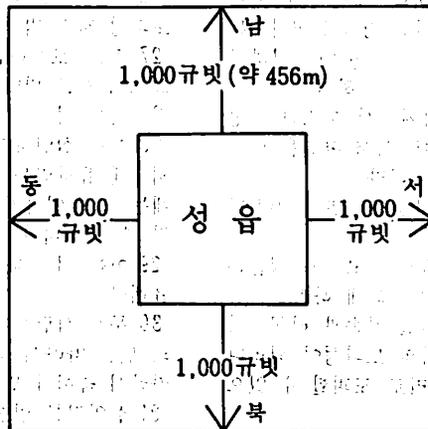
- ㉠** (1) 전장(前章)에서는 일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할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 기록되었으나 본장에는 성직자 지파, 즉 거룩한 일을 행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 충분한 배려가 열거되어 있다.
- (2) 본장에 언급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의 지정과 아울러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특히 율법에 의하여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창 9:5, 6; 신 19:10)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은 신약 시대의 '의' (義)와 '은혜' (恩惠)와의 관계를 엿보게 해준다.
- (4) 도피성 제도가 주는 종교적, 사회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더 큰 의의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유(赦宥)의 은총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 주고 있다.

2. **㉠**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말하라(1절).

- ㉠** (1)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2차 인구 조사(26장)
- (2) 가나안 정복 계획과 그 추진(33장)
- (3) 가나안 땅의 분배(34장)
- (4)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상속법(27, 36장)
- (5)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제도(35장)
- (6) 제사와 절기의 규칙(28-30장) 등이다.
- (7) 결국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과 규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와 그 땅에서 백성들이 행할 여호와와의 지시 사항들이었다.

3. **㉠**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단지 성읍뿐이었던가? (2-5절)

- ㉠** (1) 성읍 뿐만 아니라 창고 또는 짐승들을 들 수 있는 성읍 주위의 들도 주어졌다(2,3절).
- (2) 이 들(목초지)의 넓이는 성읍의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천 규빗(약 456m)이었다.
- (3) 이것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풍족히 살 수 있도록 배

려하셨다.

- (5) 레위인들이 이처럼 쉽게 생계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일만을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 레위인들이 받을 기업은 무엇인가? (2-8절)

- ㉠** (1) 레위인들에게는 가난한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기업이였다(18:20, 23).  
 (2) 그러나 레위인에게도 그들의 가족이 거처할 일정한 장소(성읍)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정착 생활에 필요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다.  
 (3)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모든 지파에게서 조금씩 분할된 땅이었으므로(2절) 결국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4)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도록 하신 것은 야곱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 즉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한 예언의 성취였다(창 49:7).

5. **㉠** 레위인들이 전국에 분산되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 (1) 레위인들이 이처럼 유대 민족 중에 분산하여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 레위의 죄로 인하여 받은 저주 때문이었다(창 49:5-7).  
 (2) 그러므로 그들이 전국에 흩어지게 된 것은 불행한 일로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파를 대표하는 영광스런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흩어짐은 오히려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참조, 합 3:2; 요 13:1, 2).  
 (4)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가하시지만 택함받지 못한 백성처럼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참조, 시 37:24; 잠 24:16).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다(참조, 미 7:8, 9).

6. **㉠** 레위인은 거처할 성읍과 성읍 주변의 목축지 외에는 기업이 없었는데 그들의 또 다른 필요는 어떻게 채워졌는가? (2-5절)

- ㉠** (1)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십일조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다(18:25-29).  
 (2) 또한 레위인들 중 제사장 가족에게는 다른 백성들이 제사드리기 위해 가져온 성물 가운데 일부분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몫이 되었다(레 7:31-34).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자들의 생활을 간과(看過)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참조, 왕상 17:3-6; 고전 9:12-14).

7. **㉠**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모두 몇 개였는가? (6-8절)

- ㉠** (1) 레위인들에게는 도피성(逃避城) 여섯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이 주어졌다.  
 (2) 이 수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4개씩의 성읍을 취해 이루어진 수가 아니라 비례의 법칙에 의해서(8절)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의 수이다.  
 (3) 즉 성읍이 많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많이 줄 것이며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공평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5) 결국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어 전국에 분산된 채 살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여호와와 율법을 가르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경건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6)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셨다(마 5:13-16).

8. **㉠** 하나님께서 도피성(逃避城) 제도를 설치한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6, 9-15, 22-28절)
- ㉠** (1)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재판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보복하려는 자(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었다(참조, 신 4:41-43; 19:1-13; 수 21:13, 21, 27, 32, 38).
- (2) 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신자들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3)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라고 하였고(히 6:18),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피난처'라고 하였다(참조, 시 14:6; 46:1, 7, 11).
9. **㉠**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몇 군데 설치하게 하셨는가? (6, 13-15절)
- ㉠** (1) 하나님께서 6 군데의 도피성을 설치하게 하셨다.
- (2) 그 중 3 성읍은 요단 동편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3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을 삼도록 하셨다.
- (3) 이 도피성의 위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납달리 지파), 세겜(에브라임 지파), 기랏 아르바(유다 지파) 등의 3개 지파 성읍과 요단 동편에 있는 베셀(르우벤 지파), 길르앗 라못(갓 지파), 바산 골란(므낫세 지파) 등 모두 6개 성읍으로 분산되어 있었다(수 20:7-9).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配慮)를 아끼지 않으셨다.
- (5) 즉 부주의하여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망하기 쉽게 도피성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셨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삶 역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 (7)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죄인을 향한 크나큰 사랑에 기인한 구원이었다(참조, 마 9:10-13).
10. **㉠**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이스라엘인 뿐인가? (15절)
- ㉠** (1)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는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
- (2) 즉 이스라엘인 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 (3)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이 모두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예표한다(롬 10:12).
11. **㉠** 도피성으로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살인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16-21절)
- ㉠** (1)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 비록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회중들의 재판을 거쳐 보수자(報讐者)의 손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였다.
- (2) 즉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여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연장을 가지고 고의로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위의 결과만으로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결과를 모두 포함한 전인격적인 행위를 판결하신다(참조, 신 1:17; 삼상 16:7; 행 10:34; 롬 2:11; 골 3:25).
- (4)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 정죄하셨다(참조, 마 5:21, 22, 27, 28; 15:19).
- (5) 이것은 오늘날 독선과 위선으로 타락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12. **㉠** 피를 보수하는 자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19절)
- ㉠** (1) 그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

- (2) 그러나 이 보수자는 그 살인자를 찾아 개인적인 보복을 할 수는 없었다.
- (3) 왜냐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재판을 거쳐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어져 생명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복수의 성격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며 법적인 보복(報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5) 공적인 사형의 경우 보수자가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군중이 함세하여 처형하였다(참조, 신 13:9, 10).
- (6)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악에 대해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에게 심판을 맡기고 인간적인(개인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롬 12:19-21).

13. **㉠** 도피성 제도가 주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22-28절)

- ㉠** (1) 도피성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종교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한 구속을 말하고 있다.
- (2) 도피성 제도의 사회적 의미로서는 살인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을 제한하여 형벌의 공정성을 기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중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므로 살인을 금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통하여 살인의 악순환을 방지하시고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14. **㉠**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였을 경우 자유인으로서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때는 언제였는가? (25절)

- ㉠** (1)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지중에 살인했던 죄가 대속(代贖)될 수 있었으며 그 후에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 (2) 즉 피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창 9:6)에 의해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피흘림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3) 이와 같은 원리는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 그 죄값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한다.

15. **㉠**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임의대로 밖에 나갔을 경우 어떻게 되었는가? (26-28절)

- ㉠** (1) 그는 피의 보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그를 죽인 피의 보수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27절).
- (2) 이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뜻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떠났을 경우 불안과 고통만이 삶의 전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 (3)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
- (4)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고 떠나는 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죄인들이다.

16. **㉠**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취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9-31절)

- ㉠** (1) 살인자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
- (2) 이 경우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거나 그 살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증인(목격자)이 요청되었다.
- (3) 그런데 이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증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30절)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 증언(證言)은 효력을 발생하였다(참조, 신 17:6; 19:15; 히 10:28).
- (4) 이것은 살인자를 처벌하되 신중하게 재판하라는 간접적인 명령이다.
- (5) 만약 그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생명의 속전(贖錢)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여야 했다.
- (6) 만약 속전을 지불케 하여 고의적인 살인자를 사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 생명의 존

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파괴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7. **㉠** 땅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33, 34절)

- (A) (1)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 (2) 그러므로 피를 흘린 살인자를 살려 두는 것은 계속해서 땅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
- (3) 그러므로 피흘린 땅의 구속은 피흘린 자의 피에 의해서만 속할 수 있었다.
- (4) 즉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흘린 자를 처형함으로써만 공의(公義)가 만족될 수 있었다.
- (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대속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18. **㉠**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4절)

- (A) (1)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주권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한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난 것은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비롯된다.
- (4) 즉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많아질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 (5)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은 죽음 후에도 창창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 (6) 영생은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을 받는 것이며 또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참조, 요 11:25-27).

본장의 요점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34절).

## 제 36 장 여성의 상속법

단락구분 1-4 여자의 상속에 대한 문제 / 5-9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한 모세의 대답 / 10-13 슬로브핫의 딸들이 결혼하다

1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 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2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뽑아 주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시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3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뽑은 기업에 첨삭될 것이요

4 이스라엘 자손의 회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5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6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

게로만 시집갈지니

7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9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10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11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12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 게로 시집 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13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1. **㉠** 본장의 내용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민수기 마지막 장(章)에 언급된 여자의 기업에 관한 규례에 대하여 어떤 비평가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 (2) 그러나 12지파에게 분배될 가나안 땅의 신성함을 생각할 때 그 분배되는 땅은 각 지파에게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규례는 중요하다.
- (3)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가족의 경우 딸이 기업을 상속받아 그 분배된 가나안 땅의 기업이 영원히 남아 있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규례였다.
- (4)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영생)이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예표한다.
- (5) 본장의 이 규례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백성의 기업(영생)을 다루고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 길르앗 자손의 두령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1-4절)

- ㉠** (1) 자신들의 지파에 속한 슬로브핫의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한다면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은 다른 족속의 소유가 되며 회년(25:10) 후에도 영구히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소속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 (2) 즉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땅을 딸들도 상속받을 권한이 새롭게 주어진 후 (27:1-11) 발생한 문제였다.
- (3) 이 새로운 법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인권 뿐 아니라 여자의 인권도 정당하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울 얻을 때 동일한 권리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고전 11:11, 12; 벧전 3:7).
- (5) 더 자세한 내용은 27장 ㉑ 2-8을 참조하라.

3. ㉑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여성 상속자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 그녀의 기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3, 4절)

- ㉒ (1) 여성 상속자의 기업은 결혼과 함께 남편이 속한 지파의 기업으로 이양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의미에서 이양되기 위해서는 회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 (2) 회년이 되면 남편에게 이양된 기업은 영원히 그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레 25:33).
- (3) 그러나 회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조항이 변경될 수도 있었다. 즉 여성 상속자가 결혼한 후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나 기업을 무르는 절차를 통해서 여성이 자라난 본지파로 그 기업을 돌릴 수 있었다(27:6-11).
- (4) 이런 이유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할 때에 생기는 기업 문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와 호소하였다.

4. ㉑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㉒ (1)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기 임의로 해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 본 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말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2)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오경(五經)의 전내용을 기록하였다.
- (3) 이러한 이유로 오경(五經)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침이 된다.
- (4)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5. ㉑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6-9절)

- ㉒ (1)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으나 다만 그 조상 지파(므낫세)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도록 명하였다(6절).
- (2) 이 규례의 최종 목적은 각 지파가 그들이 처음 제비뽑아 받은 기업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또 다른 목적으로는 지파들간의 경쟁과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 (4) 이러한 일로 한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고 다른 지파의 기업이 늘어난다면 지파들 간에 다툼의 불씨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 (5) 세상에서는 이처럼 재물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 (6)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지혜로 문제의 불씨를 제거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간의 지혜로만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참조, 약 1:5).

6. ㉑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란 무슨 뜻인가? (10절)

- ㉒ (1) 이 말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들이 속한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그녀들이 받은 기업을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속하도록 했다는 의미이다(11, 12절).
- (2) 결혼이란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실 수도 있다.  
 (4) 이와 같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혼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모세를 통하여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한 것은 그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7. **㉠** 본서의 최종 기록은 어디에서 누가 한 것인가? (13절)

- ㉠** (1) 본서는 최종적으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  
 (2) 한편 이곳에서는 단순히 33:50-36:12에 수록된 부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25-30장에 수록된 내용들까지 기록하였다.  
 (3) 이곳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본서를 끝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자신의 일대기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였다.  
 (4) 결국 모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대이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 연구자료

### 히브리 여자들의 상속권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선 원칙적으로 여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었으니 그것은 곧 집안에 합법적인 상속권을 지닌 아들이 없을 경우였다. 이때는 딸이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본장에 나오는 슬로브핫(Zelophead)의 딸들의 경우이다(1-12절). 헤벨(Heber)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있었다(26:33). 그러므로 슬로브핫이 죽고나자 그 가문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가운데 단지 자신의 죄에 의해서만 죽었으니 마땅히 딸들인 자신들이 그 가문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항변(抗辯)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선례가 없었으므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상속 제도를 설정하여 주셨다. 그것은 곧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상속권을 차지하며, 딸마저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형제가,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권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27:11). 그런데 이러한 규례에 의거하여 상속권을 차지하게 된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제약이 따랐으니 곧 결혼에 관한 문제였다. 이 여자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는 결혼을 할 수 없게끔 되었다(8절).

## 연구자료

십일조에 대하여. 십일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즉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 가운데 십분의 일을 주었으며 (창 14:17-20) 야곱도 벵엘에서 하나님께 자기 소득의 십분의 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창 28:22). 이처럼 십일조는 율법을 통하여 확정되기 이전에도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십일조의 의미는 인간의 소득이 되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더불어 더 많은 축복을 바란다는 것이다 (레 27:30-33; 말 3:8-10). 이러한 십일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① 제 1의 십일조 (18:21-24) : 이 십일조는 성전에서 봉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레위인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농산물 소출의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이다. 제 2의 십일조 (신 14:23-27) :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 가지고 가 일부는 잔치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또 한 성경에 분명한 언급은 없으나 성전의 제단이나 화로같은 기구가 낡았을 경우 제 2의 십일조로 그런 기구들을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제 3의 십일조 (신 14:28, 29; 26:12, 13) :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기준하여 제 3년과 제 6년에는 제 2의 십일조로 잔치를 벌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각 성에 모아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사용하였다 (신 26:12-15). 이를 곧 '제 3의 십일조'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용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제 2의 십일조와 동일한 것이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올바른 십일조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즉 올바른 십일조란 땅의 소산의 십일조만 바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義)와 인(仁)과 신(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마 23:23). 이는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 신앙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참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십일조가 올바른 것이라는 뜻이다 (눅 11:42). 이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십일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곧 내 재산 중 일부를 주님께 희사(喜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일조를 바침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주님의 허락으로 인한 것임과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자신은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성도들은 바른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십분의 구 (9/10)도 정당하고 올바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힘써야 한다.